Laguna Woods Village 제 7 집

October, 2021

우리의 낙원



라구나우즈 문예협회

Cover photo by Seungwon Park

목 차 • CONTENTS

6 라구나우즈 찬가

7 〈서시〉 마침표에 도달하기 전에 | 김소향 시인

8 〈인사의 글〉 Paradise | 고영주 문협 회장

10 〈감사의 글〉 우리의 낙원 | 박용진 한인 회장

12 〈머리말〉 '우리의 낙원' 출판을 축하하면서 | 이강민 한인회 이사장

14 〈격려의 글〉 라구나 우즈는 은퇴자의 낙원 | 최석호 가주 하원의원

15 〈격려의 글〉 '우리의 낙원'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 미셀박 스틸 가주 하원의원

16 〈휘호〉 중용 | 곽병희 서예 작가

1 부 감사와 은혜의 향기

20 바위 | 이윤홍

22 100달러 한 장 | 김석홍

24 심금을 울리는 선율, 'Traumerei' | 임건식

28 United Mutual Board Director 당선 소감 | 이은주

2 부 살며 생각하며

32 편지 | 오성규

33 자연이 노년에게 주는 메시지 | 고영주

34 나이 타령 | 최석호

38 천상의 메아리 강목본 성악가 | 편집자

40 아름다운 동행의 삶 | 김원기

42 벌거숭이 오리는 오늘도 살려 달라고… | 김귀양

3 부 만남과 이별의 길목에서

46 나도 꽃이다 | 고정자

47 님은 갔습니다 | 채호원

48 내 막내 여동생 | 강수지

50 당신도 울고 있네요 | 강홍식

52 빨간 낙엽 같은 이별 | 고영주

4 부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위하여

56 생명 | 박 청
57 살아 있는 낭만 | 최용완
60 그래도 다시 한번 | 이원문
62 기공 단련 | 박태빈
64 잘난 오 형제 | 고영주
68 나눔의 공동체 | 이종민
71 내가 Role model? | 고영철
72 LWV 골프 Rule | 바니윤
74 병상 일기 | 장금주
77 웰컴 투 라인 덴스 클라스 | 최순옥
78 아마존 강의 고기잡이 추억 | 박제송
80 현대 문화인의 병에 대하여 | 이강민

5 부 인연과 추억의 파노라마

84 운수 좋은 날 | 정찬열
복음의 은인 후손
85 Jean Underwood를 생각하며 | 김석자
88 인생 외길을 걸으며 (임동호) | 편집자
90 큐바를 여행지로 택한 것은? | 양정애
94 잔인한 2020년을 훌훌이 보내며 | 주 강
98 2T2H | 김성웅
104 Renecscene | 민공기

6 부 사색의 창가에서

112 빙그레 | 고영주
113 마음의 행적(行蹟) | 연규호
124 선택의 기로에서 | 이덕희
128 말,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송두빈) | 편집자
130 여보, 고마워 | 장원호
135 인생을 노래하자 | 소피아 최
136 여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 Root

목 차 • CONTENTS

7 부 탐구의 세계

140 달빛이 밝으면 | 한자영
141 통일은 누가 하나요! | 김선하
144 치매야 어디갔니? | 손기용
150 Blue Zone과 장수촌 라구나우즈 | 이영범
152 '이슬람 바로보기'란 책을 읽고 | 강홍식
154 시니어타운 골프치는 여인들 | 박승원

8 부 여생지락의 삶

158 마음을 날리는 골프 | 이혜규
159 후손들에게 위대한 유산을 … | 김홍식
162 내 평생 음악 여행 | 김선하
166 우리의 낙원 라구나우즈 | 박용진
169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 정베드로
170 라구나우즈 남성합창단 | 김영국
174 함께 하는 여행길에서 | 송기평

9 부 두고온 내 고향

178 맞선 | 고정자
179 정능 골짜기 | 이 황
182 "샬라, 샬라" 이런 여행하셨나요? | 피효자
184 그리움이 꽃이 되어 | 윤경순
188 6·25 체험 | 강홍식

10 부 영적 삶을 위하여

194 시간의 주관자 | 채호원
195 어두움 터널 속 간구 | 채호원
196 나 언제 집에 가? | 김인수
198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 홍대욱
200 職業選擇과 그에 따른 社會奉事 | 임흥순
204 우간다에서 온 소식 | 신동수
207 막달라 마리아의 노래 | 림학춘
208 7월 18일 주일예배 기도문 | 김경자

210 이야기를 마치며

부록

215 1. 나의 취미생활

신옥자 곽병희 이혜규 박 청 강홍식
손기용 강목본 박승원 정주택 유재성
Brian Kim 이선용 박제송 김소향

227 2. 사진 공모

김소향 피효자 주 강 김수경
이덕이 노조앤 김귀양 임흥순

247 3. 동아리 소개

263 4. 후원해 주신 분들

라구나우즈 찬가

고영주 작사
서경선 작곡





마침표에 도달하기 전에



김 소 향
시인

누구나
언젠가는 밟아야 한다는 마침표
아스라이 보이는 듯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생의 마침표에 이르기 전에
깔끔히 마무리할 지혜 구했습니다만…

방황하는 누군가를 위해
적나라하게 엮은 이정표 하나 세웠으면

이미 마지막 쉼표도 지나온 듯
마침표 건너편
마중 나오실 이에게 다가가고 있는 지금

어인 일로
선물 꾸러미는 나날이 가벼워지는 듯
그러나 무조건 반겨 주리라 믿고 내딛는 걸음

Oh, Paradise!



고 영 주
문예협회장

낙원은 어디메뇨?

꽃 피고 새 우는 별천지,

웃음 가득, 행복 가득,

물 좋고 공기 맑은 곳.

물론 이웃이 좋아야지,

오손도손 정다운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 난향 같은 친구가 있다면 금상첨화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 다 부질없구나.

행복의 파랑새는 언제나 산 너머에 있더라.

도연명의 도화유수 선경도 끝내 못 찾고

불로불사의 영약을 찾던 진시황도

49세 단명으로 생을 마감하지 않았던가.



그래,

이 세상에 낙원은 어디에도 없다.

낙원은 찾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

용서하면 너그러워지고

감사하면 겸손해지고,

참으면 기쁨이 오리니.

내 마음은 행복의 텃밭,

아, 라구나우즈여!

천국도 여기 있네,

〈우리의 낙원〉도 여기 있네.

우리의 낙원



박 용 진
한인회장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이요 앞으로 살 것도 기적이라!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내가 잡초 되기 싫으니 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로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 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라 .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 그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라.

라구나우즈 한인회 향기가 영원토록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천당 바로 아래 999당이라고 자랑하는 이곳 라구나우즈 지상의 낙원에 살고 계심에 축하를 드립니다.

26-27개의 크고 작은 동아리의 그룹을 보면 정말 열심히 사신다는 모습에 정열과 Energy는 타 지역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여생 아름답게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고 자녀들에게 또는 앞으로 오실 새 입주자님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과 기록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난 40-60년간의 이민 생활에 한 획을 긋고 이곳에 오신 한인들 자랑과 멋진 그 모습 재현될 수 있는 이곳 라구나우즈!

<우리의 낙원 7집> 창간을 축하드리며 많은 분들의 기고 및 헌신하는 모습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미국 대통령 Mr. John F. Kennedy 문구를 인용 하겠습니다.
"And so my fellow Americans,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그러므로 친애하는 라구나우즈 한인 여러분, 라구나우즈 한인회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라구나우즈 한인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미국 Mr. Abraham Lincoln 대통령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라구나우즈 주민의, 라구나우즈 주민에 의한, 라구나우즈 주민을 위한 한인회"와 함께 기억에 남는 라구나우즈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LWA '우리의 낙원' 출판을 축하하면서



이 강 민
한인회 이사장

매년 라구나우즈 한인회의 문예협회에서 우리들의 생활과 회고록을 출판함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우리의 낙원' 이란 표지로 그동안 코로나 유행 감염으로 근 2년 동안 고립된 생활을 해 왔던 우리들의 착잡했던 마음을 풀고 우리의 낙원을 다시 읊어보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동산에 지난 10년 동안 살면서 많은 분들이 기고해 주셔서 다음과 같이 해마다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출판에 문협 회장으로 수고하신 고영주 회장님과 김일홍 전 회장님 두 분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 그리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출판하는데 밤잠을 자지 못하고 수고하신 것을 저는 압니다. 매년 출판한 것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푸른 동산(2014년),
한인들의 이야기(2014년),
세상 이야기(2015년),
동행(2016년),
인생의 향기(2017년),
울 엄마 (2018년),
이민 생활의 파노라마(2019년).

앞으로도 계속 좋은 글들을 모아 라구나우즈의 한인들에게 기쁜 소식과 소망을 주는 문예협회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범생이 버섯나무야,
바람은 그치지 않고
태풍도 지나가는데
얼마나 힘겨울까!
묵묵히 버티는 넌
우산이라는 걸,
6남매 키우시던
울엄마 가는 다리
생각이 나네.

-달파-

라구나우즈는 은퇴자의 낙원



최 석 호
가주 하원의원

라구나우즈! 이제 한인 은퇴자 지상낙원이 되었습니다.
꽤 많은 은퇴 한인들이 모여 사신 지가 이제 수십 년이 되어 가는데 여러 가지 취미 활동 클럽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년 회고록 겸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문예지 발간 클럽 회원 여러분들이 이제 제7집 '우리의 낙원' 책을 금년에 또 출판하심에 축하와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이 문예지 출판 기념 축사를 쓸 때마다 라구나우즈야말로 지식의 보고요 쓰고 단맛을 다 경험한 인생 삶의 경험이 한 데 모인 곳이라는 여운을 띄웠습니다. 그 지식과 경험을 글로 영원히 남기게 되어 필자에게도 좋고 독자에게는 참으로 좋은 인생의 길잡이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귀중한 라구나우즈의 전통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낙원’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미셸 박 스틸

MICHELLE STEEL
48TH DISTRICT, CALIFORNIA
STEEL.HOUSE.GOV

COMMITTEE ON 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

COMMITTEE ON EDUCATION AND LABOR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Washington, DC 20515–0548

1113 LONGWORTH HOUSE OFFICE BUILDING
WASHINGTON, DC 20515
(202) 225-2415

17011 BEACH BOULEVARD,
SUITE 570
HUNTINGTON BEACH, CA 92647
(714) 960-6483

안녕하세요? 가주 제48지구 연방하원의원 미셸 박 스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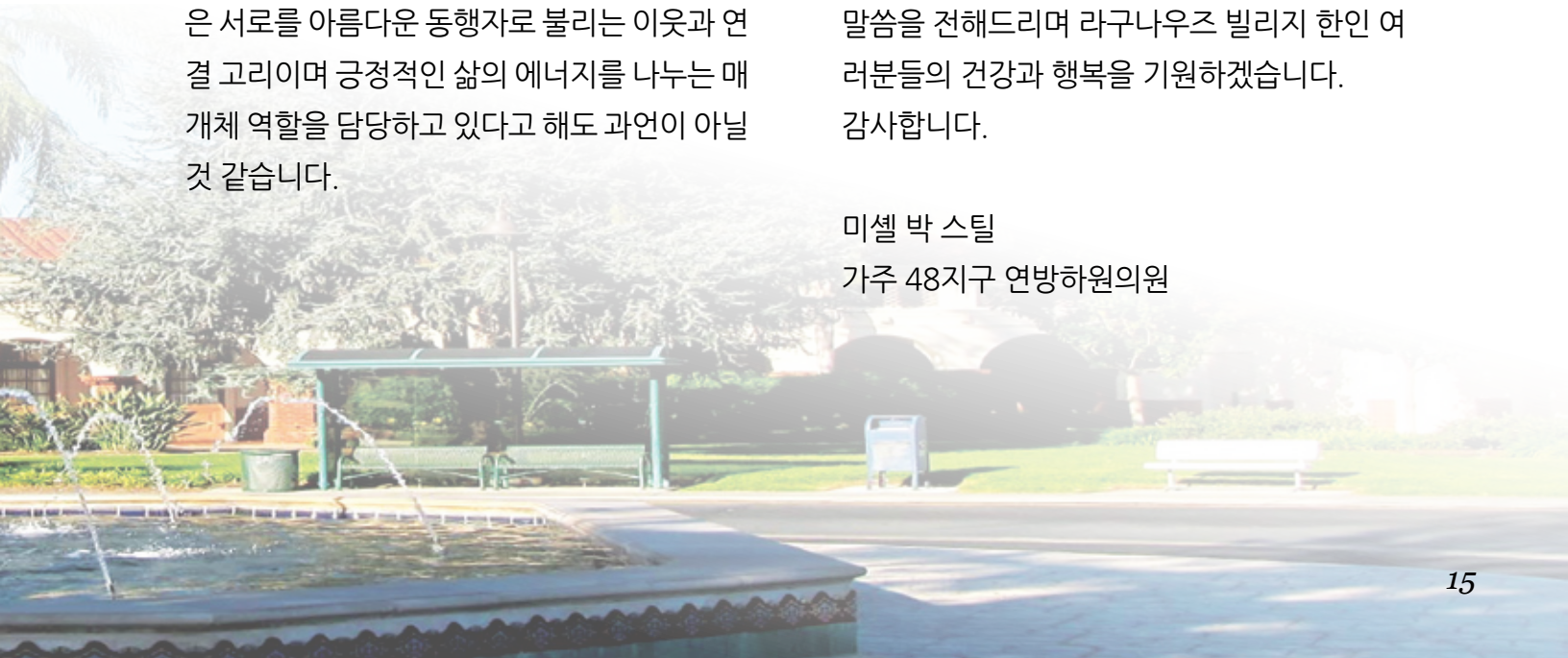
오렌지카운티의 최대 은퇴 타운인 라구나우즈에 거주하시는 한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 매년 발간하시는 한인 문예집 7번째 ‘우리의 낙원’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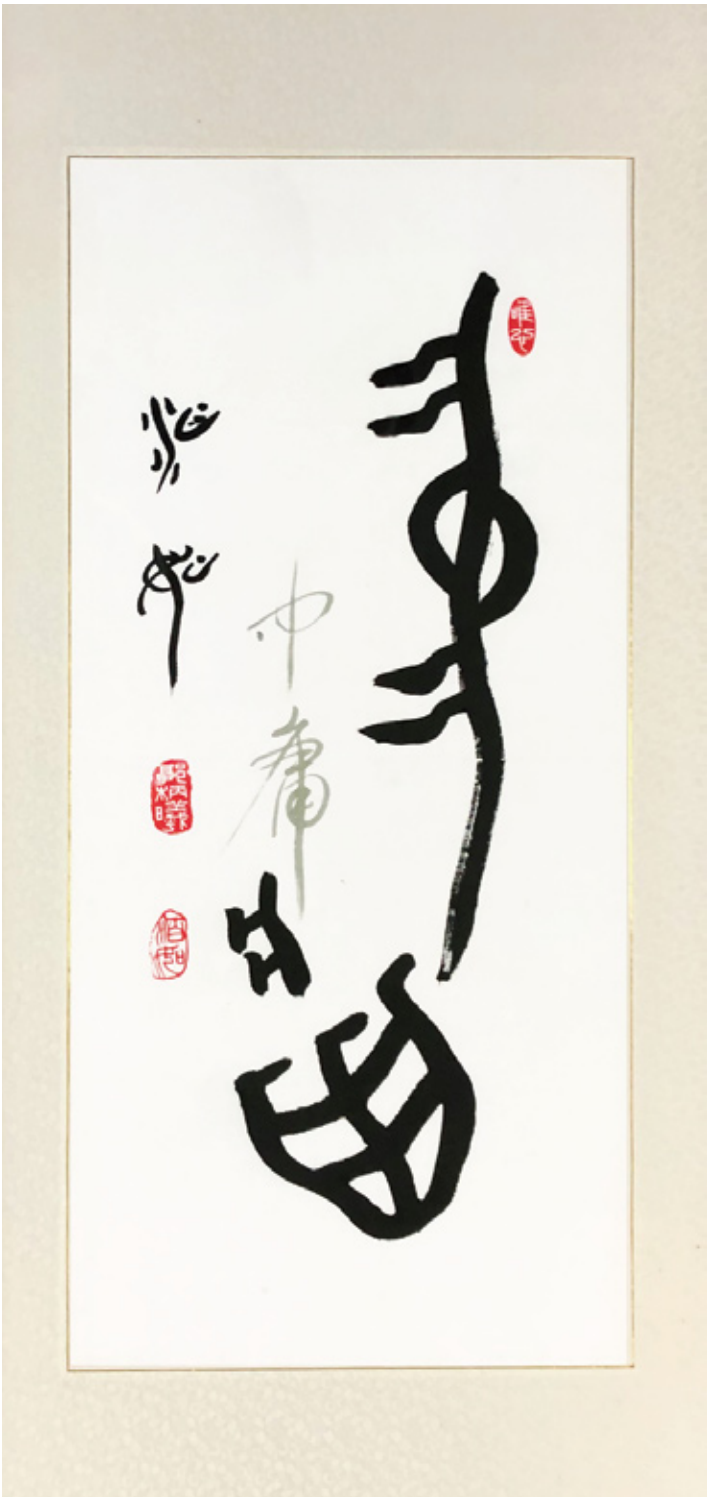
미주 전역에서 은퇴 후 이곳에 자리 잡으신 한인 분들이 2,000명이 훨씬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생을 경험하신 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우리의 낙원’은 서로를 아름다운 동행자로 불리는 이웃과 연결 고리이며 긍정적인 삶의 에너지를 나누는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라구나우즈 빌리지에 200개가 넘는 클럽이 있어 다양한 취미활동을 즐기실 수 있지만 1년간 틈틈이 준비해 온 한인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와 경험이 수록된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특별한 즐거움이며 여러분들의 소중한 삶의 흔적들이 활자화되어 작품으로 남는 일은 크게 보면 미주 한인 이민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에 버금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출간에 작품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제작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라구나우즈 빌리지 한인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셸 박 스틸
가주 48지구 연방하원의원





중용(中庸)



박여 곽병희
취묵헌 서예 지도

사서삼경 책 중의 하나이며 공자의 손자가 쓴 유교 교리의 철학 서적 이름입니다.
중용이란 말을 쉽게 풀이하면 한 쪽의 너무 부족함과 또 다른 한 쪽의 너무 지나침의 양극단을 배제한 중간의 덕목을 말합니다.

흔히 그 사람 덕을 많이 쌓았다 할 때 덕이 뭘까요?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주어진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하며 품위를 잃지 않고 행동하는 것도 덕을 쌓고 사는 것이며, 하고 싶은 말을 참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옮기지 않을 수 있는 내적인 힘(내공)을 키우는 것도 덕을 쌓고 사는 것이며, 재물을 흥청망청 쓰는 것은 낭비의 극이고 마땅히 써야 할 것에 쓰지 않는 것은 인색의 극이라 하면, 같은 돈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남몰래 돕고 사는 것, 도덕을 쌓고 사는 것이며, 자신이 아는 것을(지식) 허풍 과장하지 않고 적절한 방식으로 남들과 나누며 사는 것도 덕을 쌓고 사는 것이라 하겠지요.

이렇게 덕을 쌓고 사는 사람이 되기가 어디 그렇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그것은 중용의 상태를 발견하기가 언제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많거나 많이 배우고 지식을 축적했다고 해서 덕을 갖추고 중용의 삶을 산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여러 상황에 맞추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중용의 상태를 택할 수 있습니다.
중용이라는 배에 덕을 싣기 위해서는 오랜 훈련과 습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루를 중용의 상태로 살았다고 해서 중용의 경지에 든 삶을 산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본인의 졸작 휘호는 전서체를 파자하여 쓴 것입니다. 전서체는 중국 진시황 때 서체를 통일하여 국가지정으로 쓰였습니다.

풀꽃 |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1부 감사와 은혜의 향기

바위 | 이윤홍
100 달러 한 장 | 김석홍
심금을 울리는 선율, 'Traumerei' | 임건식
United Mutual Board Director 당선 소감 | 이은주

LWV Art Studio







이 윤 홍
시인 · 소설가 · 번역가

바위

사랑이라면
저 바위를 닮겠다

그랜드캐년
깎아지른 절벽
화석 바위 배꼽 아래
아슬아슬 꽃 피우는 풀꽃

오직 저 꽃,
제게로 날아온 풀꽃, 꽃 피울 수 있도록
수십억 년 굳을 대로 굳은 몸
기필코 벌려 꼬옥 껴안은 저 가슴 넓은 아슬한 자세

풀꽃의 뿌리가 뻗어 들어가는 동안
바위의 몸속으로 물길이 나기 시작했을 것이다
풀꽃과 저 바위의 숨결이 하나로 어우러져
무늬를 이루었을 것이다

인연이래도
이리 모진 인연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사랑이래도
이리 모진 사랑을 나는 본 적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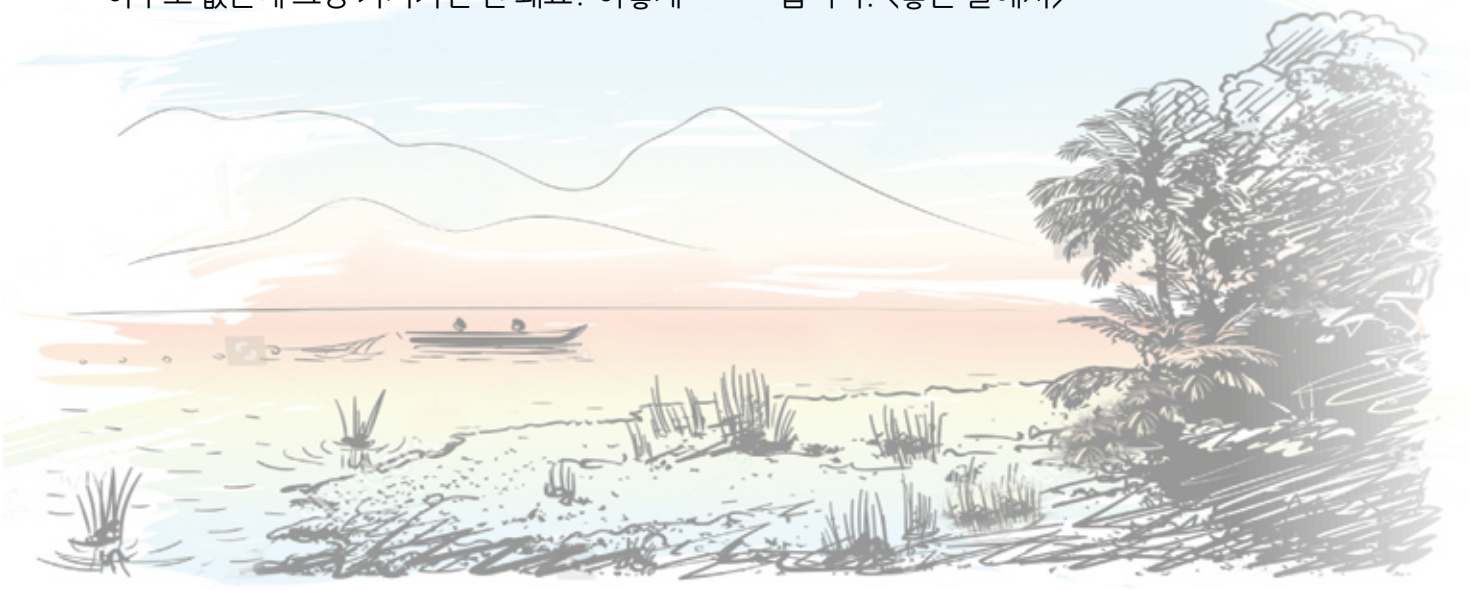
우리, 목숨 같은 사랑에 온몸 벌겋게 데어
피 보다 더 진한 각혈로 껴안아도
서로 꽃 하나 피우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 볼수록 몹시도 먹먹하다
바위 한 덩어리 제 몸 열어
가녀린 풀꽃 하나 꽃 피우게 하는 일은

사랑이라면
저 바위를 닮겠다

아버지와 아들의 낚시

낚시를 좋아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마을의 외딴 저수지에서 낚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낚싯대 앞에 앉아 있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부자(父子)는 빈손으로 낚시를 마무리하려는 순간, 아들의 낚싯대에 큰 물고기가 걸렸습니다.
아들은 무척이나 신난 목소리로 아빠에게 자랑했습니다.
아버지는 흐뭇해하며 건져 올린 물고기를 보았는데, 배가 볼록한 것이 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어종 보호를 위해 산란 어종 낚시를 금지하고 있었기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물고기는 알이 가득해 잡을 수 없겠구나. 아쉽지만, 풀어주고 그만 가자." 그러자 아들은 펄떡이는 물고기를 보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냥 가져가면 안 돼요? 이렇게 큰 물고기를 처음 잡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단호하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규칙을 어기는 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란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물고기를 풀어주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사업가로 크게 성공한 아들은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껏 정직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어릴 적 아버지와 낚시하며 배운 정직의 원칙이 오늘의 저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원칙과 정직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바르고 곧은 것을 말합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손해 보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게 원칙과 정직을 지키는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좋은 글에서>



100달러 한 장



김 석 홍



30년 산호세 생활을 접고 남가주로 이사하기 마지막 한 달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명색이 4베드룸 단독주택에 살다가 어바인의 아들네 집 뒷 마당에 따로 지은 1베드룸 게스트 하우스로 이사를 하게 되니 가구며 책, 그밖에 잔잔한 세간살이들을 나누어 주고 또 주고, 버리고 또 버려도 끝이 없었다. 그리고는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송별회들, 크고 작은 작별의 세레모니들….

6-7년간 우리 집 정원을 관리해 준 멕시코인 정원사와 작별을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였다. 우리 내외가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즐겨왔던 제법 넓은 뒷마당을 꾀부리지 않고 정성껏 잘 보살펴 준 고마운 정원사였다. 오랫동안 우리 집 일을 했지만 한 번도 섭섭하거나 기분 상하지 않게 서로를 존중하며 지내온 것에 감사할 뿐이었다.

그날은 토요일이어서 그랬는지 그는 9학년 짜리 아들까지 데리고 왔다. 전에도 가끔 같이 와서 아버지 일을 도와준 적이 있어 낯이 익은 유순한 아이였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공부에는 관심이 적고 벌써부터 계집애들을 쫓아다닌다고 은근히 걱정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아버지에게는 마지막 계산에 특별 보너스를 두둑이 얹어 주니 아주 고마워한다. 그리고 아버지 뒤에 엉거주춤 서 있던 아들을 내 앞에 불러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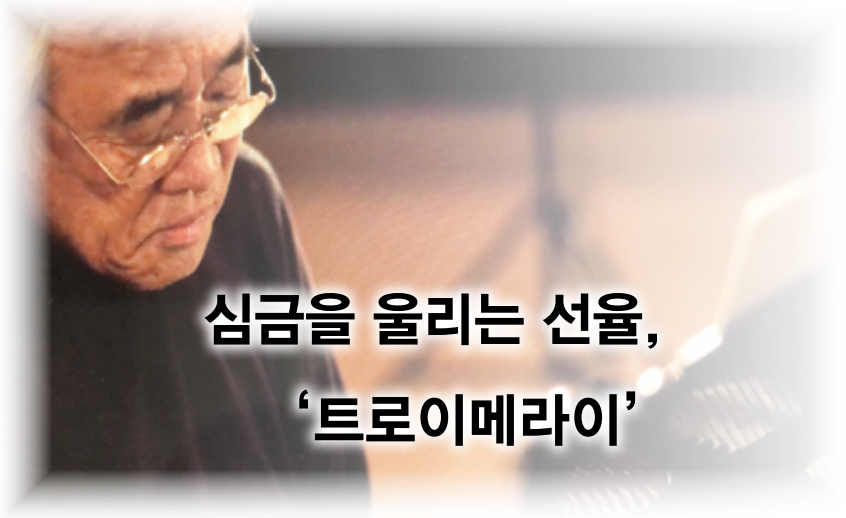
"로베르또, 너 말이야 나하고 약속을 하자. 네가 흔쾌히 약속을 해주면 내가 너에게 100달러를 주겠다"고 선포를 하니 아이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는 희색만면이다.
"약속은 다름아니라 지금부터 딴눈 팔지 않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하여 대학에 갈 준비를 하는 것이야. 너희 아버지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니? 대학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야. 멕시칸 학생들 대학 진학률이 밑바닥인 건 너도 잘 알지

않니? 너의 다음 목표는 대학진학이다. 약속할래, 로베로또?"
"예 약속하겠습니다, 선생님." 하며 큰 소리로 기꺼이 화답을 한다. 우선 눈 앞에 100달러 짜리가 어른거리는 판에 약속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겠지. 그리고 나서는 나의 선창에 따라 "나의 다음 목표는 대학 진학입니다"라는 구호를 크게 외치라고 요구했다.

"좋다. 여기 100달러 가져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겠지.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그리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니야. 약속의 증표로 사나이끼리 굳은 악수 한 번 하자." 악수를 마치고는 따뜻하게 포옹을 해 주면서 등을 다독여 주었다. 이 광경을 쳐다보고 있던 그 아버지는 싱글벙글. 그의 눈이 촉촉히 젖어드는 게 살짝 보였다.

지금도 그날 생각하면 빙그레 웃음이 나온다. 아마 내가 가장 보람 있게 쓴 100달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그 푼돈으로 그 아이의 장래를 살 수는 없겠지만, 백에 하나라도 정말로 백에 하나라도 그 아이가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날의 장면을 떠올리며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질지 누가 알겠나.





심금을 울리는 선율, ‘트로이메라이’



임 건 식
성악가

뉴욕은 나의 제2의 고향이다. 그곳에서 희로애락의 모든 감정과 감사와 은혜로 점철된 50년의 기나긴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갔다.

그리고 우리는 살기 좋다는 칼리포니아 은퇴 촌 라구나우즈로 이사했다.

아침 일찍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푸른 골프장 산책길을 걷는다.

가벼운 맨손 체조를 한다. 아침 식사를 하고 나른한 몸에 살며시 찾아온 오수를 즐긴다. 잠에서 깨면 몇 번을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감미로운 음악이 흐른다.

“쏠도 씨도 미쏠 도 도 ….”

나의 옛 친구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연주하는 ‘트로이메라이’를 감상한다. 나의 고향은 유서 깊은 만월대 선죽교가 있고 조선 제일의 명기 황진이의 숨결이 베어 있는 곳, 송악산 기슭에 자리 잡은 개성이다. 나의 큰누나는 미국 선교사가 세운 호스돈 여학교에 다녔다. 누나는 피아노를 잘 치고 노래를 잘 불렀다. 나는 큰누나를 좋아해서 늘 따라다니곤 했다. 우리 가족은 고운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는 큰누나와 함께 저녁이면 가끔 합창을 했고 유성기로 음악도 들었다.

6월 25일, 인민군이 삽시간에 쳐들어왔다. 그때 나는 개성 중학교 4학년이었다. 상급생들은 4, 5, 6학년을 모아 놓고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가르치고 “남조선 해방 승전 궐기대회”라는 주제로 매일 세뇌 교육을 시켰다. 결국 우리들은 조선 인민군 깃발을 높이 들고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의용군 자진 입대”라는 구호를 외치며 인민군 지원소로 행진했다.
이때 어떤 노인이 웃통을 벗고 길을 가로막았다.
“너희들이 의용군으로 나가려거든 나를 짓밟고 가거라.”라는 고함이 들렸다. 자세히 보니 우리 개성 중학교 박두하 교장 선생님이셨다.
상급생 주동자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는 동안 대열은 흩어지고 학생들은 빠져나갔다. 나도 상급생들의 눈치를 살피며 집으로 뺑소니를 쳤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준 교장 선생님의 모습은 그 후 영영 보이지 않았다.

9.28 서울 수복으로 인민군은 평양 북쪽으로 밀려 나가고 개성은 잠시 평온한 것 같았지만, 1월 4일 중공군이 가담하여 인해전술로 북에서 밀고 내려와 다시 피난민 대열이 국도를 가득 메웠다.
큰형은 유엔군 통역으로 갔고, 둘째 형은 학도병으로 떠났다.
나는 어머님이 누이동생 조카 모두 여자만 7식구를 데리고 집에 계시는 것을 보며 무정하게 친구와 함께 서울로 떠나야 했다.
내 친구 성수와 함께 인파에 밀려 국도 곁길을 따라 쏜살같이 달리며 후퇴하는 군용트럭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걸었다.
우리 바로 앞에서 GMC 군 트럭이 급정거하며 미끄러지는 소리에 주위를 보았다. 벌써 어린 아이가 트럭 뒷바퀴에 깔려 몸이 두 동강이가 났다. 엄마는 아이 상반신을 안고 통곡을 하는데 뱃속에서 튀어나온 긴 회충이 꽁꽁 얼어붙은 길바닥에서 튀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다. 뒤따라 오던 트럭들이 밀려 장사진을 이루었다.



트럭에서 미군 병사 몇 명이 내려와 길가 옆 밭에 구덩이를 파고 아이를 묻어주고 병사들끼리 둘러서서 기도를 올렸다. 슬피 우는 엄마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그들은 황급히 차를 몰고 떠났다.
서울에 도착한 우리는 학도병에 자원했으나 17살이 되지 않았다고 거절당했다. 친구와도 헤어지고 텅 빈 서울 거리에서 혼자가 된 나는 용산구 원효로에 사는 사촌 형 집을 찾아갔으나 텅 빈 집이었다.

포탄 터지는 소리에 깨었다. 훤한 새벽부터 북에서 진격해 내려오며 퍼붓는 요란한 소리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나는 파편만이라도 피하려고 다다미 밑에 구덩이를 파놓고 들어가 있었다.
추워서 이불을 덮고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여 방 안에 있던 유성기를 구덩이 안에 놓고 음악을 들으니 한결 안정되었다. 온종일 포탄소리와 음악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가 계신 개성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었다.
아침에도 남아 있는 나무로 아궁이에 불을 때서 밥을 지어 먹고 다다미 아래 구덩이 속에서



음악을 들었다.
"앗, 와르르…" 방문 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음악을 껐다. 머리끝이 오싹했다. 나는 다다미를 슬며시 올리며 머리를 내밀었다.
인민군 한 명이 소총으로 나를 겨냥하고 또 한 사람은 엎드려 권총을 겨누었다.
그들은 나를 마루 밑에 숨어서 무선으로 남한과 내통하는 스파이로 오인하고 한강으로 총살시키러 간다고 하며 나를 끌고 나갔다.
"나는 피난을 가지 못하고 남아서 유성기로 음악을 들었어요. 다시 가서 확인해 보세요." 하고 나는 애원을 했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안 했다.
인민군의 총부리 앞에서 걸어가는 나는 저쪽 길 건너 주인 없는 창고에서 밀가루 포대를 꺼내 들고 기뻐 뛰며 가는 사람들이 부러웠다. 왜 죄 없는 내가 한강에 끌려가 총살을 당해야 하나, 나는 죽는 것인가? 슬프기만 했다.
삼각지를 지나 한강 대로로 들어서자 이때 갑자기 비행기 소리가 났다. 기세가 당당했던 인민군은 기가 꺾여 빈집으로 몸을 숨겼다. 이어서 기관포와 폭탄 터지는 소리가 진동했다. 나는 비행기는 무섭지 않고 어서 도망칠 궁리를 하는데 그들의 시선이 나를 놔 주지 않았다.
그 집 마루 위에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 유성기가 있었다. 폭격기가 떠나자 모두 안도의 숨을 쉬었다. 나는 유성기 있는 데로 가서 만지작거렸다.
권총을 찬 인민군 상관이 그 유성기를 가르키며 무엇이냐고 나에게 물었다.
나는 이때다 하며 바로 내가 아까 음악을 들었던 유성기라고 하자 옆에서 보고 있던 다른 인민군이 틀어보라고 했다. 유성기 속에 놓여진 음판을 그대로 틀었다. 놀랍게도 집에서 가족과 함께 듣던 아! 트로이메라이 "쏠도 씨도 미 쏠 도 도"
(트로이메라이 곡은 당시 유행된 음악이어서 당시 유성기를 가지고 있는 집에서는 많이 듣고 있었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세요" 생전 처음 간절한 기도가 나왔다.
내 마음을 저미며 울음이 터져나왔다. 장총으로 나를 겨누었던 인민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는 이야기를 꺼냈다.
자기는 6.25 직후 서울 원효로에 있는 선린 중



학교 재학 중에 북한 의용군에 자원입대하여 평양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정규 인민군에 소속하여 서울 진격을 하자 제일 먼저 자기 집에 가고 싶다고 상관에게 허락받고 왔는데 아무도 없어 실망이 컸다고 한다.
그래서 동네 이웃집을 돌아보다가 굴뚝에 연기 기운이 남아 있는 우리 집을 찾아왔었다고 자초지종 설명을 해 주었다. 자기도 이 음악을 들으며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했다.
이야기를 듣던 나와 인민군은 어느새 손을 잡고 있었다. 인민군 상관도 우리를 보고 있었다.
음악은 끝나고 비행기 소리도 멀리 사라졌다.
나와 아야기했던 인민군이 상관 곁에 가서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한다.
나를 놓아 주었으면… 인민군 상관이 그때 무전기가 아니고 유성기였다고 납득을 했으면…
이야기를 마친 후 인민군 상관의 발걸음이 나를 향해 다가온다.
"그냥 집으로 가!"

나는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하고 돌아서서 한강 반대쪽으로 달려갔다. 함께 울던 인민군이 멀리서 손을 흔들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란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다.

오늘도 식탁 옆 손바닥만한 마당에 심어놓은 예쁜 꽃들이 나를 반긴다.
"쏠도 씨도 미쏠 도 도…"
나는 지금 감사와 자유를 만끽한다.
나의 그리운 어머니!
고마우신 박두하 교장 선생님!
나를 살려준 인민군!
나를 구해준 곡을 선물해 주신 작곡가 Schumann!

뒤돌아보면 지나온 발자취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구나!
아름다운 숲속 마을, 아, 라구나우즈여!
이곳에 일찍 와서 기쁨을 나누며 봉사하시는 여러 선배님 동료들에게 깊은 감사를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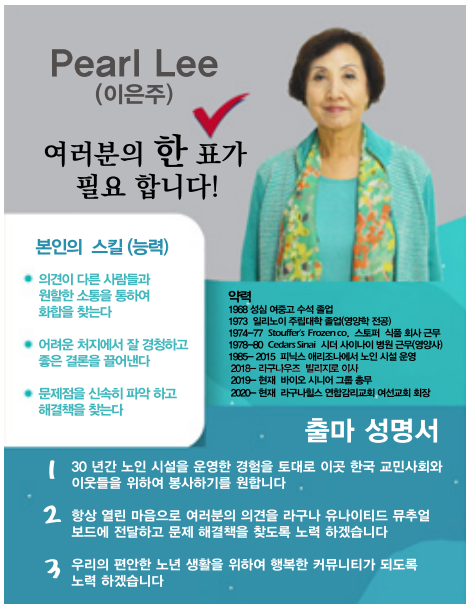


United Mutual Board Director 당선 소감



이 은 주
당선인

LWV 한인 여러분!
지난 9월에 있었던 United Mutual Board 선거 기간 동안 열의 띤 응원과 아낌없는 후원과 자원봉사로 도와주신 한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높은 득표로 무난하게 당선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관심과 수고 없이는 이루지 못하는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에게 새로운 도전과 꿈을 심어주신 넬슨 권 전 한인회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한인회장 임기 동안 한인 대표가 반드시 Board member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비전과 신념을 가지고 저를 강력하게 추천하시고 권유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이사 와서 생활하는 지난 3년 동안 단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이삼일 남편과 의논하면서 이런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하고 나 자신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 후보 출마를 결심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갖추어 후보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두어 번 통화를 한 후 넬슨 회장님은 건강의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급기야 회장직까지 계속할 수 없게 되었지만, 지금은 집에서 회복 중에 계시고 저에게는 참으로 고마운 분이십니다.

저는 후보등록을 마친 후 다른 후보들과 정기적으로 Zoom meeting을 하면서 선거 작전 회의를 하며 한인들의 자원봉사자 모임도 8월 16일부터 시작하여 6주 동안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클럽 하우스 #1에서 월요 정기모임을 통해 선거 전략을 세우고 가능한 한 많은 한인에게 투표의 중요성을 알리고 나 자신을 홍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많은 분이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셨고 후원금도 보내 주시고 자원봉사자들도 한마음이 되어





우편으로 방문으로 한인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전단지도 돌리고 사진이 붙은 포스터도 차와 골프 카에 붙이고 눈에 뜨이는 곳곳마다 다니며 열띤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앞뒤로 선거 포스터를 붙이고 게이트 앞에 서서 오고 가는 차량에 열심히 홍보도 했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일처럼 열성을 보여주신 고마운 분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저는 저대로 신문기사와 TV 인터뷰를 준비하고 미국 유권자들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또한 중국말로 전단지를 자원해서 번역해 주시고 중국분들에게 저를 홍보해 주신 분들과 제 기사를 정기적으로 홍보해준 한인회와 김홍식 박사님도 너무나도 고마운 분들입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해주신 분들도 너무나 많이 계시고 마치 대가족이 하나 되어 저에게 힘을 실어주신 것 같습니다.

10월 4일에 자원봉사자들의 마지막 모임을 가지고 그동안의 수고를 감사하는 점심을 함께 나누고 한인회에 저희 남은 후원금 $2600.00을 전해드리고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10월 12일이면 선서식을 하고 United Mutual Board Director로 3년간 무보수 봉사직을 시작합니다. 비록 초년병이지만 앞으로 열심히 배우고 여러 회의에 참석하여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는 Board Director가 되겠습니다.

지난 30년간 노인 시설을 경영한 제 경험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은퇴 후 이곳에 와서 한가하게 취미생활을 하겠다는 생각은 잠시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며 기꺼이 감당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인회와 꾸준히 협력하면서 한인사회와 라구나우즈 빌리지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인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방문객 |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2부 살며 생각하며

편지 | 오성규
자연이 노년에게 주는 메시지 | 고영주
나이 타령 | 최석호
천상의 메아리 강목본 성악가 | 편집인
아름다운 동행의 삶 | 김원기
벌거숭이 오리는 오늘도 살려 달라고… | 김귀양

LWV Wood Shop



편지



오 성 규
시인 · 의사

이제는 미리
작별 인사, 해두는 게 좋겠네.

한여름 뙤약볕 쏘다니던 유충
어느 날 답답한 비단 집에 갇혔는데…
이제는 날개 펴서 훨훨 날아갈 때
가야 할 시간은 모르지만
하얀 이빨 보이며
작별 인사 보내려네.

여름 바다 파도가 나의 눈길 기억할까?
낙엽 길 발자국 어디엔가 남아 있나?

자서전 한 권 없이 지내온 날들…
표제를 뽑으라면 (사랑의 기쁨)

내 날개 빛 왜 이리 궁금할까?
동트는 아침 햇살-
바닷가 저녁노을-

아무렴 힘든 길 여기까지 왔으니
이쯤 해서 작별 인사해 두는 게 좋겠네.
고마웠네….

자연이 노년에게 주는 메시지



고 영 주
수필가

저녁놀이 한 편의 아름다운 시라면 단풍은 늦가을을 그린 한 폭의 수채화다.
뭉게구름은 한순간도 집착하는 법이 없다. 시시각각으로 무상의 교훈을 말한다. 도도한 물결은 백옥처럼 부서지며 한낱 물거품으로 쓰러진다. 눈부신 백설은 고운 빛으로 왔다가 흔적 없이 사라진다. 비 온 뒤에 무지개는 웃는다.

자연의 종장은 한결같이 아름답다. 아름답기에 덧없고, 덧없기에 순간을 아낀다. 자연은 저마다 경이로움과 감동을 주고 떠난다. 그것은 자연이 순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헐뜯지 마라, 겸손하라 하는 말들은 다 자연을 보고 인간이 배운 금언일 뿐이다. 산은 높아도 뽐내지 않고 물은 깊어도 드러내지 않는다.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던가. 노인이 말을 아끼고 잔잔한 미소로 살아간다면 현명한 일이다. 자연을 보면서 노인은 너그럽게 살고, 집착하지 말고, 아름답게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노년은 어둠이 아니고 삶을 마무리하는 황혼이다. 노인은 낙엽이 아니다. 감성으로 곱게 물든 단풍이다. 고개 숙인 꽃은 낙화가 아니다.

대부분 사람은 죽으면서 후회한다. 파계승 중광의 묘비에는 '괜히 왔다 간다.'라고 썼다. 공자도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한 자신을 죽는 순간에야 깨달았다. 김활란 여사는 큰 사랑의 빚을 지고 간다고 했다. 페스탈로치는 모든 것을 용서한다고 했다.

사람은 평생 그린 그림 위에 고백이라는 하얀색을 덧칠하고 간다. 세상 번뇌 다 털어버리고 진솔하고 겸허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다.

애도가 죽은 자에 대한 산 자의 슬픔이라면 명복은 죽은 자가 저승에서 받는 복이다. 빌어줄 복이 있으면 죽음은 끝이 아니다. 감사할 일이다. 울고 왔지만 갈 때는 힘들어도 웃고 가자.

나이 타령



최 석 호
가주 하원 의원

나는 첫 정치 입문을 하면서 정치 선배들이 만든 토요일에 만나는 정치입문 훈련에 몇 주간 가입하게 되었다. 그게 1998년이었으니까 벌써 23년 전의 일이다.

물론 여러 가지 항목 중에 나이만큼은 유권자들에게 안 알리는 게 좋다는 논리였다. 그 이유로는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나이를 알리면 그 나이대의 유권자 외에는 유익한 호감을 주지 못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내 나이는 50대 입니다”라고만 말한다 해도 그 나이 줄에 있는 유권자는 동질감을 느끼게 되지만 그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은 “넌 너무 어려!”라는 감정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고 그 아래 나이 줄에 있는 사람들은 “넌 너무 늙었어!”라는 태도를 갖기 쉬우니 계산상 손해 보기가 더 쉬우니 나이를 밝힐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 나도 나이 50대에 늦둥이 정치 입문을 했으니 자기 나름대로 당선 경험이 있는 선배님들의 가르침인지라 내 뇌리에 새겨져 버렸다. 논리야 맞든지 말든지.

그래서 선거국에 제출하는 서류 중에 나이 쓰라는 대목은 나는 항상 비워 두었다. 다행히 그게 필수로 대답할 항목이 아니어서 지금껏 잘 넘어 갈 수 있었다.

그 덕분이었는지 아무 탈 없이 지금까지 23년 동안 12번을 치른 선거에 잘 살아남았다. 사실은 치른 선거가 한 번 더 있었는데 그건 계산에 안 들어갔다. 왜냐하면 그 선거에는 내가 실패를 했으니까 아마도 그때는 실수로 내 나이를 어디에 공개한 탓인지도 모르겠다. 믿거나 말거나!

그 해가 2010년 처음으로 주 하원의원에 출마를 했다가 미끄럼을 탔던 해다. 다행히도 그 해에는 어바인 시의원 재직 당시 “안전 기간” 이 되어서 정치 문을 떠나야 하는 쓴맛까지는 겪지 않아도 되었다. 다시 말해서 시의원의 4년 임기 중 2년째가 되는 해에 있는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될 때는 당선이 되면 당선된 자리로 옮겨 가지만 낙선이 되면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가 있어서 “안전 기간”이라고 칭한다. 그래서 2010년 첫 낙선을 했으나 시의원 자리에 남아 있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직을 연속하는 ‘기록’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나가다 보



면 내가 정계에서 물러나는 해에는 잘못 하면 “최장수” 선출직 지킴이라는 기록이 기네스북에 올라 갈까 염려스럽다.

이렇다 보니 내 나이 어언간 70줄 하반기에 다다르고 말았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필사적으로 내 나이 밝히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숨겨야 할 때인 것 같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작년(2020년) 하원 예비 선거에 젊은 중국계 청년 공화당 후보가 나를 대적해서 출마를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내 나이를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젊은이로 세대 교체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공화당인 나를 흠집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원래 같은 당의 현직의원이 있는 자리를 특별한 사고를 친 인물이 아니라면 같은 당원이 도전하는 것은 금기 되어 있는데 공화당의 “웃어른들”이 그에게 그만 두라고 한사코 말리는 데도 끝까지 남아서 예비선거에서 그 후보가 떨어질 때까지 남아 있으면서 주 무기를 내 나이 공격에 쓰고 있었다. 그러나 웬일인가 그의 나이 공세가 먹혀 들어가지 않고 네 명 후보중에 그 “놈?”은 제일 꼴찌로 예비선거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러니 첫 “후보 훈련소”에서 배운 나이 숨기라는 말은 근거 없는 헛소문이 된 셈이다.

내가 2016년 처음 하원에 당선되어 새크라멘토에 올라가서 새로 당선된 의원들을 만나고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자리에서 내 눈에는 무척 늙어 보이는 백인 의원 하나가 내게 다가와 하는 말이 “네가 아마도 우리 하원의원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다. 내가 구글을 쳐 보니까 네 나이가 나 보다 더 많더라. 그래서 내가 제일 늙은 의원이 아니니 난 행복하다.”라면서 희색이 만면한 만족한 표정을 하고 내 곁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의아해서 무슨 구글이 내 나이를 알고 있담 하고 떠들어 보니 아니나 다를까 내 이름 옆에 버젓이 ‘January 15, 1944’라고 내 생년월일이 써 있지 않은가!
요즘 같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 범람 속에 내 “비밀”이 숨겨져 있을 수가 없다. 구글 속의 Wikipedia 라는 기사는 누가 쓰는지 모르겠지만, 내 출생지 같은 몇 가지의 오보 외에는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착실하게’ 써 놓은 것을 발견한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그 안의 오보를 바로 잡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 운전 면허증에 적힌 생년월일 만큼은 정확하니 따질 수도 없는 일이다. 나보다 나이가 적어서 '행복'하다는 백인 의원의 나이를 떠들어 보니 아니나 다를까 1946년생으로 나타나니 내가 '덜 행복' 해야 마땅한 것 같다. 눈을 뜨고 둘러봐도 나보다 나이가 더 많게 보이는 의원이 하나도 눈에 들어 오지 않는다. 구글을 두들겨 볼 필요도 없다. 2년마다 새로 들어오는 의원들이 있어서 희망을 갖고 작년에도 눈여겨 봤는데도 더 어린 나이만 보인다.

알렉스 리라는 중국계 의원은 1995년생이니 이제 갓 26세다. 내가 장가를 늦게 가서 탈이지 내 손자뻘이 될 만한 나이다. 그 외에도 또 다른 20 대가 있었고 초반 30대도 꽤 많은 것을 발견 한다. 한 가지 위로를 찾자면 주 상원에 여자 의원 한 분이 1939년생으로 그러니까 올해 82세가 되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기왕 늙은 김에 가주 의회에서 가장 나이 많은 의원의 기록을 깨려던 "꿈"이 깨졌다. 그 나이까지는 난 아직도 멀었다. 내가 6선까지 성공해서 살아남는다 해도 2026년에야 임기가 끝나는 이 여자 상원의원의 기록을 깨지 못할 것 같아 실망스럽다. 그러나 하원에서만큼은 내가 가장 나이 많게 보이니 고상한 표현으로 "하원의 최장자"라는 클레임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문제는 나이 많은 것에 대한 어떤 특전이 없다는 사실이다. 앞자리에 앉혀 주지도 않고 나이 수당을 주지도 않는다. 내 동료들이 나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다. '아이고 불쌍해'인지 '나이 많은 주제에 여기서 뭐해'인지 모르겠다.

내가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왜 우리 한국 신문은 이름 뒤에 괄호하고 꼭 나이를 기재하는 것이다. 나이를 숨기려는 나에게 신문이 나에 대한 관련 기사를 쓰면 꼭 내 나이를 괄호 안에 밝히는 것이다. 그나마 어떤 때는 가짜 나이가 들어가 있는 것도 종종 발견했다. 신문사에 전화해서 틀렸다고 따지려면 내 정확한 나이를 밝히면서 틀렸다고 주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그나마 이미 발행돼 버린 신문에 대해 반항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냥 묵과해 버리곤 했다.

근래 신문에서는 그 나이를 괄호 속에 빼먹는 경향을 보고 조금 안심한다. 그러나 현재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8세에 대통령에 취임을 했으니 한번 임기만 마친다 해도 82세가 되고 혹시 두 번 임기를 마친다면 86가 되는 계산이니 내가 나이 탓하고 일찍 정계에서 물러나

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년 75세라니 4년 후에 재출마를 한다면 79세가 되겠고 당선된다면 그의 4년 임기가 끝날 때 그도 83세가 될 계산이 나온다. 연방 국회의장 낸시 펠로시의 현 나이도 81세이고 가장 고령 의원은 텍사스주 출신 랄프 홀의원으로 현 91세이다. 그러니 내가 만기 6선을 무난하게 마친다 해도 그때 84세가 될 내 나이가 '한창 뛰어야 할 나이'가 아닌가 착각이 들기도 한다. 욕심인가?! 어떤 사람들은 '나이는 오직 숫자뿐이다'라고 말하듯이 사실 내 마음은 아직도 청춘 같아서 내 나이 숫자에 관심을 두고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더 '현명해지는 것' 같은 착각까지 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 사실 '만사에 초월'해지고 "교활"과 '지혜스러움'의 짬뽕 같은 처신의 경륜을 얻은 것 같다.

내가 약 9년 전 처음 어바인 시장에 당선 되고 한국에 나가서 고등학교 동기 동창들을 몇 명 만나 모처럼 화기애애한 식사 자리에서 어느 누가 내뱉은 말이 "야!, 석호, 우리 동기들이 너한테 도전받아 전부 은퇴 그만두고 일터로 복귀하기로 했다"라고 말해서 한바탕 웃기도 했다. 하나님 은혜로 아직 정신 말짱하고 아픈데 없이 건강한 몸으로 살고 있는 내가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집콕" 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사실 답답해서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인가 걱정스러워진다. 잘 치지 못하는 골프 연습하러 나 다니나, 노인회관에 나가서 장기, 바둑을 두면서 시간을 보내나, 내 자서전 집필을 하나… 상상만 해도 모두가 내 황혼을 재촉하는 일들 같이 느껴진다. 나이의 반항자적 태도라고 해도 좋다.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머리와 육체를 써서 계속 활동하면 치매 확률을 줄여주고 육체 건강 유지에도 좋다는 사실이다. 정치 활동을 계속하면 육체로 뛰어 다니고 머리를 써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는 셈이다. 거기에 봉사한다고 정부에서 '용돈'까지 주니 자식들에게 궁색하게 용돈을 기대하지 않아서 더욱 좋다. 가끔 사람들이 '다음은 국회로 가야지요?!' 라고 권장하는 대로 '더 높은 데로' 뛸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당선만 된다면 6선까지 마치는 날 나는 진짜 '은퇴'라는 것을 하고 다시 '민간인의 삶'으로 돌아가 나의 삶의 챕터 3를 열어 나가야 할 것인가 고민이 대단하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 계획' 같은 것을 할 줄 몰랐고 다만 하나님이 열어 주시는 길만 따라 왔기 때문에 고민 하지 않고 내 남은 생의 길이 어느 쪽으로 열릴 것인가 하고 기대 속에 살고 있다.

소탈 소박한 강목본 성악가



강 목 본
성악가
〈글: 편집자〉



"여보, 아까 그 편지 봉투에 넣은 글 어디 두었어?"

아내는 핸드백에도 찾아보고 온 집안을 두루 찾아도 없다. 자동차 트렁크를 열어 봤다. 그래도 없다. 참 이상하다. 분명히 받아서 어디 보관했는데. 여기저기 찾다가 시간을 다 보냈다.

"혹시나 하고 이 층에 올라가서 남편 책상 위를 보았지요. 그곳에 원고가 가지런히 놓여 있더라고요."

"당신 정신 나갔어요?" 하니까

"전깃불도 깜박깜박하잖아?"

아내의 볼멘소리에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았다.

우리는 짜장면을 먹으면서 김 선생님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깔깔거렸다.

옆에서 강목본 사모님이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양반도 그래요." 하며 오늘 아침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짜장면 끓여서 어디에 부을까?"

"응, 거기 플라스틱 통에 넣어요. 그런데 식은 뒤에 부으세요."

조금 있다 와 보니 플라스틱 통이 열에 녹아 찌그러트려져서 다른 통으로 바꾸어 넣었다.

"당신 내가 식은 뒤에 부으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언제 그랬어?"

"금방 말씀드렸는데, 정말, 환장하고 미치겠네요"

"나는 식으면 안 되겠기에 당신이 통에 부어라고 해서 재빨리 부어 넣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이제 엉뚱한 자기주장만 하니 녹음기라도 틀어 놔야겠네요"

알고 보면 이처럼 남편들 때문에 아내들은 속

상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건망증인가? 치매 초기인가? 도대체 알 수 없다.
누구보다도 청각이 예민하고 아무리 긴 가사도 척척 외워 잘도 부르던 성악가가 간단한 아내의 말에 왜 실수를 했을까?
2003년 Kidney cancer를 앓았고 CT 촬영 결과 그것이 다시 방광암으로 전이되었다. 그 뒤 방광암 치료 경과가 좋아 완치되었다고 했는데 갑자기 숨이 차서 2021년 8월 심장 검사를 받



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잠복되어 있던 방광암 균이 어느새 폐로 전이되어 또 다시 폐암 판정을 받았단다. 이제 언제 터질 줄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다닌다고 했다. 3종 cancer 종합 세트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다.
그래도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했다. 암은 오래된 내 친구, 언제나 마음의 평정 속에 산단다.

강목본 성악가는 라구나우즈를 몹시 사랑한다. 인성이 좋고 순박하고 성실하다. 2019년 라구나우즈 극장에서 탈북자 돕기 독창회를 열어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행사 때마다 열심히 노래를 부른다. 주민들은 귀에 익은 그의 음성과 모습을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을 정도다.

아버지가 화교이신 강목본 성악가는 광주에서 태어났다.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만에 가서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만 국립예술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다.
1964년 대만 TV 방송국에서 독창회를 발표하며 인기 상승 가도를 달리다가 고향이 몹시 그리워 귀국하여 광주 방송국에서 활동했다.





지금의 아내는1969년 이화여대를 졸업했고 그해 10월에 결혼했다.
1982년 12월 미국에 와서 Laguna Woods Village에 입주하여 여러 이웃과 선배님을 만난 것이 그의 일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란다. 특히 이곳에서 음악의 문을 열어주신 이덕희 선생님에게 무한한 감사를 보내며 선생님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었다.
“라구나우즈는 참 묘한 매력이 있어요. 클럽 활동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일꾼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며 이제 죽는 날까지 항상 사랑해 주신 여러분 앞에서 혼신을 다해 나의 노래를 바치겠다고 다짐한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의 열정이 암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



“아름다운 동행의 삶”



김 원 기
목사

몇 해 전 한국의 가을 산들을 관광하는 여행을 하고 있었다. 전라남도 조선 팔경 국립공원 백암산 백양사를 오르는 산길 길목에 누군가가 꽂아 놓은 “동행”(한자로 동행)이라는 팻말에 발길이 멈추었다. 한자로 큰 글씨 “동행” 이라 쓰여 있는 그 아래에는 적은 필기체 한글로 “함께 걸어줄 누군가 있다는 그것만큼 우리 삶에 절실한 것은 없다”라고 적혀 있었다. 누가 꽂아 놓았을까? 왜 좁은 산길 여기에 꽂아 놓았을까? 이 팻말을 꽂은 사람은 어떤 동행의 삶을 살고 있을까? 그가 이 팻말을 통하여 의도하는 바는 무엇일까? 여행을 하는 동안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리고 여행 후 미국에 돌아와서도 단풍으로 물던 한국의 아름다운 가을 산들을 기억하기 보다 산사의 오솔길에서 본 팻말의 “동행”이라는 두 글자가 나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어떠한 동행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앞으로 어떠한 동행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진정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얼마나 준비하였는가?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내 남은 생애에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기 위하여 준비하고 노력하여야 하지 않는가? 나는 나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생동안 진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남은 생애를 외롭지 않게 축복받는 동행의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생각해 보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동행” 이라는 두 글자를 의식하지 않고 바쁘게 살아왔다. 아니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빠른 세월 속에 묻혀서 여기까지 왔다. 은퇴 후에 어떠한 동행의 삶을 살 것인가 준비하지 않고 살아왔기에, 식사 후에 설거지하고, 밥하고, 그리고 라면 끓이는 것 외에 요리하나 제대로 못 하는 자신이 부끄러울 뿐이다.

나는 우리가 사는 은퇴자들의 마을에 이사 온 후에, 언제부터인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부부들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교훈을 얻고 그리고 그들이 나와 아무 상관 없는 사람들이지만 존경스럽기 까지 하다. 사람을 보는 눈이 예전과 달라지고 있다고나 할까? 혹은 아름다움에 대한 나의 시각이 달라져 가고 있다고 할까?

나는 요즈음 3개월 전 척추관 협착증 수술 후 건강 회복을 위해서 수영장에 다니면서 80대 중반의 한 부부를 만나고 있다. 남편이 지난 15년 동안 일주일에 3번씩 신장의 피를 걸러내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동갑내기 아내는 남편에게 삶의 용기를 주면서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고 남편은 덤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들 부부의 아름다운 동행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감동적이다.

7년 전에 아내가 세탁기에 세탁을 하다가 넘어진 이후에 걷지 못하게 되어서 활동할 때는 보행보조기(walker)에 의존하여야 하는 아내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한 선배가 있다. 그를 향해 존경심을 표하는 나에게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일생동안 나를 위해서 헌신해 온 아내를 돌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의 한 친구로 부터 전화가 왔다. 그는 당뇨합병증으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아내를 지난 8년 동안 간호하며 살림을 살면서 음식 요리를 도맡아 하고 있다. 그는 아내를 보다 효과적으로 간호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교육을 수개월간 받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를 획득하였다는 소식이었다.

내 아내와 가깝게 지내는 간호사로 은퇴한 친구가 있다. 그녀는 고령의 나이에 접어 들면서 건강하지 못하여서 도움이 필요한 장애자 자녀를 둔 이웃을 도우면서 살아가고 있다. 봉사를 사명으로 태어 났는지 “일생 의롭게 살아라”는 나이팅게일의 선서를 실행하고 있다. 그녀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잔잔한 교훈을 준다. 우리마을에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다. 모두가 감동적이고 모두가 존경스럽다.

건강이 기울어지는 연령층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육이 빠지든지, 시력이 약해지든지, 청력이 감소 되든지, 기억력이 점점 떨어져 간다. 그래서 육체의 어느 부분이 치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것이던 아니면 내가 살아오면서 가진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운명지어져 있다. 우리가 일생의 여정 길을 걸어가면서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도울 수 있는 동행자를 만난다면 도움을 받는 자나 도우는 자의 삶도 의미 있고 값진 삶이 될 것이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함께 있어 주고, 대화하고, 용기를 주면서 격려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하여 도울 수만 있다면 이 또한 아름다운 동행의 삶이 되리라.



벌거숭이 오리는 오늘도 살려 달라고…

김 귀 양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컴퓨터를 마주하고 어떤 지인이 보내 준 새로 들어온 이메일에 첨부된 유튜브를 클릭했다. 눈에 띄는 긴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Duck Down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도 오리 털 이불을 덮는다면?' 이었다.

그 유튜브를 보고 있자니 정말 오리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아니 미안하기보다는 죄를 짓고도 뻔뻔한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말 못 하는 짐승일지라도 저렇게 호된 고통을 주며 혹사를 시켜서야 되겠는가?

사람 손에 의해 칼로 베임을 당하여 죽어야 하고 뜨거운 불이나 물속에 익혀져서 먹히는 동물이 하나 둘이겠는가? 그 죽음의 과정이 보이지는 않지만 고깃덩어리로 변한 고기들은 사람에게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맛이 좋다고, 엄청나게 먹히고 있다. 으레 먹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무심코 요리를 하여 먹고 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봐서는 안 될 오리들의 수난을 보고나니 마음이 아파 도저히 오리고기만은 먹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중국의 거대한 오리 농장에 오리들이 꽥꽥거리며 수천 마리가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며 피하다가 어느 지점에 오면 오리들은 두 다리가 끼어 컨베이어에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려 줄줄이 따라 올라 간다. 죽지도 못하고 소리도 지를 수 없게 붙잡아 매달아 놓고 꼼짝도 못 한 체 둥글게 돌아가는 오리들에게 사람의 손이 사정없이 깃털을 뽑아 바구니에 담는다.

처음 뽑은 깃털은 제일 큰 크기로 뻣뻣하여 배게나 슬리핑 백 같은 것을 만들고 두 번째로 뽑힌 조금 작은 속 털은 그보다 조금 더 고급 물건을 만든다고 한다.

크고 작은 깃털을 다 뽑고 나면 너무 보드라워 만져도 감각이 없는 하얀 병아리 털 같은 down을 뽑는다. 그 털로는 이불, 재킷, 등 각종 옷들과 고급 침구류의 상품들을 만든다고 한다.

또 세상 사람들은 그 상품을 사서 따뜻함과 가벼움과 부드러운 촉감을 만끽하며 입고, 사용하며 삶을 즐기고 있지 않은가?

털이 다 뽑혀 새빨간 살이 드러난 오리들은 겁먹은 눈을 번뜩이며 꼼짝없이 매달렸던 기계가 다리를 풀어 주는 순간, 퍼드득거리며 다시 땅을 밟자마자 무서운 속력으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오리 장 속으로 꽥꽥거리며 도망을 간다. 가 봤자 또 그 오리 장인 걸 아는지 모르는지?

사람은 뽑은 털을 통속에 모으고, 기름을 빼고,

깨끗하게 세탁을 하고, 따뜻하기로 으뜸인 오리 털로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 세계 곳곳에 팔아 이문을 남기고 팔아댄다. 그 벌거숭이 오리들은 몇 달 후면 다시 털이 자라서 하얗게 드러났던 피부 위를 덮는다. 그리고 작았던 깃털이 큰 깃털로 자라 온몸을 덮어 살갗을 덮어 비로소 스스로의 몸을 보호하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오리들을 잡아 다시 똑 같은 공정을 자행한다.
큰 깃털서부터 솜같이 부드러운 속 털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벗 기우고 새빨갛게 살만 남은 오리들은 갑자기 온도가 낮아지니 자기들끼리 한 곳에 모여 서로 살을 맞대고 온도를 높이며 놀란 가슴을 안정시킨다.
뽑혀진 털은 소용 닿는 대로 종류대로 나누어져 공장으로 팔게 되고 그 공장에선 털의 기름을 빼는 여러 공정을 거쳐 상품을 만들어 상표를 붙여 세계 곳곳에 이익을 남기고 판매를 한다.

오리들은 평생 열 번의 털을 그렇게 사정없이 뽑힌다고 한다.
오리가 늙어 더 이상의 털이 잘 나지 않고 윤기도 없어 털의 가치가 떨어지면 죽임을 당하고 음식점으로 팔려 간다. 결국은 갖은 양념을 치고, 지지고, 볶고, 끓여서 요리상 위에 맛있는 음식이 되어 사람의 뱃속을 채우게 하고 돈을 벌게 해 주는 희생을 당하게 된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살이 드러난 오리들이 기계에 매달려 돌아가는 모습, 오리 장 속의 털이 하나도 없는 빨간 오리들이 울며 살려달라고 버둥거리는 꿈을 꾸며 가슴이 너무 아팠다. 나도 오래 전에 어느 백화점에서 고급 Duck Down Comforter를 세일한다고 하여 식구 수 대로 오리털 이불을 제일 좋다는 것으로 사서 겨울이면 침대 위에 덮어 놓고 따뜻한 잠을 자기 위해 사용한다.

우선 가볍고 부드러워 나는 푹신한 오리털 이불을 참 좋아했다. 추위가 오기 무섭게 선반에 올려 두었던 오리털 이불을 꺼내 덮는다. 또한 재킷도 잘 입고 다닌다. 한데 그 영상을 본 후론 이걸 덮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 번쯤 망설이게 된다. 그리고는 "이미 샀는데 버릴 수는 없잖아…. 나 하나 안 쓴다고 오리들의 희생이 끝나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변명을 해 본다.
오리털 이불을 끌어당겨 목까지 덮어쓰며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줄여 보려고 "내가 만든 것은 아니니까"라는 핑계로 내 자신을 위로해 본다.
"오리들아 미안해. 오늘도 너희 희생 덕분에 내가 따뜻한 잠을 잘 수 있으니 참 고마워."라는 마음으로 단잠을 재촉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꾼다. 하얗고 따뜻한 오리털 이불을 덮은 내 이불 위로 털 뽑힌 벌거숭이 오리들이 냄새 나는 오줌과 똥을 마구 싸 놓으며 이리 저리 몰려 다니며 꽥꽥거린다.
나는 그 오리들을 쫓아 내느라 팔을 허우적거리며 문 쪽으로 밀어 내지만 땅에 발을 붙이고 꿈적도 않는 오리들은 나에게 달려들려는 기세로 노려보고 있다. 나는 도망을 가려고 발을 옮겨 보지만 내 발은 꼼짝도 않는다. 끙끙거리며 잠을 깨어 보니 오리털 이불을 꼭 끌어 안고 손에 힘을 주고 있었다.
그리곤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구……"

대추 한 알 | 장석주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3부 만남과 이별의 길목에서

나도 꽃이다 | 고정자
님은 갔습니다 | 채호원
내 막내 여동생 | 강수지
당신도 울고 있네요 | 강홍식
빨간 낙엽 같은 이별 | 고영주

LWV Jewelry & Copper Enameling







고 정 자
교수

나도 꽃이다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한번 피면 이름이 생긴다.

꽃은
피어야 웃는다.
웃어야 향기가 난다.

꽃은
바람이 불어도 웃는다.
눈비가 내려도 웃는다
폭풍우가 불어도 웃는다.

꽃은
지는 순간이 아름답고 위대하다.
꽃이 진 다음에야 꽃이 웃는 이유를 안다.
열매를 잉태한다.
꽃은 그것을 위하여 존재한다.

나도 꽃이다.
나도 누구를 위하여 웃는다
나는 꽃으로부터 모성애를 배운다
나도 항상 웃기로 했다.

님은 갔습니다



채 호 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추석을 하루 앞둔 날
선교사님은 갔습니다

이 곳에서의 선교사역은
아직 남아 있는데
예수님 품이 그립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열정이 아직 살아 있는데
육신의 질병을 넘지 못하고
끝내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오히려
모든 슬픔을 뛰어넘기에
오늘 우리는
송별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가
유가족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막내 여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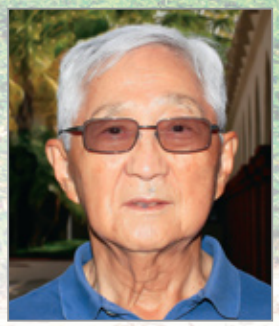


강 수 지
수필가

우리 형제는 오 남매다.
내가 맏딸이고 남동생 셋 그리고 막내 여동생이 있다. 77년 전 얘기다.
아침에 눈을 뜨니 엄마가 안 보인다. 외할머니한테 엄마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지금 아기 낳으러 병원에 갔다고 하셨다.
좀 있으니 엄마가 딸을 낳으셨다고 연락이 왔다.
1944년 5월 17일 내가 남동생 셋에 외딸이고 맏이라고 집안에 사랑을 다 받았는데, 이제는 외딸도 아니고 동생이 하나 더 생겼으니 사랑은 다 뺏겼구나! 하는 생각에 샘이라는 인간의 죄성이 꿈틀거린다.
이젠 미안하다 해도 대답 없는 동생이 됐다.
우리 집은 무교동이었는데 가끔 광화문 분수대에 놀러 갔던 때가 있었는데, 동생과 분수대 난간에서 까불다 물에 빠진 적도 있다.
하루는 동생을 업고 광화문 소방서 앞을 지나면서 한눈팔다 하수도 뚜껑이 열린 것을 못 보고 가다 동생의 한쪽 다리가 빠져 혼난 적도 있다.
서울 운동장 수영장에서 동생을 업고 수영하니 동생이 참 좋아했다.
어릴 적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세월이 흘러 내가 결혼을 했는데, 동생이 학교갔다 우리 집에 와서 조카들을 업어주고 놀아주고 '이모 이모' 하고 따르니 신바람이 났는지 방과 후면 우리 집으로 직행했다.
내가 첫딸을 낳으니 동생이 없던 이모가 우리 큰딸을 참 좋아하고 커서는 친구같이 됐다. 업어주고 놀아준 정인지 짝꿍이 됐다.
큰오빠의 초청으로 64년도에 유학 왔고 우리는 70년도에 애들 셋을 데리고 이민 왔다.
동생도 결혼했고 우리는 동생 집에서 몇 달을

같이 살면서 신세를 많이 졌다.
하루는 큰딸이 배가 아프다고 학교에 못 갔는데 이모가 병원에 데려가니 복막염이라 해서 수술받고 입원했던 일도 있다. 이모 때문에 살았다고 할머니가 된 우리 큰딸이 지금도 잊지 않고 얘기한다.
동생네가 사업상 S.F로 이사를 가서 자주 못 만났는데 사업도 잘되고 삼 남매 다 결혼시키고 이제는 우리 시간도 갖고 쉬자고 회사도 팔고 했는데 동생이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더니 폐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언니 나 폐암 4기래" 하는 전화를 받고 온몸의 피가 다 멎는 것 같았다.
그동안 Chemo도 받고 T-Cell이라는 좋은 치료도 받고 Stanford 대학의 폐렴 권위자가 치료도 했는데 한 달 전 상태가 나빠졌다고 해서 아들네랑 병문안을 갔는데 하루에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그날은 내가 들어가서 만났다.
암 환자의 상태를 상상하며 만났는데 생각보다 많이 달라진 것은 없고 얼굴이 좀 야위고 머리숱은 나보다 많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와 말을 마음대로 못 했을 뿐이지 우리 같이 자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한 달도 안 돼 동생이 천국 갔다는 소식이 왔다. 그 날이 마지막 시간이 될 줄은 몰랐다.
5월 11일…, 일주일 후면 생일이라고 Card도 보냈는데….
화장해 주길 원해서 날짜가 잡혔는데 그날이 5월 17일이란다.
"이제는 아픔, 걱정, 근심, 눈물 없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고 있어! 언니도 그 어느 날 너 있는 본향에서 만나 하나님과 함께 건강하게 영원히 헤어짐 없는 그 곳에서 같이 살자.
사랑하는 동생 문자야!"

당신도 울고 있네요



강 홍 식
의사

제 친구 중에 Richard 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멕시코계 텍사스 태생의 미국인 정신과 의사 이었는데 미국 사람치고는 키가 작은 편이며 거무스레한 피부에 둥근 얼굴이고 대머리입니다. 제가 사는 곳 캐토릭성당의 성가대원으로 노래를 잘 불러 무슨 경축행사 때에는 축송을 불러 달라는 부탁을 자주 받는 사람입니다.

또 피아노 연주도 수준급입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시카고 듀렉크 란 유명한 호텔 로비에서 쎄미나 미팅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빈 자리가 없어서 그 사람이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기다리다가 한곡을 연주했습니다. 지금 무슨 노래였는지는 기억이 안 되지만 그 분의 연주는 아주 좋았었습니다.

연주가 끝나니 거기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박수를 치며 팁을 피아노 위에 올려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가 사는 동네에 왔을 때는 텃세가 심한 욕심장이였는데 이십여 년을 사귀다보니 아주 친한 사이가 되어 자주 쎄미나 여행도 같이 다녔습니다.
그 사람이 심장관상동맥 수술도 몇 번 받고 직장암 수술도 받았으나 언제나 명랑하고 괴로운 내색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랑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쎄미나 참석을 하려고 비행기표, 호텔 예약까지 다 해놓았는데 몸이 아파 못 가고 끝내는 제가 라스베가스에 가 있는 동안에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의 장례식에 참석하려 장의사에 갔었습니다. 그의 영정 곁 추모사진 게시물 중에는 그가 활짝 웃는 사진과 어느 해 연말 파티에서 그 사람 내외랑 같이 찍은 우리 내외 사진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분이 내 오피스 방에 들어 오자마자 "홍"(미국 사람들 친하면 훠스트 네임이라고 홍식의 홍을 부릅니다)
"아이갓 폰 후럼 릿사!" (I got a phone from Lisa)



그래 릿사(Lisa)가 누구냐 물었더니 어릴 적 첫 사랑의 연인이었다 하더군요.
대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곧바로 진학을 못하고 방황할 때 그를 버리고 어느 약사에게 시집간 여자랍니다.
그 후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다 합니다.
그 여인이 과부가 되고 외로와 40년만에 Richard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 여인의 첫마디 음성 "Richard" 하는 소리를 듣고 즉각 그녀인 줄 알았답니다.

마침 제가 "당신도 울고 있네요"란 김종찬의 노래 테잎을 듣고 있어서 그 노래를 들려줬죠.
그리고 영문으로 번역해줬습니다.
그걸 읽고 "아이 라이크 잇"(I like it)하면서 그 노래 가사를 영문으로 번역해 적어 놓은 종이 쪽지를 접어 양복 속 주머니에 넣고 미소 지우며 "빠이!"
"돈 텔 호프(그 사람 부인)"(Don't tell Hope) 하고 팔 내저어 가며 나가던 팔자걸음의 뒷모습이 눈 앞에 선합니다.

You are crying

You are crying
I thought you forgot me all
You are crying
Looking at the fliting memory in the tea pot.
Who did know that
We could see again
You are also crying
As like I cried long ago.
Once I hated you
Because there was so many scars in my heart
When I recall your feature in my mind
I roamed alone.
You are crying
I thought you forgot me all
You are also crying
As like I cried long ago.

Richard 를 추모 하면서,
(2002년 10월 31일)

빨간 낙엽 같은 이별



고 영 주



여기가 마지막 고향인 줄 알았는데, 옛집으로 귀향한단다.
백 년을 즐겁게 노래할 사람 같았는데, 노래는 내 인생, 만병이 물러갈 줄 알았는데, 휠체어에 몸을 싣고 딸과 사위와 함께 나타나셨다.
합창회원은 환호했다.

이덕희 선생님은 라구나우즈에서 가장 인상 깊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이러쿵저러쿵하지만,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사람이다.

여성 한인회장도 했고, 이사로 활동했고, 시종 합창반 지도 선생님이셨다. 수많은 합창 발표회와 남성 코러스를 지도해왔다.
언제나 봉사에 앞장섰다.
라구나우즈를 찾아온 탈북자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돈을 쥐여 주며 눈물을 글썽이는 따뜻한 성품이 봄나물 냉이처럼 향긋했다.
그녀는 내가 본 중에 피아노의 달인을 넘어 피아노의 신이다.
그는 맛깔나는 말솜씨와 은반 위에 열 손가락으로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선사했다.

박용진 한인회장의 감사패 증정이 끝나고, 그녀는 김홍식 님이 주문하는 “친구의 이별”을 손수 마지막 피아노 반주로 우리와 아름다운 이별을 했다. 그날따라 장기화 님의 노래도 그리움에 젖어 약간 떨리는 음성이었다. 그림자

처럼 함께 했던 양정애 님도 눈물을 훔쳤다. 라구나우즈가 그런 훌륭한 합창 지도 선생님을 맞이하기란 아마도 반세기는 더 걸리지 않을까 상상해 본다.

지도력이 풍부한 것은 물론이지만, 나는 그녀의 왕성한 열정에 더 인간적 매력을 느낀다. 몸을 불사르는 열정의 소유자, 열정 앞에 당할 자가 있던가.

우리의 바람은 그런 열정으로 건강을 회복하여 강남 갔던 제비처럼 기쁜 소식을 물고 다시 라구나우즈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는 기대감이다.






풍경달다 | 정호승

먼 데서 바람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4부 건강하고 지혜로 삶을 위하여

생명 | 박 청
살아 있는 낭만 | 최용완
그래도 다시 한번 | 이원문
기공 단련 | 박태빈
잘난 오 형제 | 고영주
나눔의 공동체 | 이종민
내가 Role model? | 고영철
LWV 골프 Rule | 바니윤
병상 일기 | 장금주
웰컴 투 라인 덴스 클라스 | 최순옥
아마존 강의 고기잡이 추억 | 박제송
현대 문화인의 병에 대하여 | 이강민

LWV Swimming Pool





박 청
사진작가

생 명

몇 날 몇 밤
아랫도리 때려대던
사막 모래바람에
정신 번쩍
주황 생명으로 피어났나

몇 밤 몇 날
별 무리 노래들
이슬로 서리 틀어
흩어 뿌린
생명인가

어허! 자네도
생명 꿈을
그렸구려



사진: **박청**



살아있는 낭만



최 용 완
시인 · 수필가 · 건축가

친구가 코로나 전염병 예방에 작은 실수로 돌아오지 못하는 운명을 맞는다. 아무나 걸리는 사건들 중에 하필 왜 내 친구가 당했나? 병실에서 죽음을 앞두고 헤어질 과거를 돌아보며 내게 이메일이 왔다. 우리가 친구로 함께 살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던가. 다시 살아서 내일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 후 다행히 목숨을 되찾았다. 주고받는 대화 중에 삶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람은 다섯 가지 행동으로 건강하게 살아 있다는 이야기였다.

다시 숨을 쉬며 음식을 찾아 먹기에 살아났다. 물과 바람이 있는 곳에 음식이 있고 목숨이 살고 있다.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서 목숨들은 이곳에 모여 산다. 동물은 살아 있는 다른 목 숨을 먹고 살기에 살아남는 싸움은 먹느냐 먹히느냐의 전쟁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목숨이 있는 곳에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 가장 큰 싸움은 오늘날처럼 사람과 세균의 전쟁이다. 모든 목숨은 세균에서 시작하여 사람이 태어나기까지 이르렀다. 모든 목숨들이 사라져도 세균은 살아있기에 이 땅 위에 세균은 목숨의 시작이며 끝이라고 했다.

먹으면 반듯이 싸야하고 쏘기에 목숨이 살아있다. 인도는 7가지의 사회계급이 함께 살아 서부자와 가난이 가까운 이웃이다. 금은으로 장식한 부잣집 담장 밖에 가난이 모여 사는 천막촌이 함께 있다. 저녁이면 변소 없는 마을에서 변소를 찾아 헤매는 여인들을 본다. 우리는 옛날에 집 안에 요강이 있듯이 여인들은 깡통을 찾는다. 사람들은 먹고 싸고 쏘고 잠 자는 보금자리로 집을 짓기 시작했다. 들판에 나무 가지들을 세우고 나뭇잎이나 짐승 가죽을 덮어 집을 지어 살았다. 방 하나 안에서 천정에 바람구멍을 내어 숨을 쉬며 먹고 자고 싸고 아이 낳아 기르며 살았다. 한반도의 천막집은 몽골의 동그란 천막집 모양으로 아직도 가장 오랜 집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먹어서 건강하고 자신의 목숨을 잘 관리함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자식을 남겨야 하는 순리에서다. 그 연결이 실패하면 이 세상에서 종자



가 사라진다. 모든 목숨은 종자를 남길 조건으로 태어난다. 남자가 여자의 몸 안에 수없이 많은 정자를 쏘면 경쟁사회가 시작한다. 하나뿐인 꼬리로 헤엄쳐서 여자의 난자에 이르는 생존경쟁은 가장 강력한 마지막 하나만이 난자의 품 안에 안겨진다. 지금 살아있는 우리 모두는 월등한 실력으로 한 때 금메달을 받은 수영선수였다. 암컷은 항상 생명력이 가장 강한 수컷의 씨앗을 기다리기에 수컷들은 머리에 뿔이 나도록 단련하고 수탉의 발톱은 무섭게 자라난다. 그렇게 어려운 선별의 과정을 거쳐서 엄마의 몸 안에서 자라고 태어난 아기의 모습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가. 목숨의 모든 것 그것은 사랑이다.

사람이 짐승과 달라진 모습은 옷을 입었을 때부터다. 사람이 옷을 만들어 입는 습관은 살아있는 셋째 행동이다. 수탉이 긴 날개를 펴서 암탉 몸을 가리는 때는 부끄러워서가 아니고 정자를 햇살에서 보호하는 방법이다. 사람이 제일 먼저 입는 옷은 지저귀이다. 부모가 아기에게 입혀주는 지저귀 이전에 사람은 가장 깊숙한 곳에 찾아오는 손님, 파리부터 막아야 했다. 우리 선조가 농사 짓기 시작하며 제일 먼저 입은 옷이 일본사람들이 아직도 입는 기저귀 모양 훈도시였다. 나무 잎으로 가리고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다가 베틀에서 실을 짜서 갈·등·곡·마·면·모·견 등의 실로 만든 직물과 각종 염색물을 동원하여 고구려 고분의 벽화처럼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입게 되었다. 농사 지으며 뽕나무에서 누에를 기르고 비단 옷을 입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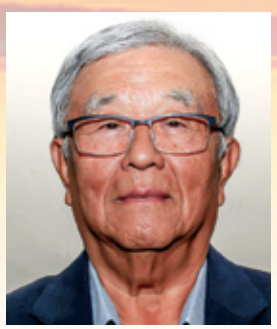
살아 있는 사람은 반듯이 잠을 자야 한다. 낮에 깨어 있고 밤에 잠을 자는 버릇은 살아있는 사람의 넷째 행동이다. 하루만 밤새워도 다음날 낮 동안 밀려오는 잠과 싸워야 한다.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소극적인 휴식이 아니고 뇌를 일깨우고 다음 날 다시 새로운 기억 을 저장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적극적인 정신 활동이라고 설명한다. 모든 사람은 꿈을 꾼다. 저장된 기억을 정리해서 창작하여 저장한다. 꿈을 꾸는 모든 사람은 이야기를 만드는 소설가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태어나지 않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죽어지지 않는 듯 몰래 잠들고 몰래 깨어난다. 주검에서 깨어난 예수처럼 우리는 매일 아침 깨어난다. 작가 헬렌 켈러가 죽기 전에

한번 꼭 보고 싶어 하던 새벽 풍광을 우리는 깨어나며 맞는다. 얼마나 아름다운 아침 햇살을 보느냐는 얼마나 잠을 잘 잤느냐를 말한다.

다섯 번째 살아 있는 사람의 행동은 일하는 시간이다. 먹고 싸고 쏘고 입고 자는 삶을 위해 시간과 공간을 관리하는 노력이다. 여자의 일과 남자의 일이 나누어져 있다. 남자는 경쟁 에 앞서서 승자가 되려고 노력하여 사회를 이끌어가는 동안, 여자는 사랑을 만들어 가정을 이루고 삶 속에 평화와 평등을 이끌어 간다. 삶 속에 경쟁과 사랑이 있어 지구상에는 전쟁과 평화가 공존한다. 세상 어느 곳에나 사람이 살면 아이들이 있고 집들이 옹기종기 마을을 이루어 나름대로 풍습이 있고 전설이 내려온다. 목숨들 중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구 위에 살며 오늘을 맞아 평화스럽게 일하는 우리는 얼마나 다행인가. 목적이 있는 삶은 시간이 모자란다. 한국민족은 빨리빨리로 외국 민족과 다른 점을 보인다. 겨울이 오기 전에 농사를 짓기 시작한 선진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죽음 앞에 이르렀다가 다시 살아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며 삶 속에 두려움과 아픔마저 사라졌다고 한다. 절망이 희망으로 인생길의 방향을 되돌려 놓았다. 살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적이란다. 친구가 살아난 소식이 내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었다. 사람은 영성, 감성, 지성을 갖추어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 지금 지구는 온통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영원한 우주 안에서 지구 위에 잠깐 찾아왔다 떠나가는 사람의 삶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길인가. 떠나는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답이 없이 회전하는 지구는 소리없는 시계바늘처럼 태양의 주위를 맴돌며 시간은 지나가고 있다.

<최용완 약력> 전남 순천 출생/ 서울공대 건축과 졸업/ 미네소타주립대 대학원 졸업/ 서울 숭례문 건축가 / 미주문협 신인상/ 한국 자유문학 신인상/ 한국 에세이포레 신인상/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 장 및 공로상 수상 저서: 한국건축문화사(1965),『새로운 눈에 보이는 세계』(2006), 시집 무등산 가을 호랑이(2013), 『동아시아는 인류 문명문화의 어머니』 천산 출판사(2019),『한반도에서 시작 한 인류문명』 자연과 인문(2019).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원 문
목사

40대 초반이였다. 목에 이상이 생겨 아프기 시작했다. 어깨, 등, 목, 머리 돌아가면서 아프다. 치료자를 찾아 나섰다.

카이로 프랙터(Chiropractor), 물리치료, 한방원, 내과, 외과 , 지압 거의 모든 곳을 찾아 3년의 시간을 보냈다. 맥이 빠진 상태에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이름 있는 신경외과를 보기로 했다. 간호사인 집사람이 안면이 있고, 잘 알려진 유능한 신경외과 의사다.
X-Ray와 MRI를 다시 찍자고 한다. 왼쪽 목 4번째와 5번째 사이에 연골(Spur)이 튀어나왔단다.
X-Ray를 보여주면서… 수술은 50% 찬스인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잠시 침묵 후에 은퇴를 하시지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relax 하시면서… 아플 때면 Portable traction을 하시면서요.
아! 큰일이네, 그 날 집에 돌아와, 세 아이, 집사람, 장모님 얼굴을 유심히 돌아보면서…맥이 쭈-욱 빠진다. 눈 시울도 젖어온다. 많은 식구들 앞에서 조기은퇴라니 더군다나 가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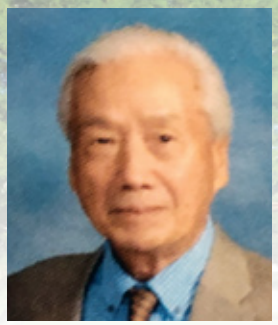
저녁에 조용히 꿇어 앉았다. "하나님, 저 좀 도와 주세요."
다음날 일터에서 돌아와 바로 침대에 누웠다. 피곤도 하고 결단을 해야겠기에. 중학생인 쌍둥이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 오면서 "Hi! Dad" 인사를 하고 이층으로 올라간다. Daddy는 대답도 안 했는데, 국민학교 3학년의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Hi! Dad" 한다. 역시 대답은 안했다. 힘도 없고. 살며시 문을 열고 들여다 본다. 딸이라서 좀 다른가? 가만히 옆으로 다가오면서 딸 얼굴을 보면서 괜찮다. 수심 띤 어조로 "Dad, you will be all right, You will be all right."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간다. 맥이 더 빠진다. 어이 할꼬?

그런데 머리에 떠오른다. 그래도 다시 한번! 교통사고 후 목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찾는 Chiropractor 이미 두 번이나 가 보았지만 한번 더 하는 생각에 슬며시 일어나 Yellow Page를 찾았다. “C” 를 찾았는데 첫 눈에 띄는 분이 있다. Dr. Sivas OC 지역 협회장이며 20년 경력이라고.



전화를 돌렸다.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전화를 했다… Joseph 이라고 했던가? 당신이 전화를 바로했다. 내가 그 분야 전문의사라고 한다. 신기한 생각에 예약을 하고 싶다. 지금 시간이 되는가?
내가 집에 갈 시간이지만 네가 온다면 30분 기다려 준다고. 급히 달려갔다. 많은 이야기 주고받고 “내가 고쳐준다. 아니 하나님이 도와 주실 것이다." 신학생이라고 했던가? 나도 신학을 하고 주말엔 교도소에 가서 말씀 전하고 주중엔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나하고 씨름을 할 터인데 좀 힘이 들꺼다. 기도 많이 하고, 마음 편안히 하고 아주 편안히…. 정말로 어려운 씨름이었다. 잠자리, 벼개, 식사 생활 습관을 바꾸어 준다.
그 중의 중심이 허리와 다리 사이에 Belt를 매고 하루 30분씩 언덕을 오르내리는 운동이다. 땀이 쭈-욱 빠지고 힘이 들지만 그래도…. 약간의 부작용도 생기고…. 꾹 참고 싸웠다.
아침 식사는 충분히, 점심은 보통으로, 저녁은 취침 6시간 전 3시에 간단히 끝내라고 한다.
좋아하는 간식은 절대 금물, 펄쩍 뛴다. 고성도 삼가고, 누구하고 신경전도 안 된다고.
소리를 높여야 할 때면 미리 Belt를 매고, 부부싸움도 절때 삼가라고.
잠자리가 한국식 온돌이 최고란다. 벼개도 한국식 동그랗고 딱딱한 것이 좋다고.
차차 차도가 생기고 6개월 후에 이제는 오지 말란다.
아 !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Dr. Sivas Thank you, 가족에게도 감사!
이 분에게 많은 분을 소개했고 아버님, 장모님 80중반에 다리가 아프실 때도 도움을 받았다.

어느 날 아는 마취과 의사분이 전화를 하셨다. 그 Dr. Sivas를 소개해 달라고 하신다.
그런데 그땐 이분을 찾을 수가 없었다. 고국으로 가셨느지, 일류대학에서 모셔 갔는지?
실망하는 그분에게 혹 그냥 저처럼 그대로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 보고 싶단다.
내 Belt 를 드렸다. 몇 달 후 카와이서 목회하고 있을 때인데 전화가 걸려왔다.
이목사님, 고맙습니다. 나도 다 나아갑니다.
벌써 80고개를 몇 년 전에 넘었고 “다시 한번” 그 이후 40여 년이 흘러갔다.
오늘도 감사 감사하면서…



기공 단련

박 태 빈
한방 연구가

- 1 -

‘기(氣: Energy)’는 천지의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힘’의 근원입니다.

기공(氣功)이란 우리를 기와 연결시켜주는 모든 방법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기’와 잘 연결되어 있으면 질병 없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넉넉하고 느긋해지고 삶이 평안해집니다.

기공을 계속 단련하게 되면 마음과 몸이 유연해지고 호흡은 언제나 안정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갖게 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잘 돕게 됩니다.



- 2 -

우리 몸은 ‘기’를 저장하는 3개의 ‘단전(丹田)’이 있습니다.

양 눈썹 사이에 ‘상단전’이 있는데 이마와 더불어 지혜의 샘터이고 영감이 이곳에서 생깁니다.

‘중단전’은 양 젖가슴 사이에 위치하여, 모든 감정을 관장하고 조절합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합니다.

‘하단전’은 배꼽 아래쪽 약 5cm에 자리 잡고,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관장하고, 뜻을 이루고자 하는 추진력을 일으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뜻을 성취하고자 집중하는 힘의 근원입니다.

- 3 -

기공에 대한 묵상과 명상은 자신과 환경 인식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과 주위의 상황을 관찰해 봅니다.

꾸준하게 실행하면 몸과 마음에 ‘선한 기’를 잘

유통시켜서 모든 집착에서 자유롭게 되며,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게 되고, 긴장을 풀게 되고,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몸이 풍선같이 가벼워지고, 피로는 쉽게 물러갑니다.
내장 운동이 잘 되고, 피의 순환도 정상이 됩니다. 그리하여 혈색이 좋아지고, 머리는 맑아지며, 눈과 귀도 정상이 되고, 감각도 좋아집니다. 식욕도 좋아지고 힘을 쓰는 곳이 저절로 좋아집니다. 그리고 배설기관도 정상이 되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고혈압, 당뇨병, 암 등 신진대사 질병도 예방되고,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4 -

가장 좋은 호흡 방법은 자연스럽고 힘이 들어가 있지 않은 편안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호흡에만 마음을 집중하고, 숨을 들이마실 때 코를 통해서만 합니다. 혀끝을 윗니와 잇몸 사이에 붙이고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목을 따라 가슴을 지나 배를 걸쳐서 아랫배 '단전'까지 내려가게 합니다.
우리 몸의 폐(허파) 아래에 횡격막근(가로막근)을 아래쪽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리하여 '단전'까지 이르고 그곳에 기를 모읍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얕은 호흡인 흉식 호흡(가슴을 주로 하는 숨쉬기)을 하고 성악가들은 더 깊은 호흡인 복식호흡(배꼽 위쪽 배로 하는 호흡)을 훈련합니다.
그러나 기공을 훈련하면 더 깊은 아랫배의 '단전호흡'을 하게 됩니다. 운동하면서 '펌' 하고 숨을 들이키고 '프' 하면서 숨을 내보냅니다.



잘난 오 형제



고 영 주
교수

오늘은 라구나우즈 동네 잘난 오 형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 * * * * * * * *

아버지는 자식들을 성인군자로 키우고 싶었다.

그래서 하는 짓을 보고 이름을 지었다.

첫째는 장난을 잘 친다. 개구쟁이 왕초다. 물론 장남이니까 그냥 장자라고 이름했다.

둘째는 공부를 잘하고 공짜를 좋아해 대머리다. 당연히 공자라고 불렀다.

셋째는 노래도 잘하고 노는 데 선수다. 그래, 니나노 릴리리야, 넌 놀자판 노자다.

넷째는 술이 맹물이다. 형제가 다 골아 떨어져도 혼자 맹숭맹숭. 그럼 넌 맹자 해라.

마지막은 순둥이, 순돌이다. 순진하기가 이를 데 없다. 너야말로 순자로구나!

이렇게 이름을 짓고 보니 아버지가 가르칠 것이 없었다.

그런데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이 제 잘 났다고 서로 싸운다.

성인군자의 이름도 별수 없구나!

아내가 볼멘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사내아이들을 어인 일로 모두 여자 이름으로 바꿔 지으셨습니까? 그래서 남자들끼리 저렇게 수다를 떨다가 싸우는 게 아닙니까?"

"임자, 아들 자(子)자를 썼는데 무슨 말이요? 이름만 들어도 사내가 분명하지 않소. 괘념하지 마시오."

나이가 연만한 아버지는 어느 날 장성한 자식들을 불러 모았다.

"장자야, 넌 중용이란 걸 아느냐?"

"예, 나무꾼이 곧고 밋밋하고 잘생긴 나무만 먼저 골라 다 베어가니 산에는 덩굴나무만 무성합니다.

기러기나 닭을 키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기러기나 알을 잘 낳지 못한 닭을 제일 먼저 잡아 손님 밥상에 올리지요. 그래서 나무는 잘난 놈이 먼저 꺾이고 짐승은 못난 놈이 먼저 죽으니 그저 중간이 좋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난 돌이 정 맞고 못난 놈이 짓밟힌다는 처

세의 지혜라고 생각되옵니다."
"아니, 그게 물이여? 막걸리여?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회색분자로구나!"
"그런데 넌 전번에 사흘 동안 침식을 전폐하고 밖을 나가지도 않았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더냐?"
"아버지, 세상이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가 활을 들고 노는데 마침 그때 까치 한 마리가 과수원 숲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저는 쫓아가 그 까치를 노려보고 활을 쏘려는 순간, 까치도 나뭇가지에 있는 사마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사마귀는 또 한 치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매미를 덮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걸 보았지요. 아, 세상은 누군가 서로 생명을 노리고 또 노리는 연결 고리로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활을 던져 버리고 숲을 나왔습니다. 그 순간 과수원 주인이 제가 밤을 훔친줄 알고 저를 노리고 뒤를 쫓아 오드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무서운 생각이 저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사흘을 굶으며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라, 다음 공자냐, 넌 무얼 터득했냐?"
"인(仁)이요. '인'자를 보세요. 인(仁)은 사람이 두 명만 있어도 도를 행함에 있어 어질어야 합니다."
"도대체 그 인이란 게 무엇이냐?"
"예를 들면 철모르는 어린아이가 위험하게 물가에서 놀고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마음의 바탕입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너를 따르는 넷째 맹자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은 인의 실마리'라고 하는 "측은지심은 인지단야(惻隱之心 仁之端也)"라고 떠드는 말이 갑자기 생각나는구나!"
"공자야, 그럼 한 가지만 묻겠다. 어느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 군수를 모두 싫다고 말하면 좋겠는가?"
"그야 물론 나쁘지요."
"그럼 마을 사람들이 모두 군수를 좋다고 하면 어떤가?"
"그것도 안 좋지요."
"그럼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안 좋다면 무엇이 좋으냐?"
"마을 사람 중에 악인은 군수를 나쁘다고 말하고 선인은 좋다고 말해야 그게 제대로 된 군수입니다."
"그럼, 만장일치는 최선이 아니라는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 지도자는 무리 속에 있는 선인과 악인의 품은 뜻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행함이 엄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싫다고 하는 그 나쁜 군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버지, 한번은 제가 길을 걷다가 길 한복판에서 한 무더기 똥을 발견했지요. 조금 더 가니 이번에는 길가에 어떤 놈이 똥을 쌌더라고요. 저는 길가에 싼 놈이 너무 괘씸해서 나도 모르게 "고얀 놈!"하고 중얼거렸더니 같이 가던 제 제자가 한복판에 싼 놈에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니 웬일이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길가에 싼 놈은 조금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기에 그래도 개과천선의 여지가 있지만, 가망이 없는 놈에게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하고 말했지요. 저

는 그런 나쁜 군수는 아예 제쳐 놓습니다.”
“정치란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쁨도 좋지만, 인간관계, 즉 마음을 사로잡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다음은 노자 이리 오너라, 너는 내가 볼 때마다 항상 놀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냐?”
“아버지, 잘 보셨습니다. 저는 무위(함이 없음)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무위도식입니다. 저를 내버려 두세요. 바람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그렇게 바람처럼 물처럼 살렵니다. 물은 도에 가깝습니다. 부드러움으로 단단한 것을 이깁니다. 가장 훌륭한 것은 물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상선약수(上善若水)’는 도덕경의 핵심입니다.”
“백수가 말은 잘 하네, 넌 그럼 빈둥빈둥 놀고먹는 백수가 좋다는 말이냐?”
“그런 말씀이 아니고 호불호를 떠나서 백수도 무위라는 거죠.”
“그럼, 네가 말하는 무위란 도대체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무위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지시된 타율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을 통해 어떤 일이 행해질 때 무리 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동의 결여(Non-action)가 아니고 자연과 자율에 의해서 움직이면 세상에서 다스리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위로 얻음이 무엇이더냐?”
“쉽게 말씀드리면 주체인 사람이 객체인 자연을 맘대로 요리한 결과 공해도 생기고 생태계의 파괴와 자연의 이변도 심하게 일어나는 오늘의 현실을 보십시오. 그러니 사람과 자연이 똑같이 주체가 되어 서로 조화를 이루자는 동양 사상입니다.”
“놀아도 입에 풀칠이 되느냐? 너는 함이 없어도 철학이고 사상이라니 도대체 영문을 알 수 없구나!”

“넷째 맹자야, 넌 맹한 게 좋으냐, 맹렬한 게 좋으냐?”
“전 맹렬한 것이 아주 싫습니다.”
“너의 어머니가 세 번을 이사하면서까지 너를 맹렬하게 교육시키더니 네가 어떻게 맹해졌나 보구나. 왜 맹렬한 게 싫으냐?”
“강즉절입니다. 강하면 부러진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성인은 너무 심한 것, 너무 사치한 것, 그리고 너무 지나친 것은 물리칩니다. 맹렬한 사람을 보세요, 심하게 말하면 날뛰는 거지요. 어찌 보면 속 빈 강정 같기도 하고 빈 수레가 요란한 것 같기도 하고 남의 의견을 묵살하듯 제 잘난 맛에 살지요? 덕이 부족해서 그래요. 인의 예지를 모르지요.
도나 덕은 순진하고 정직해서 바보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덕불고필유린’이라고 둘째 공자 형이 말했듯이 덕은 외롭지 않아요.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아니하듯 똑똑한 사람보다 저처럼 맹한 사람 주변에 친구가 많지요.”
“그렇지, 넌 둘째 형 공자의 그림자를 밟으며 친구들과 깡충깡충 뛰며 좋아했지! 그런데 그림자는 빛에 따라 항상 변하지 않더냐? ”

“다음은 막내로구나, 막내야, 난 네가 착해 빠져 세상을 어떻게 살까 걱정이 태산이고 내 가슴이

두근두근 네 근이다. 너만 보면 왜 눈물이 자꾸 나는지 모르겠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제가 '예'를 갖추고 순수한 것 같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사실 저는 악한 면이 많아요. 내가 순하게 보여서 그런지 사기꾼이 내 주변에 많이 얼쩡거려요, 그러다 보니 사기꾼이 먼저 밥도 사고 돈을 뿌리면서 부자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미끼란 거죠. 저는 넘어 갈듯 말듯 절대로 사기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순한 사람이 오히려 사기꾼을 이깁니다. 보세요, 맹자 형님이 성선설을 주장할 때 저는 성악설을 내세웠지요. 착하디 착한 제가 왜 인간의 본성을 악한 것이라고 했겠어요? 사람들을 잔뜩 약 올리고 화나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악한 본성을 예(禮)를 통해 변화시켜 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하고 있지요.

두 사람이 원수처럼 싸울 때 중간에 끼인 착하고 예의 바른 저에게 양편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인정받기 위해 서로 통사정하고 정보를 다 줍니다. 그러니 예를 내세우는 저는 언제나 안전하니 걱정 놓으시라고요. 보세요, 알고 보면 인간은 처음부터 죄인이기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검게 태어났다니 어느 세월에 먹지가 백지가 되겠느냐?"

아들의 말을 다 듣고 난 후에 아버지는 긴 노끈을 하나씩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그 중간을 끊어 보라고 했다.

"끊어지는데요."

모두 합창을 했다.

너희의 이론은 하나같이 그럴듯하나 잘 끊어지는 끈처럼 쓸모가 없다.

"자, 이제 너희들 오른손에 끊어진 다섯 개의 끈을 이렇게 모았다. 그럼 이 끈의 중간을 끊어 봐라."

"도저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은 홀로 똑똑이다. 다섯 손가락이 모두 자기만 잘났다고 소리를 치고 있었다.

자기 이론만 내세우는 고집이 있었단 말이다. 무어든 인간에게는 100%는 없다. 이제 서로 인정해 주고 합심하면 아무도 너희들을 범할 순 없단다.

정글의 법칙을 아느냐?

똑똑히 보아라, 지금은 약육강식의 세상이란다.

사자에게 도망치는 다섯 마리 코뿔소는 언젠가 결국 모두 사자의 밥이 되고 만다. 그러나 다섯 마리 코뿔소가 한꺼번에 사자에게 덤비면 사자가 도망을 치는 법이다. 자, 너희는 각자 똑똑하고 잘 났다. 하지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제아무리 좋은 이론이나 생각도 서로 수용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게 하나씩 죽어가고 있단다. 무슨 뜻인지 모두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오 형제는 그제야 모두 싸우지 않고 손을 잡았다.

이것이 라구나우즈의 "High Five Club" 탄생이다.

자! 오늘도 우리 다 같이 손을 높이 들어 "High Five!".

LWV 나눔의 공동체



이 종 민
목사

일찍이 시카고대학 사회학 교수 Winter Gibson 박사는 현대 20-21세기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는 익명성이라고 염려하였습니다. Urbanization, 즉 도시화 과정, 특히 자본주의와 유물사관에 물들어가는 현대병은 Anonymity, 익명성이라는 것입니다. 한 동네, 한 아파트에서 살면서도 이웃, Next Door에 누가 살고 있는지 서로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아무 관심도 없이 자기 위주로만 살고 있는 개인주의, 자기중심적인 삶(Self centered life)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 전에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에 집전한 한 백인의 장례식에 대한 슬픈 사연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한 집사와 동년배로 같은 직장에서 사귀어 형제처럼 지내던 50대 후반의 백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시간 호반 옆에 위치한 Grace Apart에 살고 있었는데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의 아파트에 찾아가서 벨을 눌러도 아무 기척이 없고 이상한 냄새만 문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집사가 911 신고를 하여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가 침대에 시체로 부패하여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가 나에게 장례식을 집전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장례식을 거행한 아픈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의 옆에 사는 사람들도 서로 모르고 무관심 속에 살고 있다가 이웃에서 죽어 그 시체가 썩어 냄새가 풍겨도 오불관언(吾不關焉),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익명성 시대는 Winter Gibson 박사가 지적한 대로 병든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21세기,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이렇게 타락하여 가고 있는지 가슴이 아파옵니다.

결국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우리는 은퇴하여 지상낙원이 라구나우즈에서 매일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오불관언이다라 한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흐름에 다 같이 떠



내려가고 말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지나갔지만 지금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 교수, 선생, 병원 의사, 간호사, 의료인들, 농장, 산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현대인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어 모으고 투자, 저축하여 여생을 행복하게 살려는 목표로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나오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Best friend 둘이 등산을 갔습니다.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손을 잡고 산을 오르는데 갑자기 어느 중년 할아버지가 헐떡이며 뛰어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웬일이세요?"
"저기 금덩이가 있어, 큰 금덩이가…"
"할아버지! 그런데 왜 그렇게 놀라 도망가세요?"
"아니야, 그놈(금덩이)은 사람을 죽이는 놈이야!"
"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금덩이 있는 곳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산꼭대기 오른쪽 바위 밑에 그놈이 있어."
이 두 친구는 한걸음에 달려가 보니 과연 황금덩이가 빤짝빤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제안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밝아 좀 어둡기를 기다리세, 내가 저 밑에 마을에 가서 먹을 음식을 사가지고 오겠네."
그리고 그는 뛰어 산 아래 동네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 금덩이를 다 내가 가지자. 그러면 내 평생 잘살게 될 것이니…"
그리고 음식을 사가지고 그 음식 속에 독약을 사 넣었습니다. 그 친구가 먹고 죽으면 금덩이는 다 내가 차지하리라.
그런데 산속에 남아있던 친구도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 금덩이를 내가 혼자 차지하여야지! 그러면 내 팔자를 고치리라…"
그리고는 큰 나무 몽둥이를 만들었습니다.

"이놈, 올라오기만 해라! 한 방에 때려죽이고 이 황금덩이를 내가 다 차지하리라."
그래서 산 아래 동네로 음식을 사러 간 친구가 올라오는 기척이 나자 산속에 숨어 있던 이 친구는 몽둥이로 친구를 때려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높이 들고 소리쳤습니다.
"이제 나는 황금덩이를 다 차지하여 최고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배가 고파서 그 친구가 사 온 음식을 순식간에 다 먹어 치웠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과연 처음 황금덩이를 발견한 할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그 놈(황금덩이)은 사람을 죽이는 놈이야!"
서로 그 황금덩이를 나누어 가지면 둘이 다 부자가 되고 그들이 사는 가정과 마을, 국가가 빛나고 부자가 될 것을, '나 혼자 다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살아 보자.'는 욕심이 친구를 죽이고 저도 죽고 그들이 죽은 가정, 부모, 처자식, 형제들과 이웃들, 모두를 슬픔에 잠기게 하고만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교훈하십니다.

우리의 낙원, 라구나우즈에 사시면서 참으로 귀하고 뜻깊은 글과 교훈, 칼럼을 보내주시는 의사, 김홍식 박사님께서 금년 8월 13일(금) 한국일보에 기고하신 칼럼에 "행복감의 원천은 베푸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이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 복락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생각지 않고 모일 때마다 서로 가지고 와서 나눔으로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였습니다.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만, 저의 부모님께서 하루는 새벽예배를 교회에 가서 드리고 집에 오시는데 어느 부인이 우리 창고에서 쌀을 퍼서 이고 나가더랍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모른 채 나무 뒤에서 보니 남편은 몸이 불편하고 6남매 자녀를 둔 가난한 이웃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쌀 한 가마니를 가져다가 그 집 마당에 놓고 오셨다고 해요
그 뒤에 그 집이 모두 교회에 나와 예수 님을 믿고 딸 중의 하나가 모교회 사모가 되었다 합니다.
우리 주, 예수 님의 사랑의 나눔이 이룬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지상 낙원! 라구나우즈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진실하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형제애를 나누며 행복하게 천국에 빗대어 살아가십시다.

내가 Role model?



고 영 철
의사

내가 LWV Punta Alta 콘도에 입주한 지 14년이 되었고 Towers에 입주한 지 9년째 되었다. 지난 14년 동안 백 세 넘은 두 분의 할머니는 있었지만, 나는 한인 커뮤니티의 최고 연령자로 인정받아 왔다.

나는 지난 몇 년간 LWV 한인 커뮤니티의 Role Model이라는 말을 세 번 들어왔다. 그 뜻은 내가 사회봉사를 잘한다거나 인생을 멋있게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다만 백 세가 된다는데 그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어찌 보면 교만하다고 볼 수 있지만, 나는 롤 모델이 되어야 할 미션을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백 세 시대가 된 것을 실제로 보여주어야 자기도 백 세 수명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보통 사람인 고영철이 백세를 치렀으니 "나도 백 세까지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점이 내가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내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1. 나의 선친은 술을 좋아하시던 시골 동장이시었지만, 모친은 장로, 권사의 딸로서 어린 나를 교회에 출석하게 해 어릴 때부터 금주, 금연 실행자가 되도록 키웠다.
2. 요새 거의 매일 나오는 장수 건강 요건에 걷기 운동이 빠지는 법은 없는데 나는 나이 70대부터 이것을 매일 실천해 왔다. 요새는 다리와 둔부의 근육 위축으로 20분 걸으면 쉬어야 한다.
3. 나는 태평양 전쟁 중 3년 동안 일본에 유학해 전시(戰時) 배급양식으로 성장하고 해방 후에는 소위 38 따라지 생활로 소육다채(少肉多菜) 식사를 했기에 콜레스테롤 높을 때 생기는 심장병, 혈관병에 걸리는 기회가 낮았다.
4. 38 따라지인 나는 젊었을 때 생활 환경이 불리해 항상 움직이어야만 하였는데 '항상 움직이기'가 장수 건강의 한 조건이란다.
5. 사회생활 참여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6·25 참전자 모임, 동내 한인 친구 조찬모임 등에 빠지는 법이 없다.
6. 자주 출간하는 장수 건강에 관한 많은 책에 조건이 있는데 그조건을 나에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LWV 골프 Rule



바니 윤
부동산

1. 5명 치는 경우

예약한 인원보다 많이 나올 경우:
2명 혹은 3명을 예약했으나 3~4명이 나와서 같이 치시기를 원하시는데... 다행히 나머지 2자리나 3자리에 아무도 없을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싱글로 혹은 2분이 이미 다른 사람들이 예약을 해서 4썸이 꽉 차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5명까지는 나갈 수는 있지만, 모든 5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나오시기 전 프로샵에 확인 후 나오시길 바랍니다.
코스가 밀릴 경우는 가끔 5명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아침 이른시간에 FOG 로 인해 DELAY 되기도 하고 또 서로 반가운 나머지 이야기 하시다가 혹은 공을 너무 오랜 시간 찾으시느라 너무 앞 팀들이 밀려서 지연되면 스타터가 코스가 밀리지 않을 때까지 4명만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서로가 도와서 5명이 칠 때는 퍼팅할 때 이미 마치신 분들은 다음 홀로 가셔서 뒤 팀을 배려하고 공은 3분 이상 찾지 마시고 빨리 진행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품위 유지

라구나우즈에 사시며 골프와 여러 취미 활동을 하시며 주위의 지인들과 즐거운 생활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며 배우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80이 되신 선생님의 험한 욕지거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 Shocking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치매 현상이 여러 타입으로 든다던데... 아마 그분은 치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5명이 안 될 땐 이유가 있고 이해바랍니다.

골프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다 같이 즐기는 Social 운동이라서 앞 팀이나 뒤 팀 거리를 유지하고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한국 사람 골퍼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3. 골프장은 우리의 놀이터입니다

아끼고 잘 보전해서 오래오래 노셔야 하는데 서로가 협조하여 잘 관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4. No show

티타임을 지키지 못하실 땐 반드시 온라인으로 혹은 전화로 본인 것을 반드시 캔슬하시길 바랍니다. 3번 이상 No Show가 되면 자동으로 앞으로 티타임을 잡을 수 없게 됩니다.

두 군데에 티 타임을 잡고는 한 군데를 잊고 안 나오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My reservation을 보면 본인의 티타임이 쭉 나오니까 자주 들어가서 체크바랍니다.

티타임은 한 명이 4명을 다 잡을수 있지만 캔슬은 거기 들어가 있는 개개인이 캔슬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티타임은 본인이 책임지고 나오셔서 골프를 치시던지 아니면 캔슬을 하시던지 전적으로 개개인이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티타임은 본인이 책임지고 나오셔서 골프를 치시던지 아니면 캔슬을 하시던지 전적으로 개개인이 하셔야 합니다.



병상 일기



장 금 주
교사

가장 소중한 것은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마음들로 내 마음에 남아 있는 추억들입니다. 살아 숨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고마운 분들이 이곳에 많이 계시기에 오늘도 감사하고 행복하지요. 그들과 더불어 세월에 맞서지 않고, 오래도록 눈부시게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가려 했는데….

코비19로 모두가 가두어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과 시련이 시작됩니다. 고난과 시련은 육체를 힘들게 하겠지만, 내면을 더욱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에게 다가올 어려움은 앞으로의 인생을 윤기 있고 생동감 있게 만들 것이다. 두려워 말자. 금주야!!!

이십년 이월 십삼일
첫번째 Chemo therpay 3일째 되는 날, 갑자기 먹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한다. 잘 먹어야 치료를 끝까지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루종일 물만 먹어도 자꾸 토해내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움이 온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큼만 주신다 했는데… 더 고통스러운 건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일이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인데… 앞으로 6개월을 어떻게 견뎌 내야 할 것인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
"O LORD do not forsake me, O God be not far from me, Make haste to help me."

삼월 육일 "맑은 하늘이 마음을 열어주다"
나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음식들을 해 오시고, 흑마늘을 만들어 주시고, 너무 많은 분들을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고마운 마음들을 어찌 다 잊을 수 있을까요. 내 기억 속에 차곡차곡 담아 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해 본다.
내가 뭐라고 이토록 사랑을 받는 걸까? 어서 어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일어나 그분들에게 보답하는 일이기에 오늘도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잠시나마 고통을 이겨내며 "제가 남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극히 조그만 것이라도 다 기억나게 하시고 제가 남에게 베푼 은혜는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다 잊어버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 본다.
꿈으로 보여주신 까만 숯덩이 2개, 간증하리라. 전파하리라.

삼월 이십삼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고난을 난 지금 누군가에

게 나의 고난을 떠밀고 있지는 않는지 잠시 나를 돌아보며 반성해 본다.
“사랑한다. 내 딸아 그런데 넌 환자가 아니란다. 네가 겪는 고난은 잠시 지나갈 뿐인데 그것도 참지 못 하겠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평안함을 주시다. 내게 주신 임무가 무엇인지 오늘도 부르짖어 주님께 간구해 본다.

날씨 탓일까? 잔뜩 찌푸린 하늘과 음산한 날씨, 이불속을 벗어나야 하는데 움추리고만 있다. 지금 머리 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글로 남겨야 하는데 책상에 앉을 수도 없고 가시에 찔리듯 아픔으로 펜을 잡을 수도 없는 이 안타까움, 잠시 후면 내 머리속에서 모두 지워지고 사라져 갈지도 모르는데….

이불을 박차고 Creek을 걷기 위해 집을 나서다. 하늘은 잿빛으로 잔뜩 움추리고 얼마 걷지 못해 숨이 차고 바람은 거침없이 온몸 안으로 파고 들어온다. 옷깃을 여밀어 보지만 막무가내 밀치고 들어와 얼마 걷지도 못하고 힘겹게 집으로 돌아오다.

사월 사일 “꽃들과 대화하며”
바람도 햇볕도 따사롭게 골고루 내 몸을 만져주고 고루고루 햇살 머금으며 웃음꽃 활짝 피어 주는 채송화(Rose moss),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고 청순하고 가련하다는 꽃말을 가진 채송화는 낮아서 더 겸손하단다.
해가 들어가면 움추리는 모습이 어쩌면 나랑 똑 같은 처지인지… 내 몸 속의 유익균 녀석 추우면 싫다고 서슴없이 투정부리며 나타낸다.
“해야 해야 매일매일 나와서 오늘처럼 나랑 놀아 주렴” 투정부려 본다.

사월 육일
솜털처럼 부드러운 인디언 핑크 채송화가 쏟아지는 빗줄기에 더는 버티지 못하고 쓰러져 누워 있다.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본다. 빗줄기는 바람과 함께 더 세차게 내려친다. 어서어서 해님이 나타나 일으켜 줘야 하는데….
날짜도 모르고 요일도 모른 체 그냥 하루하루 보낸다. 입맛 없어도 억지로 넘겨야 하고 면역력 키우려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며 많은 선배, 후배, 친구들이 해 온 음식들은 남편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워 freezer 도움을 청해본다.

사월 이십오일 “하나님의 온유하심”
찬양과 율동으로 메시꺼움을 이겨내다.
잔잔한 풍파 마저도 거두어 주시는 주님, 나를 사랑해준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나를 괴롭히고 공격해 온 자들도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를 더 너그럽게 만드시어 모두를 사랑할 수 있도록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볼 수 있는 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 감사합니다.
소꼬리 고아 담은 커다란 곰솥 들고 찾아온 친구 부부, 몸이 불편하신 이웃 분들과 나누어 먹으면 좋겠는데 펜대믹이라 어찌해야 할지….
어제도 덥지만 오늘은 한여름 같은 폭염 속에

서도 주님은 내게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에 죽음은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 혼자 두고 떠난다는 미안함과 아쉬움이 조금은 나를 슬프게 한다. 언젠가는 모두가 갈 텐데….

오월 삼일

세월아 달려 가거라. 내 몸속의 암덩이 모두 다 데리고 날아 가거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You raise me up~~" 힘들고 지칠 때마다 힘이 되어주는 내가 즐겨 부르던 찬양 속에서 힘이 난다. 주님은 날 일으켜 세워 주심을 믿고 간절히 부르다. 보면 어느새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난 알아요. 지금 당장 육신이 괴롭고 힘들어도 주님 날 이끄시고 일으켜 세워 주심에 감사감사하며 나를 더 낮아지게, 나를 더 겸손하게,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주님!!

칠월 이십칠일

11번째 치료를 받기 위해 서둘러 병원에 가는 중 전화벨 울리다. 백혈구 낮아서 치료받을 수 없단다. 그동안 2주에 한번씩 치료 잘 받았는데…. 이제 두 번 남았는데 중단하면 어찌한담… 그렇다. 지금 이렇게 먹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데 쉬었다가 에너지 충전하고 치료하라는 하나님 뜻일 거야.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로 하다. 지금까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10일 후 피검사를 하고 닥터를 만나러 갔더니 축하한단다. 이젠 치료받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을….

고난은 축복의 통로이다.

그땐 왜 몰랐을까. 그들이 고통 속에서 힘들고 외롭게 투병 생활을 할 때 서너 번 찾아가 위로금 몇 푼 주고 내 몫을 다한 것처럼…. 내가 겪고 나서야 깨닫게 되어 아픔으로 고통받고 외로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겠노라고….

책을 한 권 다 써도 모자라는 제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두어 페이지에 감사함을 어찌 다 표현해 낼 수 있을까요?

이월 이십육일 21년 "Creek에서 생일 축하"

오늘 생일 축하는 치료를 다 마치고 회복 중이기에 함께 마스크를 쓰고 즐겁게 축하 케익을 자르고 노래를 부르고 잊을 수 없는 생일 party였습니다. 그리고 CT 결과가 나올 때마다 꽃을 들고 달려와 축하해주시는 따뜻한 분들,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보살핌이 계셨기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





웰컴 투 라인 덴스 클라스
Welcome to line dance class



최 순 옥
라인댄스 지도



제가 라인덴스를 시작한 것은 라구나우즈에 정착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춤을 좋아해서 고전 무용, 발레, 에어로빅 강사를 하며 제 자신도 즐기면서 모든 사람에게 건강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사명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라인덴스는 가벼우면서 쉽게 배울 수 있고 하면 할수록 즐겁고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인덴스는 전신 율동적인 스포츠로서 신체적 발란스를 잡아주고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이고 스트레스 해소와 리듬 감각의 기억 등으로 치매 예방과 혈액순환으로 더 이상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며 정신 및 신경계통에도 이롭다고 알려져 세계적으로 인기 높은 운동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힘들게 시작할 일이 뭐 있겠어 하고 걱정하시면서 쉽게 발을 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자신이 없어지고 시작이 두렵고 잘 하든 것도 줄어들고 소외감과 자신감과 용기를 잃어갑니다. 예를 드면 골프만 해도 저도 예전에는 싱글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왜 이렇게도 못 칠 수가 있을까, 거리도 안 나고 정확성도 떨어지고 해서 한 동안 좌절감을 느끼면서 지내다가 지금은 나이에 순종하기로 했지요.
왜냐하면 노력한다고 되는 나이는 이미 지났지요. 그러나 춤은 날이 갈수록 늘지요. 그리고 날이 갈 수록 다리에도 근육이 오르고 튼튼해 지면서 신체적으로 순발력도 생깁니다. 우리 멤버들 중 보통 70대, 80대 분들을 누가 믿겠습니까. 모두 50대 같습니다.
춤은 리듬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을 바꿔 드립니다. 또한 우리 부부간의 금실에도 일등 공신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시작해 보세요.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이 최순옥이 이곳에서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을 책임 지겠습니다.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특별 지도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클럽 하우스 #5에서 9시에서 10시까지 특별지도합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 바랍니다.
시간은 9시에서 12시까지 3시간씩 매주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AMAZON 강의 고기잡이 추억



박 제 송
의사



Club House

2006년 12월 아마존강 중간 거리에 위치한 국제 공항 Manaus에 도착했다. 북쪽에서 합류하는 Negro 강 쪽으로부터 약 50마일 상류에 있는 낚시 장소로 찾아갔다.

어느 Taxes 사업가가 정글을 개발하여 약 30-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Club House와 수영장, 오락장, 야외극장 등 어마어마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이다. 낚시 일정은 4-5일간으로 주로 잡히는 어종은 Piranha와 Peacock Bass이다.

우리 클럽 회원은 일정에 따라 15대의 모터 보트에 각각 2명씩 나누어 타고 한 명의 안내원의 서비스를 받으며 서로 다른 장소에서 낚시를 했다.

Piranha

Piranha는 무시무시한 짐승의 이빨을 가지고 있다. 소 한 마리를 물속으로 던지면 떼를 지어 달려들어 약 15-30분 만에 앙상한 뼈만 남는다고 한다.

낚시해서 잡은 물고기는 모두 사진만 찍고 물속으로 다시 돌려보낸다. 3일째 되는 날은 우리가 잡은 고기를 요리해서 먹으며 환담을 하였다. Piranha의 고기 맛은 약간 달콤한데 그 특별한 맛은 감탄이 나올 정도다.







Peacock Bass

Peacock Bass는 여러 종류의 색상을 가진 물고기로 아름답다.

종류에 따라 색상의 변화가 마치 공작 같아서 그런 이름이 생긴 것 같다.





아마존의 괴물(The Monster of Amazon) 물고기들은 자이언트 가오리, 뱀파이어피쉬, 흡혈 메기, 피라루쿠 등이 있다.



Amazon에 서식하는 Pirarucu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물고기 중의 하나로 큰 것은 약 5m나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
낚시의 묘미와 짜릿한 감촉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무엇이 있는 듯하다.

현대 문화인의 병에 대하여



이 강 민
의사

라구나 한인회 문예협회로부터 한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올려 달라고 부탁 받았는데 문예인도 아니고 의사로서 생각할 때 현대인의 문화인 병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 세기에 가공된 음식 문화의 발전과 생활 양식의 변화로 암, 신경성 및 정신 질환과 자가면역 질환(Autoimmune diseases)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소위 문화인 현대인 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세균, 바이러스, 이물질 등 외부 침입자로부터 내 몸을 지켜주어야 할 면역세포가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병입니다. 자가면역은 인체의 모든 장기와 조직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적군들과 싸울 때 아군을 적군으로 알고 발사하는 것과 같은 현상 입니다. 내몸이 나를 배신 하는 하나의 면역의 반란입니다. 그 원인이 많은 것과 같이 병의 종류도 많습니다.

우선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 유전적 요인은 10% 이하 이고 주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물질(세균, 바이러스, 환경오염, 부적절한 인스턴트 가공식품, 첨가제 조미료, 색소 , 향료, 농약, 살충제, 방부제, 화학 물질, 중금속 그리고 약물질 등)이 피부, 호흡기와 소화기관을 통해 들어와 우리의 면역를 혼란시켜 자기 자신의 세포를 손상 시켜 병을 이르키게 됩니다. 특별히 음식을 잘못 먹을 때 장내에 미생물 균형이 깨져 영양분은 흡수 안되고 독소만 흡수되는 소위 영어로 Leaky Gut (장이 세다) 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미 기원 전 300년에 의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Hippocrates 가 말하기를 “모든 병은 장으로부터 시작한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한 병은 의사도 약도 못 고친다” 했습니다. 우리의 장은 영양흡수뿐만 아니라 해독하는 제2의 간이고 또 면역을 감당하는 제2의 면역 기관입니다.

21세기에 들면서 흙이 오염되어 흙에서 나온 채소도 잘 선택해서 먹어야 됩니다.

장에 유익한 세균(probiotics)를 위해 섬유질 채소(prebiotics)를 장려하고 있어 채소, 과일,



토마토, 오이, 가지, multi-grain 빵, 현미, 잡곡 등을 섭취하는데 그속에 우리 장에 해로운 Gluten과 Lectins가 들어 있어 끓여 먹든지 압력솥(pressure cooker)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의 중요한 것 열 가지만 말씀드리면 갑상선 질환으로 홀몬 저하시키는 Hashimoto's 병과 홀몬 증가시키는 Grave's Disease, 관절염 (Rheumatoid Arthritis), 근육 병(Myasthenia's Gravis, Dermatomyositis, Fibromyalgia), Lupus erythematosus(관절, 신경, 혈관, 신장 에 병), 소화 기관(Inflammatory Bowel Diseases, Crohn's disease and Ulcerative colitis, Sprue, Acid-reflux), 신경 질환(Multiple sclerosis, Guillain Barre syndrome), 피부병 (Psoriasis, Alopecia, Vitiligo), 간염(Autoimmune hepatitis), 점막건조증(Sjogren syndrome), 그리고 Diabetes Type 1 당뇨 등입니다.

사실은 늙어 가면서 생기는 치매도 하나의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은 그 원인과 증세가 다양함으로 확실한 진단을 내리는데 대개 의사 세 명을 거쳐 3개월 반이 걸린다고 합니다. 사실 애매한 증상으로 진단과 약물치료가 잘 안 될 때 자가면역 질환을 생각해 보는 것도 현명합니다.

너무 전문적인 병명을 영어로 나열해서 죄송합니다만 영어권에 사는 우리들의 불가피한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5부 인연과 추억의 파노라마

운수 좋은 날 | 정찬열
복음의 은인 후손
Jean Underwood를 생각하며 | 김석자
인생 외길을 걸으며 | 편집자
큐바를 여행지로 택한 것은? | 양정애
잔인한 2020년을 훌훌이 보내며 | 주 강
2T2H | 김성웅
Renecscene | 민공기

LWV Sewing







정 찬 열
시인 · 수필가

운수 좋은 날



오랜만에
술 한 잔 거나하게 걸치고
자정 조금 넘어
집에 들어서는데

오늘 무슨 날인지 아느냐고
아내가 심상찮은 얼굴로 묻는다

? ·····, !

오늘 같은 날까지 청승맞게
식은 밥 한 덩이 혼자 먹게 하느냐고
아들 놈도 딸 년도 서방이란 작자까지
전화 한 통 주지 않더라는
한 바가지 섭섭함과 서너 방울 눈물이
양은냄비 속에 라면과 함께 자글자글 끓고 있다

생일 축하합니다
식탁 위에 엽서 한 장 놓여 있다
해마다 거르지 않고
자동차 세일즈맨이 보내온

복음의 은인 후손 Jean Underwood를 생각하며



김 석 자
간호사

불과 몇 십 년 전 우리 어렸을 적만해도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들 중 하나였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0위권까지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크게 도움을 준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과 또 내가 그 미국에 와서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 잊지 않기에 항상 미국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물질적 번영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나에게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참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복음을 접하게 해 주어



영원한 생명까지를 얻도록 해준 것이 절대적으로 미국의 영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굶주렸던 시절 구호물자라는 이름으로 주로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보내 준 것들 얻어먹기 위해 교회라는 곳을 찾은 것이 계기가 되어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종국에는 미국에까지 와서 참 복음을 접하며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까지를 얻게 된 것입니다.

나 개인에게 뿐 아니라 우리 민족적으로도 불과 135년 전까지만 해도 현대 과학도 의학도 교육도 없고 양반 상놈 계급차별과 남녀 차별의 원시적 생활을 5,000년간 해 오던 우리땅에 빛을 가져다 준 고마운 나라 고마운 사람들이 미국이요 미국인 들입니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고 원하지 않는 미개한 땅에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 걸고 찾아와 학교 병원을 지어 현대 문명의 문을 열어준 것도 물론 고맙지만 그 무엇보다도 죄악과 죽음의 땅에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26세의 젊은 Underwood 와 27세 Appenzeller가 제물포 항에 첫 발을 디딤으로써 이 땅에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시작 된 것이었지요.

나는1973년 이민 온 후 미국 생활에서 가장 큰 장애는 역시 언어문제이기에 영어를 배우려고 도서관에 비치된 자원 봉사자 주소를 보고 찾아간 곳이 은퇴 선교사들이 거주하는 LA 근교 Claremont의 Pilgrim Place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만난 사람이 광주 제일교회를 같이 다녔던 Underwood 4세인 John의 wife인 Jean이었습니다.
John은 우리 한영 찬송가의 한국인 작사자의 가사를 영어로 번역한 분인데 지금은 작고하셨고 도미 직후인 1974년 우연히 우리가 다녔던 West Virginia Wheeling의 First Presbyterian church에서 만나기도 했었지요.

혼자 사는 Jean의 방에 들어서니 한국사람보다도 더 한국적으로 방 안이 온통 한국 전통의 고무신, 병풍, 한복, 갓, 담뱃대, 지게 등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 가까이 지내던 중 한국적인 것을 좋아하셨고 또 음악을 전공하여 viola를 하시는 분이기에 1998년 LA극장에서 musical '명성황후' 공연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시겠느냐고 했더니 기꺼이 응낙 하시기에 모시고 가서 관람했었습니다. 그런데 극 장면 중 명성황후가 외국선교사 부인들을 매주 왕궁에 초대하여 교제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고는 자기 시할머니라며 흥분하며 날듯이 기뻐했던 모습 지금도 생생합니다.
가끔씩 방문하여 교제하면서 우리마을 Laguna Woods Village에 연세대학 동문회가 있다고 했더니 '연세대'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몹시 흥분하는 모습이어서 그 얘기를 여기 와서 해주었더니 이곳 동문들이 방문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곳 모임있을 때 모시고 오기로 했었는데 Covid-19 pandemic에다가 건강 악화로 양로원에 입원하시게 되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1928년생 고령이시기에 이제는 외출도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Pandemic으로 인해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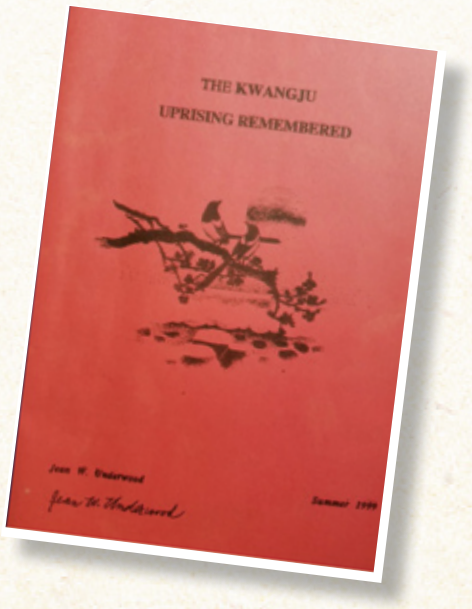
지막 방문이 거의2년 전이기에 현재의 상태는 모르겠습니다.

그의 시할아버지가 한국에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 오신 것이 135년 전인데 그 짧은 기간에 조국 대한민국이 그토록 발전했고 복음화 된 것이 그 분들로 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는 조국을 지켜준 미군에 대한 고마움은 그런대로 가지고 있는데 복





음을 전해준 초기의 그 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고마움은 잊고 있지 않은지 하는 것입니다.
별로 찾아오는 사람 없이 홀로 외로이 병상에서 말년을 보내시는 그를 볼 때면 이 지역에 한국 교회들이 1,500개나 있다고 하는데 고마움과 은혜를 잊는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아쉬움 있어 사진들과 함께 이 작은 기록이나마 남기고 싶은 것입니다. 1980년 5.18 광주사태 당시 현지에 있으면서 일기형식으로 타자로 찍어 기록해 둔 'The Kwangju Uprising Remembered'를 유품 형태로 저에게 넘겨 주신것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상징성을 갖기 위해 한국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방문하여 고마움을 정식으로 표하고 싶었는데 pandemic 상태로 막혔기에 풀리기를 기다려 더 늦어지기 전 그렇게 하려 합니다.



인생 외길을 걸으며



임 동 호
약사
〈글: 편집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말이다.
인생길은 파란만장하고 거기에는 우여곡절이 따르고 깊은 사연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임동호 선생님의 삶은 사뭇 다르다.
한국전 1.4 후퇴 이후 참전했다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지나 1954년 10월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으로 제대했다.
1959년 제13회 서울대학교 약대를 졸업하자마자 제약회사에 근무했다.
1971년에 도미, 지금까지 50년의 세월을 미국에서 보냈다.
금년(2021년) 10월이면 졸수(卒壽-90세)가 된다. 지난 미수(米壽-88세)는 팔팔하게 살았다. 이제 백수(白壽-99세)를 향해 꿋꿋하게 살리라.
90세의 나이로 매주 골프를 친다. 활기찬 모습이 말 그대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사람들은 건강의 비결을 묻는다. 답은 하나 정신력이다. 특별한 운동이 있다면 누구나 하는 걷기 운동 하나뿐이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한 가지 건강 습관이 있다.가슴을 가볍게 Tapping 하는 〈가슴 치기〉이다. 숨을 고르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심장을 자극하는 것이다.
의사는 환자가 숨이 넘어갈 때 심폐소생의 극단적 처방을 하지 않던가. 그러니까 평소에도 심장 운동을 조금씩 도와주는 일종의 심장 자극 운동인 셈이다. 신체 모든 부위에는 암이 발생하지만 심장암은 없다. 심장은 스스로 쉬지 않고 뛰기 운동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몸은 심장을 닮아야 한다. 항상 쉬지 않고 움직인단다.
그의 첫인상은 잔잔한 미소에 반달 같은 눈꼬리가 매우 정겹다. 말수가 적고 침착한 편이다. 호주머니에 넣어둔 조약돌처럼 중량감이 있고 넉넉해서 친구들이 좋아한다.

사람들은 그에게 3가지 고집불통이 있다고 말한다.
한결같은 직장 생활이다. 사업을 할 수도 있었는데 한국과 미국에서 약 45년간 약국에서 일하고 약사로 살아왔다.
또한, 사랑은 하나뿐이다. 2001년 아내를 천국에 보내고 20년간 독신으로 살아왔다. 그간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재혼을 요구했다. 그럴 때마다 그의 대답은 어제나 한결같았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 이것이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게 한 대답이었다.
그리고 평생 오직 일 생각뿐이었다.
나의 사전에는 은퇴란 없다. 은퇴란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생 끝 종이라는 생각을 했다.
Anaheim에 있는 RX Plus Pharmacy를 1990년 1월에 파트너와 함께 설립하여 Owner-ship을 가지고 책임 약사로 약 29년간 일하다가 유망한 여성 후배에게 물려 주고, 2018년 10월 26일, 88세 생일을 기하여 드디어 직장 생활을 그만두었다.



본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생각과 마음이 작고 미련했다”고 겸손한 자평을 했다.
알고 보면 인생은 마라톤이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
나는 그 길을 걷고 싶다.
길은 나를 기다린다.
나는 외로워서 길을 걷는다.
동행이 없어도 좋다.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을 때
길이 있다는 건 나에게 큰 축복이다.”
65세나 70세가 되면 하던 일 그만두고 쉬겠다는 말은 기능 작동을 중단시키는 폐업 선언이니 슬픈 현실이다. 뛸 수 있을 때까지 결승 골을 향해 뛰려는 의지를 스스로 없애는 일이다. 올림픽 트랙에서 선수가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 그래도 절룩거리면서 결승 골로 달린다. 관중석에서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끝까지 뛰려는 아들을 결승 골까지 부축해주었다. 그때 관중들이 환호하며 박수 갈채를 보내지 않았던가.

88세 생일날 직장을 그만두신단 말을 듣고 친구들이 은퇴 기념 축하라도 하자고 했지만, 극구 사양하고 곧바로 한국 방문을 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는 임씨 종가 100여 호가 살고 있고 5남매의 장남이라 가족과 친척들이 무척 보고 싶었던 모양이다.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다. 큰딸은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를 나와 유통업계 LA 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유능한 매니저로 활동하고 둘째 딸은 UCLA를 나와 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으며 아들도 며느리와 함께 UCLA를 나와 두 사람 모두 어카운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다복한 가정이다. 큰딸은 홀로 계신 아버님을 위로하며 매주 수요일마다 찾아와 집안일을 챙겨 준단다.

평소 생활신조는 지나친 것은 부족함과 같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불가근불가원’이라고 한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통일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누죽걸산(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이라던가. 아마 훗날 편히 쉬시라고 하면 천국에서 봉사하고 일할 수 없다면 천국 가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것 같다.

임 선배님,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큐바를 여행지로 택한 것은?

양 정 애
교사

4년전 2016년 12월 1일 나의 8순을 Cuba에서 우리 큰며느리와 딸과 함께 맞았다. 변호사인 둘째 며느리는 함께 가기로 준비했었다가 갑작스런 중대한 사건이 생겨 결국 함께 하지 못했다. 다들 바삐 살면서도 엄마의 8순을 축하해 주고 싶어 궁리 끝에 엄마가 한번 꼭 가 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여러 차례 물어 왔었으나 결정을 못하고 있었다가 평소 늘 언니가 살고 있는 이북을 꼭 한번 가 봤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이루지 못했다.
갑자기 아직 공산국으로 남아 있는 Cuba에라도 가서 공산체제에 대한 면모라도 보고 싶은 충동이 생겨 Cuba로 결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아 며느리와 딸이 같이 해주기로 하고 그곳으로 결정했다.

11월 28일 New Orleans를 떠나 Panama City 경유 Cuba에 도착했다. Hotel check-in 후 배정받은 방을 올라 가자 창문으로부터 펼쳐진 캐리비안의 그 아름다운 바다와 모래사장. 우리들은 일단 밖으로 나가 아이들처럼 모래 사장을 마구 뛰어다녔다. 오후에 현지 가이드 미팅 후 하바나투어, 말레콘해변, 카피톨리오, 혁명광장 등을 올드빈티지 차량으로 투어했다. 올드 빈티지 차량의 유래를 운전기사로부터 들었다. 1959년 Fidel Castro 등의 혁명으로 폴렌시오 바티스타를 몰아내고 그들 혁명군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Cuba의 독재정권 바티스타 때 누리던 계급들이 혁명이 나자 전부 도망을 가면서 버려진 차량들이라 했다. 우리 식구 셋만 태우고 이곳저곳 다니며 한눈에 다 들어오는 오픈 차량이라서 화창한 날씨와 함께 마음껏 즐겼다. 우리를 태운 택시는 1953형 컨버터블 링컨 콘티넨탈이었다. 엔진만 바꿔 오늘날까지 쓴다고 했는데 아주 멋진 차량이었다.

그날 일정은 무사히 마치고 7시에 하바나 현지 오랜 역사를 가진 Club Jardines de 1830에서 특별한 저녁식사를 했다. 혁명을 주도했던 젊은 카스트로와 체게바라가 1958년에 동지들과 함께 와서 아바네림(각종 해산물과 육류 모두를 잘 섞은 요리)을 나눠 먹었다고 하여 매우 유명한 이 식당은 이 두 사람이 식당으

로 걸어 들어오는 큰 사진을 걸어 놓은 곳으로 바닷가 멋진 경관을 배경으로 한 품격 있는 건물이었다. 젊은 카스트로가 혁명동지들과 혁명의 성공을 꿈꾸었던 바로 그 테이블에서 그가 죽은 지 사흘 후 우리일행이 식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라 참으로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마침 Cuba에서 살고 있으면서 미국과 스페인 등을 다니면서 비지네스를 하고 있는 Mr.최라는 한국 남자 한 분이 카스트로의 여러 아들 중 의사인 아들과 친한 사이로 이 Mr.최를 만나게 되어 여러모로 큰 도움을 받았다. 이 식당에 오게된 것도 그 분의 빽이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도착한 날이 카스트로의 장례 기간이라 그분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주 난감할 뻔했는데 좋은 빽이 있어 무난히 여행을 끝낼 수 있었다. 하지만 여행 내내 카바레 관람도 금지, 술 판매도 금지, 음악도 금지여서 아마도 Cuba 여행에서 모히또 한 잔도 못마시고 음악도 한 곡 듣지 못한 여행객은 우리처럼 카스트로 장례 기간에 간 여행객뿐일 듯하다. 사람들 모두가 조용하고 침울하며 불안한 분위기었고 TV 방송에서도 오로지 카스트로 장례 장면만 생중계했다. 그래서 다른 기간에 방문한 여행객들과는Cuba에 대한 느낌이 사뭇 다를 것이다.

다음날 29일 아침 식사를 마치고 헤밍웨이의 집과 유네스코 지정 자연 유산 비넬레스를 다녀왔다. 비넬레스 계곡을 내다 보면서 즐겼던 전원의 올가닉 식사도 잊을 수 없지만 투어중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헤밍웨이가 오래 살았던 집을 방문했던 일인 것 같다. 그가 쓰던 침실, 서재에 그대로 진열된 책들 정말 그들이 그곳에 아직도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즐겨 쓰던 수영장 그리고 크고 멋진 요트(yacht), 이런 모든 것이 생생하게 그들의 일상 생활이 보이는 듯 했다. 그 넓은 정원에는 멋진 나무들과 온갖 꽃으로 잘 가꾸어져 있었다. 그 엄청 난 명작들을 남기고도 불행한 여생을 마친 문학세계의 영웅 “Ernest Hemingway”.



비넬레스에서 돌아오는 길에 시가(cigar)플랜테이션 농장을 관람했다. 대단한 시가 생산지였다. 거기 주인인듯한 사람 말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어 수익을 내 봐야 우리에게는 25%, 75%는 정부에 바친다고 했다. 물론 이곳뿐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그러하다 한다. 여기서 처음으로 역시 공산체제로구나 실감했다. 예전에 담배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노예들이 있던 한농장을 방문한 곳에는 탈출하려는 노예를 감시하는 감시탑이 있었는데 3,4층 높이로 그리 높지는 않았으나 계단을 올라 꼭대기로 올라 가보니 정말 360도로 수십킬로의 광야가 한눈에 들어왔다. 어느 방향으로 도망을 가던지 반나절 안에 다시 잡히게 되어 있다는 말이 공감이 되며 노예들의 비참한 생을 생각하게 했다. 가이드의 말이 아프리카에서 아랍 상인들이 네델란드 배편으로 노예들을 잡아와 큐바 상인들에게 팔았다고 한다. 그리고는 프랑스 상인들이 그들을 사서 뉴올리언스로 데려가 사탕수수, 면화농장에다 팔았다고 했다. 내가 뉴올리언스에서 오래 살면서 노예들의 실상에 대한 인식이 많은 편이라 특히 기억에 남은 방문이었다.

30일 아침 식사 후 시엔푸에고스로 향하였다. 여기는 1819년 프랑스이민자에 의해 만들어진 항구 도시다. 쿠바 섬 남부에 위치한 곳으로 하바나에서 약 250km 떨어져 있다. 500년 건축 역사가 살아있는 히스토릭 건축지 프라도 거리를 마차를 타고 투어했다. 도시 중심에는 호세 마르티 공원이 있다. 호세 마르티는 큐바인들에게 체게바라와 같이 사랑받는 영웅으로 시인, 수필가, 교수, 혁명이론가로 라틴아메리카 문학사에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인물이라 한다. 해안 도로 따라 멋진 옛 부호들의 우아하고 기품 있는 별장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특히 Punta Gorda 지역의 palacio de Valle는 이태리 건축가가 스페인 무어 형식으로 지은 villa로 잘 보존되어 있는데 지금은 레스토랑으로 쓰인다고 한다. 많은 건축물들이 경제 형편상 보수를 하지 못한 상태로 허물어지고 있음이 안타깝다.

오후에는 트리니다드 시를 관광하였다. 큐바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의 하나인 트리니다드에서 시내관광, 마오르광장, 교회종탑 전망대, 도시 역사 박물관, 로망스 박물관을 방문하고 트리니다드 골목 인력거로 골목 골목 구경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답게 파스텔톤으로 비교적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지만 진흙길도 많고 돌길이 많았다. 현지인들의 생활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곳이었는데 공산주의 국가인 만큼 생필품은 모두 배급제라 그런 물건을 받을 수 있는 배급소 같은 곳이 눈에 띄었다. 가이드 말에 따르면 일반인들에게 소고기는 거의 배급되지 않고 혹시라도 외국인 대접용 소농장에서 키우는 소를 밀도축시에는 감옥행이라는 말에 부족한 경제사정을 짐작해볼 수 있었다.

다음날 우리는 큐바 대표적인 리조트 타운 바라데로로 향했다. 이곳은 마이애미를 연상시

켰는데 멋진 리조트들과 골프장이 많은 푸르고 맑은 해변이 있는 도시였다. Melia Varadero 리조트에는 대부분 외국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캐리비안의 햇살과 잔잔한 파도를 즐기고 있었다. 여기 디너에서 나의 사랑하는 며느리와 딸, 그리고 다른 일행들 (한국에서 오신, 미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멋진 팔순 파티를 가졌다. 모두 나를 축복과 격려, 진심어린 큰박수로...가이드들까지도 함께 꽃다발을 준비해 주었다. 가이드들은 하나같이 인물도 체격도 상당히 출중하고 상냥하고 참하다. 영어도 한국말도 능통하고 국비로 대학까지 나왔다고 했다. 알고보니 그들 대부분이 소련과의 혼혈이다. 나의 가족은 남편이 떠나셔서 이제 15명이다. 남은 식구만큼이나 대신 여러분들의 축복이 있었으니 참으로 고맙고 잊을 수 없는 일이다. 이 감동, 이 향기로움을 어떻게 그대로 간직할 것인가에 마음이 분주해진다. 행복이 늘 거기가 아닌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발을 헛디디게 되는 것은 어쩌면 내가 행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여러도시를 여행하는 동안 길에서 차를 얻어 타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정규편의 버스가 있긴하나 스케줄대로 잘 오지 않고 하루에 몇 번 오지 않으니 그냥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가 태워주기를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더운 시골길에 아이와 짐꾸러미를 가지고 바나나 덩어리를 손에 들고 흔들어 보이며 (차값 대신으로의 뜻 같았다) 차를 얻어 타려고 기약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역시 사회주의 면모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얼른 봐도 우리로서는 쉽지않은 나라의 구조이다. 큐바는 공산당이 지배계급인 사회 군국 공산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공산국이라면 북한을 떠오르게 하는데 분명 그곳과는 많이 다른것 같다. 사람들은 모두 많이 자유로워 보이고 뭔가에도 억제되어 보이지 않았다. 다만 대체적으로 가난한 곳이다. 사실 피델 카스트로는 공산주의와는 거리가 있었고 사회주의 정책을 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카스트로는 소련과 손을 잡으면서 완전히 미국과는 척을 지게 되었고 이후 독재자가 되었다. 만약 그가 미국과 손잡게 되었더라면 더 나은 쿠바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도 그는 북한정권과는 달리 2008년 혁명동지였던 동생 라울 카스트로에게 정권을 넘겨주었다. 그가 여러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말이다. 이것만 봐도 북한의 김일성 일가의 공산체제와는 너무나 다르다.

미리 예약된 스케줄은 아주 다양했지만 우리가 떠나기 바로 직전 카스트로의 사망으로 인한 변경과 제제, 여행사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우리 며느리, 딸, 그 경비도 경비지만 아직 고등학생인 아이들을 남편들에게 맡겨두고 엄마 위해 베푼 큰 배려였는데; 참으로 많이 안타깝고 미안했다. 그럼에도 공산국가를 잠깐이나마 경험해본 신선하고 멋진 여행이었다.



태공, 주 강

팬데믹(Pandemic) 일년 반 <2020-21>

잔인한 2020년을 훌훌이 보내며…
@The end of 2020

연초부터 들려오던 해괴한 소식에 그럴 수가 있나 했는데 결국 날이 갈수록 우리 일상에 그 실제적 영향이 깊숙히 스며들었고 이제는 익숙했던 세상사에 통상적 방식과 전통적 관습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습니다.

돌발되고 지속되는 현 상황에 우리 모두가 건강과 생존을 위한 안전에 최우선하여 개인,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뜻밖의 여러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모임과 활동에 있어서도 예측치 못했던 새로운 방향과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변화를 더 초래할지 모릅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 모두 서로를 이해하고 협조하며, 자타의 건강을 위해 최대의 아량과 양보, 사려 깊은 행동에 유의하고 언젠가는 건강하게 회복될 정상적인 사회를 기대하며 희망과 함께 복된 새해를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Hello to 남성 코러스 Group
〈8-30-2020〉

같이 모여 노래연습 한지도 벌써 7 개월이 되어 가는군요. 혹 앞으로도 1~2년은 더 걸려야 전과 같이 모여 노래를 하게 될 수 있을지… 점차 말할 기회도 적어져 목이 잠기고 소리도 제대로 나오질 않게 되는군요. 그러나 여러 야외/단체 활동은 못 하게 되었지만, 대신 조용하고 평안한 개인적 집안활동과 인터넷을 통한 여러 지식습득과 바깥소식을 듣고, 또 즐길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도 너무 많아 하루 하루를 즐기며 살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서로 기쁜 소식과 알림의 소통을 계속 유지해 주시길 바라며 안녕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역사적인 날의 에피소드: 고 양 oo님의 영전에
〈9-17-2020〉

3 년 반 전, 2017 년 3 월 10 일은 “합창연습”이 있던 목요일입니다. 이젠 고인이 되신 양 oo 님도 예나 다름없이 참석을 하셨고 저도 합창반에 열심히 참여 하던 때 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촛불시위로 시국이 어수선했고, 이곳도 불안한 한국 정세에 걱정이 심했습

니다. 그 당시 나는 원래 인디언 전통 음악이라는 “내 영혼 바람이 되어” (별칭, “천의 바람 - Thousand Winds”)라는 노래가 좋아 즐겨 배우며 불러보던 때였습니다. 마침 지도를 하는 Mrs.최에게 반주를 부탁하고 단상에 올라 그 곡을 한 번 부르고 내려오며 여러 사람들에게 그 곡이 “세월호 노래”로도 잘 알려져 있다는 것과 또 방금 뉴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탄핵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에 아마도 마음 조리며 소식을 기다렸던 양 oo 님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셨는지 단을 내려오는 나에게 “그런 노래 앞으로 부르지 마세요!” 라고 경고를 주셨습니다. (중략)

노래 연습이 끝난 후 양 oo 님이 급히 내게로 다가와 “아까는 미안했습니다”라고 하셨고, 저는 “네, 괜찮습니다.”라고 화답했다. 당시 국내 사태에 대해 걱정과 탄핵결정에 분노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해가 지난 한참 후, 님이 사시는 옆집에서 우연히 다시 뵈었고, 또 Gate #5 근방에서 산보 하실 때 길에서 만나 웃으며 인사를 하고는 헤어졌는데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을 몰랐습니다. 혹시 아직도 그 곡을 싫어하실런지, 다시 들려드릴 수도 없겠지만 가시는 영전에 그날을 추억하며 이제는 걱정, 근심, 노여움과 아픔이 없는 아늑하고 평안한 천국에서 이곳에 남아 있는 여러 친지들을 환한 웃음으로 내려다 보시길 기도 드립니다.

〈목요 노래반 학우 배상〉

人生教訓 - 101세, 아버님의 명복을 기원하며

〈2020-12-20 새벽〉

작곡: 은곡, 주명옥/ 1절: 송강, 정철의 시조 / 2~4절: 태공 추가

1. 어버이 살아신 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
   지나간 후면 애닯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2. 동기간 자라날 제 형제자매 우애하라. /
   나이들어 헤어지면 아쉬우리.
   서로 제갈 길에 자주 보기 어려 우노라.
3. 부부가 살아감에 유별하되 존중하라. /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리.
   풍파에 삶의 역경 함께 헤쳐 나아 가노라
4. 자식들 대대손손 가르침에 최선하라. /
   세세가문 굳센반석 될지러니.
   때 늦은 뉘우침은 부질없는 일 되노라

“테스형” Funny 패러디, “이제는 대통령 믿어도?”

〈1-20-2021〉

1. America’s Biden, 이젠 안심 좀 합시다 /
   오랫동안 모두들 살기에 힘들어도
   이제까지 참고서 견디기는 했네요 /
   더이상은 어려움 없도록 해 주시오 (중략)
2. 반세기전 이민 온 지상낙원이랬지 /
   이제는 엉망이된 나라로 전락되가나
   열심히 살려도 ㅍㄹㅇ들 많아서 /
   방향 잃은 한심한 나라가 되었는가 (중략)

3. America's ㅎㄹㅅ /
   미국이 정신 차립시다
   함께 살던 부모님 이땅에 잠드셨고 /
   앞으로 자식손주 이하늘아래 살아갈제
   (중략)
4. 〈대대 손손 잘 살아 보려고 왔었는데 〉
   아 ㅂㅇㄷ, 아 ㅎㄹㅅ 이제서야 안심할까 /
   당신네들 믿게하소

영화 - 화녀, Oscar 상, 그리고 "KoMeRiCa 어머니 상"

〈5-01-2021〉

"화녀" - 1970 년대 초, 윤여정의 데뷔작으로 당시 한국사회의 기본 윤리의 틀을 깊게 흔들어 놓았다. 내용은 충격적이었고 그 배우를 처음 알게 되었으며, 후에 가수 조영남과 이혼했다고 한다.

그후 50 년이 되는 지난주 Oscar 여우 조연상을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그녀의 소탈함과 진솔성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이면에 약간은 개차반(?)이었을 전 남편의 덕(?)에 미국과 한국에서 홀로 생활고를 겪으며 어렵게 두 아들을 키워야 했던 한 아낙의 생애에 깊은 연민을 느끼게 되었다.

수상의 기대도 하지 않았으며 오랫동안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배우생할을 해야만 했다는 그녀의 말에 그런대로 인간승리에 대한 축하 박수를 보낸다.

내 주위에도 비슷한 이유로 칭송을 받을만한 여인들이 꽤 있다. 한국에서는 교육이나 직업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무작정 이민을 와 능력없고 여러모로 부족한 남편들을 도와 함께 4-5 십년 동안 고된일을 계속하면서도 2-3 명의 자식들을 잘 키워 어느 주류사회에 내어 놓아도 자랑스럽고 훌륭하게 교육시킨 이곳의 어머니들이다.

이제 곧 어머니날을 맞아 우리 이민가정의 주춧돌 역할로 일생동안 고생만하며 결국은 가정을 일으켜 세운 훌륭한 그들 모두에게 Oscar 상에 못지 않은 "KoMeRiCa 어머니 상"을 제정해 받쳐야 하겠다.

나이는 숫자일 뿐?

〈6-12-2021〉

한국의 야당 대표로 36세의 국회, 국정및 직

장경험도 거의 없는 인물이 뽑혔고, 이는 유사 이래의 첫사례이고 새 세대로의 급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에 따른 결과라 한다. 이미 캐나다를 비롯 유럽의 여러나라에서도 3-40 대의 젊은 국가 원수나 지도자들이 속속 등장한다.

과연 우리 동네, LWV 는 어떤가? 이곳에서 5 ~ 10 년이면 많은 인구의 유입과 퇴출(?)로 어떤 모임이든 노령화에 따른 그 회원의 구성과 역할및 활동에 어쩔수 없이 많은 변화가 있기 마련이다.

그동안 이곳 분위기가 새로 들어오는 젊은(?) 회원들은 큰형뻘 또는 삼촌과 같은 연배의 선배님들과 호흡을 맞추기도 따라가기도 힘들어 눈치만 보다 단체활동에서 슬그머니 빠져 버리는 경우가 흔했던 것 같다. 특히 조금은 고루한 "장유유서"의 사상이 우리 단지가 세상 변화에 뒤지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함이 한낱 기우였으면.

혹, 모든 모임의 회장은 나이가 제일 적은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회칙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숫자에 불과한 나이를 인정하며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미처 따라가지도 못하고 힘들어 하는 우리 모두에게 신선함을 맛보게 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토요산행, 7월 10일부터 재개: 안녕하세요~

〈7-03-2021〉

이제 1 년 반만에 서로 만나볼 기회를 갖게 되니 마음 설레내요.

그동안 심각한 사정으로 방콕/은둔(?) 생활을 영위하고 혹 길 걷다 마주치면 서로 입 가리고 멀리 피해가던 요상한 사회풍습마저 요구되었던 잠간의 시절을 이제는 멀리 보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서로의 대면이 줄어드니 생각이 깊어지고, 또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이 전해지네요. - "오랫동안 뒷방 선반 위에서 언제 나를 불러주려나 눈빠지게 기다리다 못해 서러워하고 있을 베낭을 챙기어 먼지털고 광내어서 다음 산행준비 꼭 해 주세요~"

이제 짬을 내어 잠간이라도 얼굴을 볼 기회를 기대하며 여러분께 우선 글로 안부 전합니다. 모두들 "아직 살아 있네!" 라고.





김 성 웅
목사

1,600 여 평의 논을 매해 400여평씩 팔아 아들의 학비를 대던 아버지가 그 해 겨울 오랜 해수병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나신 지 벌써 3개월이 다 되어 간다.
집에 남은 것이야 산비탈 골짜기 곁에 천수답이 겨우 640 여평 남았다. 탄희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며 한숨만 나온다. 저것마저 없어지면 3식구는 길가로 나 앉아야만 한다.

고3 때 담임 선생이 탄희의 실력이 아깝다고 대학 진학을 끈질기게 밀던 일을 기억하며 아버지가 전답을 팔아 매해 등록금을 주셨는데 염치없는 일인줄 알면서도 탄희는 Y대 불문과에 입학하여 3학년까지는 그런대로 마쳤으나 남은 일년은 먼 산 봉우리 바라보는 것처럼, 까마득하다.

고민 끝에 군대부터 갔다와야 하겠다면서 해병대를 지원한 것이 그로부터 4개월 뒤었다.
붉은 명찰에 둥글면서 각이 진 모자와 얼룩무늬 군복이 갖는 매력은 탄희의 눈에 뿌듯한 느낌으로 보였다.
그러나 왠걸 혹독한 훈련과 군기는 혓바닥 빠지는 느낌이다. 훈련 때 땀 한 방울이 전쟁에서 피 한 방울과 바꾼다는 것을 각오하라. 아침 저녁으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온 소리이다.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되어 병영생활이 시작된지 얼마지 않아 월남 파병설이 나왔고 참전 용사들이 모아지자 부대는 곧 월남 전선 투입을 위한 유격 훈련에 들어 갔다.

청룡부대가 월남으로 출발하는 날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부산항에 나왔다.
아들의 마음을 잘 아는 어머니는 연신 눈물을 훔치시며 부모 잘못 만나 우리 새끼 고생한다고 마음 아파하신다. 뱃고동이 울린다. 갑판으로 올라가는 오빠에게 누이 동생 탄영은 아리랑 장고라 하면서 마스코트 하나를 준다. 양 끝을 잡고 돌리면 아리랑 1절이 흘러 나온다. 불과 손가락 길이만 하다.

배가 캄란만에 도착을 하자 서서이 엔진을 끄고 부두에 접안하여 얼룩무늬 사나이들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모두 더불백을 둘러 매고 상륙한 일행들은 대기한 자동차에 실려 부대로 배

치되었다.
하늘 높이 솟아 오른 야자수 나무와 곳곳이 숲에 덮힌 정글의 모습이 아열대 기후에 어우려 너무 아름답다.

탄희는 연대장의 연락병으로 배속을 받았다. 가슴에는 붉은 플라스틱 명찰에 Tan Hong 이라는 글씨가 선명하다. 야! 너 청룡병사라 그렇지 명찰만 보면 월남 사람 이름같다 하고 동료들이 웃었다. 하긴 홍탄희의 생긴 피부도 가무잡잡하다 하며 놀린다.

부대가 작전을 나가던 날 월맹 소령 하나를 포박해 왔다.
연대장 옆 부관이 취조하고 월남군 장교가 통역을 위해 배석했다. 그런데 영 입을 열지 않는다.
무언가 비중 있는 장교 같은데 답답한 월남 장교는 밖으로 나가고 없는데 포로는 뜬금없이 불란서어로 다이한(대한) 이것들 이제 막 와서 내일 밤 자정에 우리 공격에 넋이 나갈 걸, 하며 혼자 지껄인다.
포로가 입을 다무니 취조에 진전이 없다. 더 이상 효과가 없다 하며 연대장 마저 밖으로 나가는데 탄희는 “저 연대장님! 잠간만요 저 포로가 불란서어로 혼자 내일 밤 12시 공격한다고 지껄이는 소리 들었습니다.”
“응 뭐야? 홍 일병 그랬어?”
연대장은 경계령을 내리고 전원 완전 무장하고 쥐죽은 듯이 잠자는 것처럼 불을 끄고 위장한 채 대기에 들어갔다.

밤이 깊어 갈 무렵 숲속에서 고요히 흔들거리는 그림자 군단, 적 1개 중대를, 매설한 크래모어 지뢰와 수류탄으로 느닷없이 기습 공격하여 전멸시켰다.
사기 충전한 부대원들은 대통령의 특별 격려와 함께 전원 일계급 특진의 특명이 내려져 홍탄희는 상병으로, 연대장은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연대장은 늘 탄희에게 시간을 주어 불어를 공부하게 배려하였으며 불란서 신부가 인도하는 시내 천주교 미사에도 참석하게 하였다.

성당에 가 보니 이미 상당 수의 신자들이 머리에 미사포 흰수건을 쓰고 참석하고 있었다.
빈 자리를 찾다가 월남 아오자이를 입은 여성 곁에 앉게 되었다.
미사가 끝나고 나오는데 곁에 앉았던 월남 여성이 탄희의 명찰을 보더니 싱긋 웃는다. 어색스러운 모습으로 탄희도 같이 웃으며 왜 그러느냐는 표정을 보였다. 그랬더니 여인은 탄홍? 마이 내임 이스 탄홍 하고 웃는다.

키도 크고 늘씬한 몸매에 불란서어도 유창했다. 종종 미사에 나와서 한 두번 대화하다가 점점 친해지기 시작하였다. 탄희보다 2살 어린 탄홍은 21살의 나이로 월남의 한 지주의 딸이었다. 만남이 이어지자 이들은 점점 사랑으로 변해갔다.

미국의 압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월남은 부패와 정치 무능으로 점점 수렁으로 빠져 들어갔다.
불교 지도자 트리 쾅승은 고딘디엠 정권에 항

의하여 반부패 반독제를 외치며 온 몸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질러 스스로 화염으로 숨졌다. 그러나 본래 미혼자인 고딘디엠 대통령을 대신하여 계수되는 마담 고딘누가 영부인 역할을 하는데 트리광승의 이런 모습을 바베큐 쇼라고 혹평을 하여 세계인의 분노를 샀다.

걷잡을 수 없는 월남 정국은 쿠데타가 일어나 고딘디엠 대통령이 실각하고 두옹반민을 거쳐 구엔 반티우 대통령으로 정권이 옮겨갔다. 미국은 이 끝없는 전쟁 종식을 키신저 박사에 의해 주도하는 협상에 들어갔다. 하노이 정권과 전쟁 중지를 협의하며 사이공 당국에는 언제든지 도와줄 것처럼, 명예롭게 빼네는 미군 철수 작전이나 다름이 없는 협상을 하며 월남 민주정부가 위태로울 때에는 언제든지 도울 것이란 약속을 하고 미군들을 철수시키기 시작했다.

탄홍의 부모들은 지주인 자기들 목숨뿐만 아니라 월남 정권의 끝날이 다가옴을 느꼈다. 딸이라도 이 한국 청년이 데려가 목숨이라도 살렸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은 그 무렵 탄홍은 홍탄희의 어린 애를 가졌다. 벌써 몸의 변화가 눈에 띄게 보였다. 시간은 점점 흘러 해산기일이 다가온다.

만에 하나 전쟁 중에 서로 연락이 끊어지면 안 된다며 굳게 다짐한 홍탄희는 탄홍에게 주소를 한국어, 영어, 불어로 써 주고 잘 간수하라 일렀다. 먼 이역에 와서 한 여인의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된다니 너무 감격스럽다.

전쟁에 시달리는 이 소녀를 조국에 데리고 가 한 평생 지내리라 다짐하고 주월남 한국 대사관에 가서 결혼 수속을 알아 보리라고 계획하였다.

그런데 그날 밤 부대는 갑자기 철수 명령이 떨어졌다.
소위 월맹의 총공세 위협이 다가온 것이었다. 탄희는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 전화는 더더구나 어렵다. 꼼짝없이 배를 타고 철수했다
"아 아 탄홍, 아아 탄홍! 나는 어떻게 하나. 살아만 있어 다오. 탄홍" 하고 외치며 부산항에 내렸다. 탄희는 더 이상 학교 진학을 그만두고 외무부에 가서 날마다 탄홍을 데려 올 방법을 물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뿐이었다.

시내 불란서 신부가 집례하는 카톨릭 교회에 나가서 협조를 부탁하였으나 월맹의 총 공세로 월남이란 나라가 통째로 없어졌으니 어디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대답한다.
아~아아! 탄홍! 산비탈 소나무 잎새로 황금빛 햇살이 비치는 오월의 오후를 바라보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른다. 지금쯤 아이는? 아들 딸? "전능자여, 탄홍을 도와 주소서" 미친듯 뇌까리며 산 길을 걷는다.

한편 탄홍은 부대 앞에 서성이며 혹시 탄희를 만날 수 있을까 하고 기다렸으나 이미 떠나버린 뒤여서 적막감만 맴돈다. 절망감에 울던 탄홍은 배를 부여잡고 그대로 길가에 쓰러진다. 눈 떠보니 공산월맹 장교들이 보이고 분위기

가 심상치 않다. 탄홍의 몸은 이미 출산의 기미가 있어 낳고보니 사내아이였다. 아무리 탄홍의 소식을 알래야 알 재간이 없이 이렇게 출산이 다가온 것이다.
월맹 대위 견장을 붙인 장교의 취조가 시작되었다. 탄홍은 울면서 다이한의 작전지역에 잘못 들어갔다가 강간당하여 생긴 아이라고 둘러댔다.

월맹 장교는 의심스럽다며 재판에 회부하던가 직결 처분하겠다 하니 탄홍은 순간 약한 여자가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나라 하나 못 지키고 무슨 민족해방이냐고 죽여도 좋다고 하니 정말? 그러냐고 하며 이 용모가 고운 아가씨에게 동정심을 보였다. 아이를 안고 퇴원할 무렵 그 월맹 장교는 자기 이름은 반 누엔이라며 어려운 일 있으면 찾아 오라고 연락처를 주었다.

탄홍은 부모님이 지주이어서 이미 직결 처분 받았다는 소식을 하노이로 이사와서 사는 이모를 통해 들었다. 부모가 피신하면 너라도 살라고 쥐어 준 폐물과 달러를 가지고 아가와 근근이 목숨을 이어 나갔다.
어떻게든 살아야 할 텐데 하다가 누엔대위의 말이 생각나서 찾아갔다. 그는 은근이 반기며 자기 숙소로 데려가 아기와 함께 지내도록해 주었다.

전쟁 후유증은 점점 치료되어 가고 전후 월남 복구사업이 시작되며 원수지간이던 미국과 국교가 개통되고 주변의 나라들과 점점 문호가 개방되며 한국에도 교류의 기회가 오고 있었다. 국교 재개통, 탄희는 설래는 마음으로 가진 주소에 편지를 띄웠다. 그러나 영 무소식이다.
홍탄희는 친구들과 합작하여 전후 월남 진출하는 사업 계획을 세웠다. 그는 주문자 상표 부착으로 야자수표 신발 무역회사를 세우고 이미 월남에서 활동 중인 브로커를 통하여 월남에 지사를 설립하고 첫 번째로 밑바닥은 생고무로 질기게 만들어 샌들 형식 비슷한 신발 일만 족을 선적시켰다.

하노이에 자리잡은 월남 지사는 2000여 스퀘어 피트 정도 매장을 갖고 있는데, 영업 방침을 결함이 있는 신발은 무조건 교체해 주며 3년 후에 이르기까지 신은 신발을 가져오면 두 번째는 무조건 10% 깍아 주는 형식으로 고객을 전부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때마침 월남에 진출한 맥도날드 햄버거 상품권을 생일 맞은 고객에게 제공하였다. 찾아온 고객은 컴퓨터에 입력하여 두 번째 매장을 찾을 때마다 10% 활인을 해 주었다.

월남 지사장을 뽑을 때 그 중에서 인상이 비교적 선하게 미소짓는 표정의 사람으로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누엔이라는 사람에게 낙점하였다. 한국 본사에는 유창한 월남어 통역사를 선발하여 수시로 업무 보고와 지침을 주고받았으며 비교적 현지 주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기업으로 기업 이미지를 쌓아갔다.
홍탄희는 이제 나이가 벌써 43세로 접어 들었다. 월남 전 참전이 엊그제인데 20여 년 세월이 되었다.

혼자 있을 때면 “탄홍, 탄홍, 사랑하는 탄홍은 어디에” 하며 어린 것과 함께 보고 싶었다.
지금쯤 18, 9세 되었을 것 같은데 아니 그 전란에 살아 있기나 할까?
햇빛이 창살로 번쩍일 때마다 탄홍 나의 탄홍은 어디에 하며 혀를 지그시 깨물며 그리움에 눈물이 쏟아진다.
의외로 월남 현지 지사가 영업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홍탄희 사장은 아무래도 현지 출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해 늦가을에 비행기표를 샀다. 월남에서는 서울 본사 사장의 처음 방문인지라 나름대로 지사장은 신경을 쓰고 하노이에서 고급호텔이라 여기는 곳에 숙소를 마련하고 공항에 영접을 나왔다.
영어보다는 불어가 더 유창한 지사장은 홍탄희 사장이 의외로 불어로 의사소통이 됨을 반가워하며 매장으로 안내를 했다. 꽤 넓게 비교적 세련되게 진열하여 잘 운영하고 있었으며 매출 실적이 좋은 편에 속하고 본사에서 보내는 물건을 비교적 별 재고없이 잘 팔고 있었다.

떠나기 전날 밤 구엔 지사장은 집으로 초대하여 월남 음식을 대접하였다. 자기 부인은 종종 심장이 울렁거리는 증세로 같이 참여 못함을 미안해 하며 아들이 같이 배석했다. 키가 홍탄희와 비슷할 정도로 컸으며 인상이 영리해 보였다. 아버지를 잘 돕고 있으며 은근히 미래에 뒤를 이을 후계자임을 나타냈다. 좀 서툴지만 의외로 김치가 나와서 홍탄희는 연신 댕큐를 연발하며 잘 먹고 호텔로 돌아 왔다.

그러나 그들의 식사하는 모습을 누엔 지사장 부인은 문틈으로 소리없이 지켜 보며 쉴 새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감정이 격하여지자 탁자에 내프킨으로 눈물을 닦으며 “탄홍, 당신이 이곳에 오다니”하고 되뇌인다.
다음 날 서울로 가는 비행기 탑승시간이 가까와 누엔 지사장 아들이 차를 몰고 호텔로 와서 공항으로 안내했다. 길가에 차를 새우고 키 뭉치를 든 녀석의 손에는 아리랑 장고가 매여 있었다. 깜짝 놀라 물으려 하는데 속히 탑승해 달라는 방송과 함께 길 가에 주차한 차량을 치워달라는 시큐리티의 재촉에 밖으로 나가면서 한마디! 불어로 “봉쥴 파파 (안녕 아빠)” 하고 손을 흔들며 왼손에 들린 보자기 하나를 건네며 “런치 포 유 프롬 마미 (Lunch for you from My mom)” 하고 건냈다.

기내에 들어 와서 의자에 기대니 절로 졸음이 왔다. 한 4,50분 날라 왔을까 시장끼를 느껴 보자기를 풀르고 보니 월남 쌈이 담겨있다.
맛있게 먹고 나서 런치 박스 밑에 하얀 수건 한 장이 있다. 내프킨 용이라 생각하고 펼쳐서 닦는데 여인의 입술 자국이 선명한 립스틱 마크와 함께 2T2H 의 싸인이 새겨져 있다. 헉 — 탄홍이다.
“봉쥴 파파” 하며 인사한 앳된 청년 지사장 아들, 바로 탄홍의 아들이었다. 아리랑 장고 마스코트도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탄홍에게 주었던 그것이다. 그렇게 못잊어 하던 탄홍과 사이에 낳은 아들이었다.

입술 마크가 찍힌 자기들만이 사랑을 나누던 암호 마크 2T2H은 영어의 T자에 H자를 T자 다

리에 S자 처럼 눕혀서 쓴 약자로 2개의 T자와 H자를 사용한 것이다. 서로 암호처럼 사용하던 마크가 아닌가.
그렇게 못잊어 찾던 탄홍은 자기 아이까지 낳고 현지 지사장의 부인이 되어 있다니 참으로 감격스럽다.

살아 있었구나. 탄홍!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 하얀 수건을 들고 눈물 흘리는 승객의 모습을 눈여겨 본 스튜어디스가 윤형주의 히트한 노래 '하얀 손수건'을 내보냈다.
"헤어지자 보내 온 그 녀의 편지속에
곱게 접어 함께 부친 하얀 손수건
고향을 떠나 올 때 언덕에 올라서서
눈물로 흔들어 주던 하얀 손수건" 하며
노래가 흐를 때 탄희는 가슴은 가슴 깊이 바늘로 찌르는듯 했다. 비행기가 공항에 접근하며 랜딩 준비하는 데 창밖으로 보니 늦가을 궂은 비가 소리없이 내리고 있었다. 창밖에 넓게 펼쳐진 가을 들녘에 황금색 벌판으로 안개가 서리며 한 마리의 황새가 날아간다.
탄희는 회사로 가지 않고 곧장 고향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 저 이제 결혼하겠습니다.
누이 동생 탄영이 오빠의 손을 잡는다. 무엇인가 알겠다는 표정이다.

결혼 청첩장을 불어로 찍어서 멀리 월남 지사장에게 보냈다. 그 의미는 탄홍! 난 너를 사랑하여 이제껏 못 잊어 너를 맘속에 지니고 있었는데 너는 살아 있고 나는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였음을 알리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물론 결혼마저도.

결혼식 날 월남으로 부터 작은 소포 하나가 왔다. 엷은 금판 하트 형위에 2T2H 싸인이 새겨진 것이다.
영원한 불변의 사랑을 간직하겠다는 탄홍의 사랑의 메시지였다. 탄희는 안 주머니에 담고서 신부와 조용히 제주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햇살이 곱게 비치는 오후이다.



A Reminiscence



Kongki Min
교수

At my advanced age I sometimes feel the urge to summarize my life in some fashion, to tell to myself and others what it was all about. Ten years ago my dear daughter Katherine and my son Kollin presented to me a collection of old photographs. Perhaps I can use this as the basis of my life story.

From high school through Korean War(1948–1953)



Coming to America and Amherst College(1953-1957)

One of the best decisions in my life is coming to America, and choosing Amherst College.

Even in the war time Pusan, there was US Information and Culture Center attached to the US Embassy. It was in that library I found a reference book entitled "US Colleges and Universities".

I made a list of colleges that looked appealing in alphabetical order.

Amherst was the on top of my list, simply because it starts with (A)!.

I needed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my American Colleague, Colonel Brown (A West Pointer).

When I told him I was applying to Amherst, his one line comment was "Lt. Min, Amherst is a tough college to get in".

About a month I sent out the letters, I began to receive replies from the colleges I applied, including Amherst with the best offer imaginable. Dean Porter of the admissions office offered a total financial package of $900 including room and board and tuition!

Intellectually and otherwise, four years at Amherst was such an enrichment to my life that its legacy is still with me. Struggling to write papers on such existential topics as " Where are you?' and "who are you?" Is in a way a continuing process I am even now involved.

Another big reward from this period is meeting a bright Korean girl at the nearby Mount Holyoke College.





Marriage, graduate school and raising family(1957-1965)

I graduated from Amherst in 1957 and proceeded to do graduate work in physics at University of Illinois in Champaign-Urbana. Yungwha graduated from Mount Holyoke in 1958 and was accepted to Harvard Radcliffe for graduate work in philosophy.

Instead we decided to marry that summer and she transferred to University go Illinois.

I am eternally thankful to Yungwha for this sacrifice.





University professor's life(1965-2000)

After getting my Ph.D in 1965, my academic life started as an assistant professor at University of Virginia, and as associate and full professor at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As a research faculty and teacher, I was heavily engaged in writing proposals for funding to NSF, AEC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My research in experimental nuclear physics was and is basically an international project and involved traveling to the sites of medium energy electron linear accelerators. In my case, they were:

Bates lab at MIT, Kakuriken(Nuclear Research Lab) at Tohoku University in Japan, and Mainz University in Germany—. In between, I also enjoyed several sabbatical leaves with my family to Yonsei University, Postech and Hong Kong.

It was during this period, that

Our daughter Katherine graduated from my almamata Amherst in 1980 and our son from Yale in 1988.

Life after Retirement(2000 to Present)

After my retirement 2000, I become involved more in my personal and social aspects of life.
Two weddings of our daughter Katherine and son Kollin and the birth of four grand children were big events.
With more time available, I indulged in my favorite undertaking, travel, skiing and painting. In 2010, we moved to Laguna Woods in California. With many similarly motivated group of Korean friends, I had the pleasure to help out North Korean students and ex-ROK soldiers to settle in South Korea through an organization “Mulmangcho” (Forget Me Not)’.
Life can sometimes bring an unsuspected surprise linking to a time long ago.
This happened to me recently when I received a email from someone in Mission Viejeo. He somehow came across my old memoir of Korean War where I mentioned the name of my division commander(ROK 11th Infantry), General Oh Dukjoon. I am grateful to Dr. Hongsjk Kim for arranging a wonderful meeting with his son Pastor Oh Yunggil at 19th restaurant.







Summary of my life?

It is impossible to summarize my 90 years of life with 12 photographs on four A4 sized papers.
Each one of this photograph deserves perhaps hundred pages of stories in it.
With the triumphant victory gesture, my grandson perhaps signals the beginning of a completely a new chapter of such a story.

I want to end my story by quoting a well-known Chinese adage:

"Do everything humanly possible and wait for heaven."
Did I? I will keep as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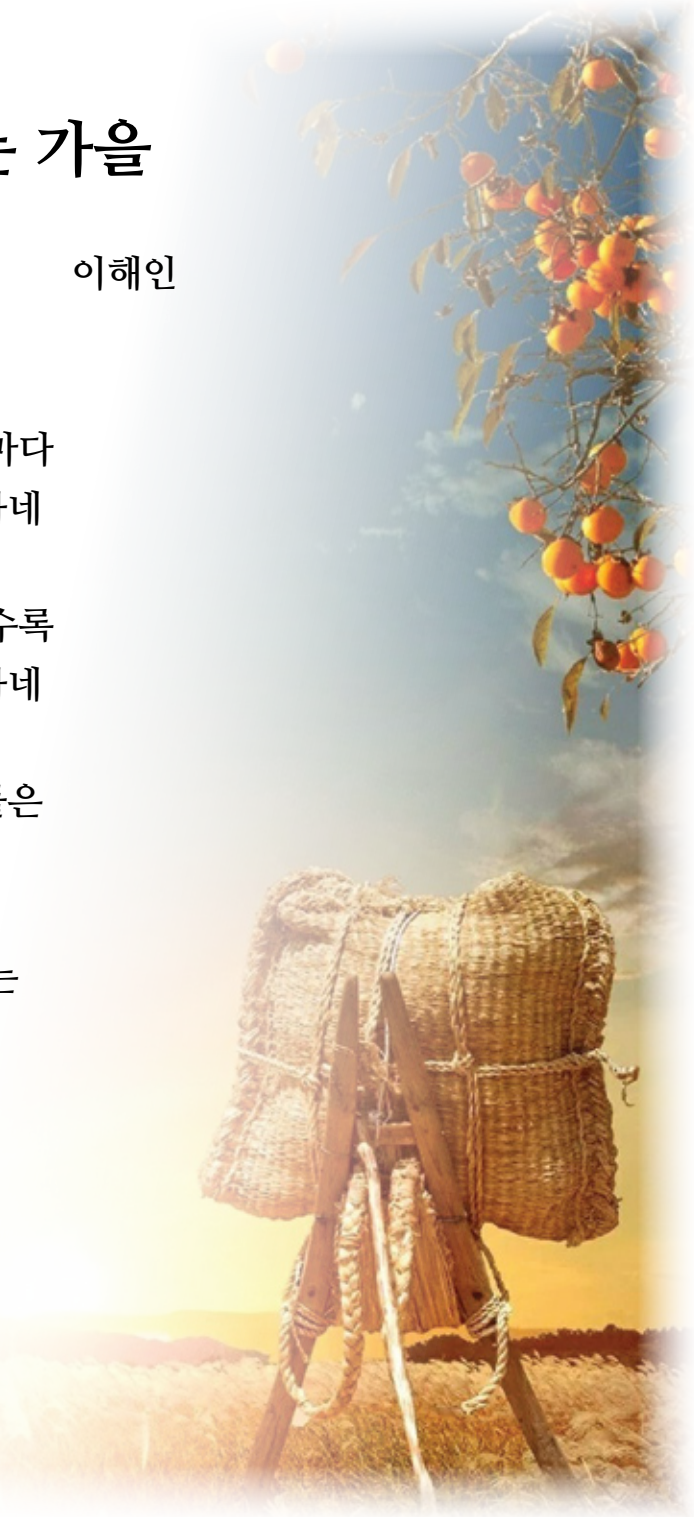
9/30/2021





익어가는 가을

이해인



꽃이 진 자리마다
열매가 익어가네

시간이 흐를 수록
우리도 익어가네

익어가는 날들은
행복하여라

말이 필요 없는
고요한 기도

가을엔
너도나도

익어서
사랑이 되네

약해지지 마 | 시바타 도요

있잖아, 힘들다고 한숨 짓지마.

햇살과 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6부 사색의 창가에서

빙그레 | 고영주
마음의 행적(行蹟) | 연규호
선택의 기로에서 | 이덕희
말, 너 때문에 내가 산다 | 편집자
여보, 고마워 | 장원호
인생을 노래하자 | 소피아 최
여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 Root

LWV Potter & Sculptors







고 영 주

빙그레

인생을 고해라고 했다
그래도 꿈이 있다
어린 시절 무지개를 잡으러 다녔다
젊어서는 사랑에 빠졌다
돼지꿈, 용꿈도 꾸었다
로또는 어쩌면 운 좋게 나를 피했다

인생은 그런대로 살만하다고 했다
하지만, 헛되고 부질없었다
역시 꿈은 꿈이다.

이제 그날이 오면
울 엄마가 새벽부터 기다리신다.
본향 가는 길
인생이란 물음표 밑에
'희미한 동그라미 하나'
허공에 찍고 간다.
'그날은 참 억세게 운수 좋은 날'
'Dream finally come true'
'빙그레' 웃어야 대박이다.

마음의 행적(行蹟)



연 규 호
소설가 · 의사

1.

"엄니가 날 알아 볼까? 엄니 마음은 어디로 간겨?"
경기도 분당 양로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머니가 보고 싶어 뉴질랜드, 오클랜드 국제 공항(Auckland Internatioal Air Port)으로 가고 있다. 어머니 생각이 날 때마다 스마트 폰에 담겨 있는 어머니의 녹음 영상을 재생해 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이다.
-영상이 열리면 보고 싶은 어머니의 모습이 무성 영화처럼 얼킨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며튀어나오는 데, 조막만한 얼굴에 쪼글쪼글 주름진 모습이 마치 거미줄이 쳐진 것 같아 마음 아프다.
표정이라고는 거의 없으며 웃음은 아예 찾아 볼 수 없는 싸늘한 어느 겨울날처럼 찬 모습이다. 쪼글쪼글한 어머니의 얼굴에 내 얼굴을 바짝 대고 마치 엄청난 비밀이라도 알아내려는듯이 큰 소리를 치고 있는 내 모습이 더 초라해 뵌다. 어느새 어머니는 90세. 양로병원 안락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있는 어머니곁에 반쯤 웅크리고 서 있는 형님의 모습이 보인다.
"엄니? 나, 누구지, 누구?" 나는 어머니를 흔들면서 내 이름을 속시원하게 불러주기를 마음조이며 갈망하는 장면이 나온다.
"어, 누-구-시-죠?" 어머니는 뜻밖에도 둘째 아들인 나를 몰라보신다.
"엄니? 나, 석호, 서코야! 엄니! 대답 좀 해 봐유, 엄니!" 나는 안간힘을 써 대답을 유도해 본다.
"누-구-시-죠?" 이번에도 나를 모른다고 하니 슬그머니 화가 나 더 큰 목소리를 왼쪽 귀에 심통스럽게 뿌린다.
"엄니, 나, 서코여, 엄니!" 이번에도 대답이 없자, 나는 억울하지만 단념하고 옆으로 물러섰다.
"그럼, 어머니? 시편 23편을 외워 봐요! 시편 23편을…" 보다 못해 옆에 계신 형님이 멋쩍어하는 나를 위로하려고 나와 정반대로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훈수를 든다.
의자에 앉아 있는 어머니는 잠시 얼굴을 씰쭉거리며 대뇌(大腦) 깊은 곳에 저장된 기억이라는 보따리를 풀어내기 시작한다. 마치 구식 자



동차의 시동을 걸듯 몇 초의 간격이 필요하다. 출발 총소리를 들었는지 옆으로 살짝 늘어진 붕어 입같은 어머니의 입술이 바르르 떨리더니 낭낭하게 암송을 시작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한자도 안 틀리고 줄줄 외우는 어머니의 모습은 숭고하며 존경스럽다. 옛날 초등학교와 교회학교 교사를 하며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던 그 옛 모습을 그대로 보는 듯하다. 초자연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머니는 정작 아들의 이름은 모른다고 하니 어찌 설명을 하여야 할지 궁굼하다 못해 화가 난다.

“에이-씨-, 성경은 줄줄 외우면서 왜 내 이름은 몰라유, 엄니!, 엄니? 피아노도 한번 쳐봐유!”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충청도 사투리로 말한다. 혹시라도 사투리가 옛 기억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될까 봐서이다.

이번에는 못 들었는지 꿈적도 안는다. 작년부터는 손이 떨리며 평형감각이 좋지 않아 일어나다 몇 번 쓰러지더니 이젠 아예 일어나질 않는다고 형님이 설명한다.

“석호야, 그래도 찬송은 혼자 하셔. 그거 있잖아.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싸네…’ 근데 그것도 요즘은 안하셔. 잊었는지 소리가 안 나는지, 통 안 해. 어쩌겠니? 치매가 더 심해졌으니…”

형님이 내게 설명을 하는 도중에 어머니를 담은 영상은 여기서 “뚝” 끊겼다.

이상은 6개월 전에 한국에 가 어머니의 병상 옆에서 특별히 녹화한 영상이다.

“엄니, 나 엄니, 보러 지금, 가는 중여.” 나는 스마트폰을 윗주머니에 넣었다.

긴 출국수속을 마치고 K여객기에 탑승하니 어머니를 보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 진다. 어머니는 3-4년전 까지만 해도 가족들과 대화도 하고 성경구절도 거뜬히 암송하는 것은 물론 피아노를 치라고 하면 피아노에 앉아 감정을 넣어, 가요, 동요 그리고 찬송가를 자유자재로 연주했다. 뿐만 아니라 찬송과 동요도 직접 육성으로 불러주셨음은 어머니가 초등학교와 교회학교 교사를 수십 년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어머니는 치매라는 해괴한 병에 아예 걸릴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을 했었다.

그런데 4년 전부터 치매증세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조금씩 조금씩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석호야, 더 먹어라.”라고 음식도 권유했었는데 지난 방문 때는 아들인 나를 보면서 ‘누-구-시-죠?“라고 묻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맞아들인 형님은 알아보았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더 유감스럽고 서글펐다.

“빌어먹을! 엄니? 형님은 알아보고 나는 왜 몰라보는 거야! 멀리 뉴질랜드에서 세탁소를 하느라, 아니, 먹고 살기 바빠 어머니를 자주 찾아 뵙지 못해서 얼굴을 잊어버린 거 아냐! 일시적인 거겠지. 어무니-”라고 나는 스스로 위로를 했으나 그게 아니었다.

하필이면, 나 없이는 못 살거라고 입이 닳도록

말했던 어머니가 둘째아들인 나만 몰라보다니, 사랑이 깊다보면 반대로 내게 말 못할 유감이 있어도 내색 하지 않으려고 하는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엄니! 나유, 나. 석호!” 아무리 큰 소리를 치며 얼굴을 비벼도 어머니는 대답이 없다가 기껏 “누-구-지-유?”라는 말만 할 때 나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고 생각했다.

“어무니-뭐유-에이 씨-” 나는 눈물만 흘렸다.

6개월 전, 어머니의 치매가 꽤나 중증임을 눈으로 확인하고 더 나빠지기 전에 아예 어머니의 모습을 영상으로 녹화해 가지고 뉴질랜드로 돌아왔었다. 그 때 녹화한 7분짜리 영상을가슴에 품고 다니다가 어머니가 보고 싶으면 재생해서 듣기를 수십 번 아니 수 백번 한 것같다.

“이젠 그 영상, 그만 틀어요! 큰 아들은 알아보고 작은 아들은 몰라 보는 엄니..., 그거 들어봐야 마음만 아프지…”

보다 못해 아내가 퉁명스럽게 한 말이다.

“무슨 소리! 이번에 가면 나를 알아보실 거여.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 줄거여!” 라고 큰 소리를 쳤었다.

정말 그럴까? 나는 반신반의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비행기 속에서 잠을 청했었다.

2.

“식사는 무얼로 하실까요? 비빔밥? 아니면 소고기 요리?” 여승무원이 상냥하게 웃으면서 내게 물었다.

“비빔밥으로 주세요.”

문득 어머니가 더운 여름날 고추, 오이, 그리고 상치를 텃밭에서 따 가지고 와 참기름과 고추장을 넣어 비빔밥을 만들어 주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고소하고 매큼한 맛이 아직도 내 혀끝에서 살살 녹고 있는 듯했다.

‘어머니-어머니-’

공무원으로 여기저기로 전근을 자주 다녔던 아버지대신 어머니는 우리 가족에게는 변함없는 등대지기요 선장이었다.

초등학교 교사답게 어머니는 꼿꼿하며 딱 부러진 여성으로 가정교육에도 엄했기에 형님은 상과대학을 나와 기업체에서 이사로, 나는 공과대학을 나와 역시 꽤 큰 기업체에서 신임 받는 엔지니어로, 과장을 거쳐 부장으로 그리고 이사직도 바라보았다.

그렇던 내가 48살 되던 해 직장으로부터 뜻밖에도 명퇴를 당하고 말았다. 생각해 보면 일년 전부터 ‘명퇴의 대상’이라는 소문은 있었다.

기분이 언짢았으나 그럴 리가 없다고 자신하며 지냈는데 말만 듣던 그 명퇴가 내게 덮쳐왔다. 그러나 내게는 도무지 이유가 안 되었다. 억울했다. 용납되지 않았다.

하늘이 노래지며 낙망과 한스러움으로 눈물만 흘렸다. 죽고 싶었다. 한국이 싫었다. 동료들을 만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 패잔병이요 포로가 된 기분이었다.

퇴직금을 받았다. 그런대 그 돈으로 무엇을 한담?

아내에게 면목도 없었고 자식을 보기도 힘들었다.

“석호! 뉴질랜드로 와 봐! 전기 기술자로 우선

오라고…여기, 살만해. 명퇴도 없고 걱정도 없어.”

몇 년전에 명퇴를 당한 후 홀연히 뉴질랜드로 이민 간 선배의 충고가 고마웠다.

엎친데 겹친다고 건강하다고 믿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불안해하더니 혈압이 높아지고 우울증에 빠졌다.

“뭐시! 석호가 짤렸어. 나쁜 놈들! 석호가 어째서…”

아버지는 잠을 못자며 안절부절 했다.

2년 후, 2006년 여름, 나는 초급행으로 이민 수속을 해 마침내 뉴질랜드로 가게 됐다.

“석호야 힘 내거라. 내 걱정 말고, 뉴질랜드로 가서 잘 살아라. 이 에미는 살만큼 살았어. 내 나이 80이여.”

어머니는 내 등을 도닥거리며 위로를 해 주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시편 23편을 읊으면서 “여호와가 너의 목자시니 너를 지켜 주실거여!”라고 하며 피아노를 치며 친히 찬송을 불러 주었다.

반면 아버지는 아주 달랐다.

“석호야? 이민 간다고? 아니지. 조국을 두고 어딜 가? 안 돼 이놈아. 여기서 살자.”

“아버지 한 5년만 살다가 성공해서 오겠습니다. 아버지…”

“5년이라고 했니? 세월이 우릴 기다린다고? 아녀 이놈아. 나 5년 못살아”

그 후 아버지는 몸 져 누었으니 이민가기가 힘들었다.

“석호야, 걱정 말고 가거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저러다 아버지는 좋아진다.”

형님이 위로 했을 때 나는 비로소 내가 차남인 것을 인식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이민 가던 날은 공교롭게도 내 나이 50이 되던 날이었기에 전날 온 가족이 모여 송별회 겸 생일 만찬을 했다.

내일 여길 떠나면 나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건너 미지의 나라로 간다고 생각하니 어깨가 무거워지며 두려웠다.

16살, 11살 된 딸과 아들의 손을 꼭 잡았으나 힘이 없었다. 자신이 없었다.

80세의 어머니와 82세의 아버지를 두고 간다니 내 마음이 무겁다 못해 죽을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었다. 그래도 비행기를 타야 했다.

뉴질랜드는 듣던대로 지상낙원이었다. 탁 트인 바다에 계획된 도시 오클랜드에서 선배를 만났다.

어느새 아담한 아파트를 준비해 놓았으며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어 생각보다 수월하게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전기 기술직을 구하기 전에 청소와 페인트를 칠하는 일을 시작했다. 엄밀히 말해서 싸구려 노동자가 하는 하찮은 일이었다.

한국에서는 생각도 못했던 하찮은 일이었으나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을 까 생각하니 즐겁게 할 수가 있었다.

가까스로 얻은 전기 기술자의 직업이 참으로 좋았다. 오클랜드 시에서 운영하는 전기회사의 기술공으로 이집 저집을 다니며 고쳐주고 전봇대에도 올라가곤 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정착되는 가 했는데 뜻밖의 소식이 나를 울렸다.

“석호야, 아버지가 돌아 가셨어. 그리고 유언대로 가족끼리 장례를 지냈어. 너에게 일부러늦게 전한 것은 네 이민 생활에 도움이 안돼서 그랬어. 형이 잘 처리했으니 그리 알거라.”
“아니? 형님! 나에게 알려 줬어야지요. 마지막 임종을 봤어야 했는데요…”
“석호야, 아버지는 친구들과 천안에 갔다 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 누구도 아버지의 마지막을 보질 못했어. 나도…”
“아부지!” 나는 멀리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울었다. 오클랜드의 밤은 유난히도 하늘이 맑았기에 수많은 별들이 내 머리에서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다. 마치 죽은 아버지의 혼이 못난 아들놈을 위로하러 멀리 뉴질랜드로 다니러 온 듯했다.
그리고 일 년, 마음은 무거웠으나 참고 일했다. 뜻밖에도 뉴질랜드 정부에서 매달 1000달러의 보조를 해주었다.
“와! 내가 뉴질랜드를 위해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매달 1000달러를 무료로 도와주다니… 학교도 거의 공짜인데…”
딸은 비록 이름은 떨어지나 2년제 공립 대학에 거의 무료로, 아들은 고등학교에 역시 거의 무료로 다니고 있었다.
그간 열심히 저축하고 또 모은 돈으로 마침내 세탁소를 하나 구입하게 됐다.
전기 기술자로 사는 것도 좋지만 세탁소가 어렵기는 하나 훨씬 더 수입이 좋았기 때문이었다.
“석호야, 어머니가 조금 이상해. 우울증이 심해져서인지 말을 잘 안해. 가끔 이민 간 네가 보고 싶은 지 널 부르곤 하셔. ‘서코야- 넌 에미 생각도 안 나는 겨? 내가 찾아가야 혀.’ ”라고.
“언제부터죠?” 나는 전화기를 통해 큰 소리로 물었다.
“사실은 네가 이민 가던 해부터 말을 아끼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눈에 띄게 심해 졌어.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나도 궁굼해…석호야.“
“마음이 어디로 가다니요?”
“어머니 마음이 없어졌는지, 옛날의 어머니의 마음이 아녀…우릴 잘 몰라보는 것 같아. 아마, 치매가 시작됐나봐.”
“한번 가봐야겠지요, 형님?”
“그래야겠지. 어머니가 너를 자주 찾아. ‘서코야-서코야-’라고”
형님의 전화를 받고 내 대신 아내를 곧 한국으로 보내기로 했다.

3.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 했을 때, 내 아내는 같은 대학 3학년, 우리는 기독교 동아리에서 만나 캠퍼스 커플이 됐다.
내가 그녀를 애인으로 만난지 수개월 후, 그녀의 어머니(지금은 장모가 됐지만)를 처음 만나 인사를 올렸을 때, 나는 당나라의 양귀비(楊貴妃)와 주나라의 포사(抛似)를 만났다고 착각할 만큼 장모님에게 ‘뽕’ 갔었다.
딸보다 어머니가 더 청순해 보였었다. 다소 갸름한 얼굴이 마치 캄캄한 밤에 아즈런히 하늘에 걸려 있는 반달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런데 웬일일까? 그 예쁜 얼굴에 뭔가 근심이 엇갈리는지 눈물자국이 여기저기에 붙어 있다고 느꼈었다. 나 혼자 묻고 대답을 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이 결혼 후 3년이 지나서였다.

-내 장인은 장모보다 5살 위로 고급 세무공무원으로 수입도 좋고 활달했다.

장모의 시어머니(아내의 할머니)는 20살에 아들(장인)을 낳았다. 6.25 전쟁 중에 남편을 잃고 전쟁 미망인으로 남편에 대한 정을 아들에게 몽당 쏟아 부었다. 양귀비 같은 며느리가남편을 위해 할 일을 시어머니가 손수 해주었다.

"예쁜 아가, 내가 아범을 좀 챙겨주마, 넌 쉬거라."

처음에는 고맙고 배려가 깊다고 생각해 시어머니에게 감사를 표했으나 한 두 해를 넘기면서 아내의 소임을 잃고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밥그릇을 가슴에 품기도 하며 국그릇을 이불속에 넣어 두었다가 아들이 들어오면 밥상에 놓고 그가 다 먹을 때까지 곁에 있었다.

남편은 어머니가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드렸다. 마치 생각 없는 마마보이였다.

"여보, 나는 뭐요? 아내요? 인형이요?" 그녀는 남편에게 항의 했으나 대답은 엉뚱했다.

"아니, 어머니가 당신 대신 해주면 좋은 거 아뇨?"라고.

장모는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손톱, 발톱 머리에 치장하는 시간이 많았으며 그림을그리고 붓글씨를 쓰곤 했다. 결국 상대적으로 말이 적었다.

장인과 말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 했다. 그리고 같이 다니지를 않았다.

"강 서방, 나는 남편을 시어머니에게 빼앗겼어."라고 말했다.

나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물었다.

"여보, 어머니와 아버지는 남남이나 다를 바 없어. 할머니가 너무 끼고 살으니까. 나는 할머니가 싫어." 아내는 뜻밖의 말을 했었다.

아내의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뜻밖에도 장모는 우울증을 갖게 됐다.

말을 일체 하지 않았으며 묻는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우리부부가 이민짐을 싸던 그해 장모는 겨우 71살이었다.

"어머니를 두고 나 이민 안가! 당신 혼자가소!" 아내는 울면서 이민 가기를 거부했다.

결국 뉴질랜드로 이민 오기 전에 우리부부는 장모로 인해 한바탕 곤욕을 치루었다.

뉴질랜드에서 자리 잡는 대로 자주 한국에 가 어머니와 같이 있게 해 주겠다는 나의 꼬임에 아내는 여기까지 왔으나 청소하랴, 페인트 칠하랴 집안 일 하랴, 한 번도 한국에 가질 못했었다.

- 4년 만에 한국을 찾아온 아내, 김정선은 황당한 느낌이었다.

멀쩡했던 시어머니는 남편을 잃고부터 우울증이 생겨 말이 없었으며, 말이 없었던 친정어머니는 전보다 더 심해 겨우 딸을 알아보았다.

친정어머니는 눈만 뜨고 딸을 멀그러니 쳐다보기만 했다.

"엄마! 나, 정선이야. 내가 왔어. 정선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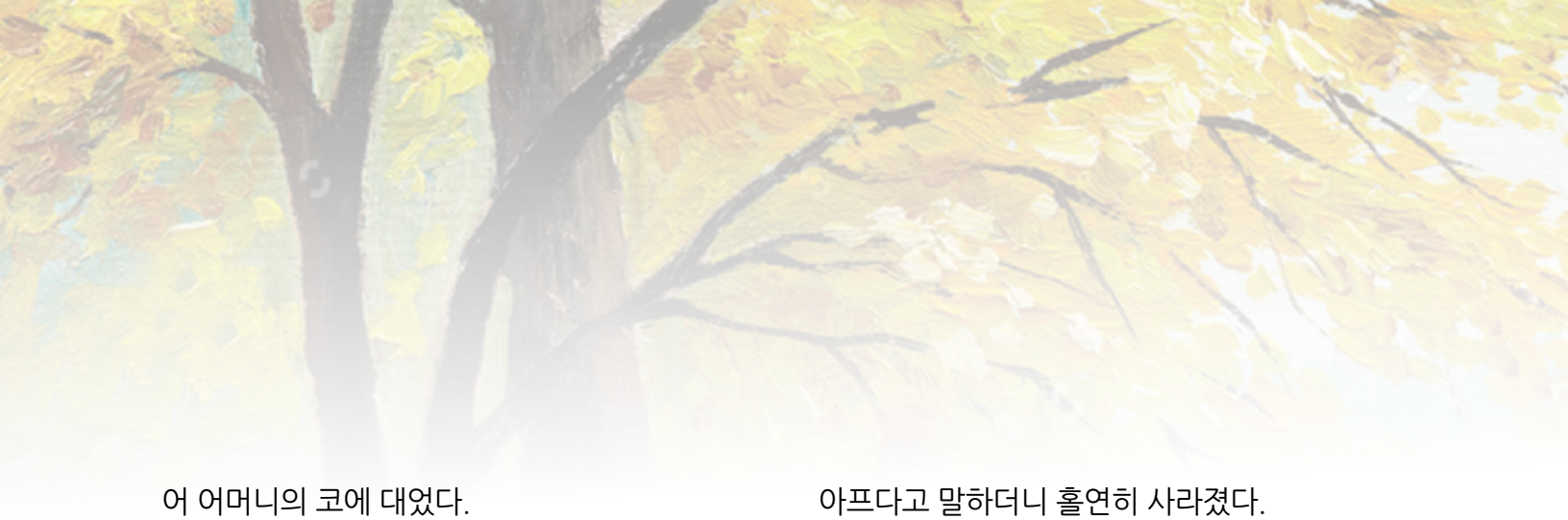
"……"
"엄마! 말 좀 해봐! 나 정선이여. 엄마 딸!"
"왜 이제 온거야!" 그 때서야 말이 없던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면서 소릴 쳤다.
"엄마! 미안했어. 잘못했어!"
"……" 어머니는 또 다시 입을 꾹 다물고 말이 없었다.
그간 얼마나 외로웠었는지를 증명하는 듯 했다.
아내는 친정 어머니의 손을 잡고 통곡을 했다.
"이게 뭐야? 어머니와 시어머니, 둘 다 이게 뭐야! 어머니! 시어머니!"
"……" 둘 다 대답이 없었다.
답답하다 못해 아내는 담당 의사를 만나 물었다.
"의사 선생님? 시어머니는 그렇다 치고 친정어머니의 우을증은 너무 심해 마치 마음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군요. 어머니의 마음과 생각은 존재하고 있나요?"
"따님? 마음과 생각이라고 했나요?"
"예. 어머니의 마음. 마치 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보면 텅빈 집같이 뵈는 군요, 아무도 살지않고 거미줄이 여기저기에 쳐진 빈집 같아요. 왜, 그런거죠? 도대체 치매 환자나 우울증 환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거지요? 모성애(母性愛)는 어디로 갔나요? 가슴에? 아니면 뇌 속에?"
"뉴질랜드에서 온 따님? 저는 신경병리의사입니다. 물론 마음은 뇌 속에 있습니다. 가슴에있는 게 아니고요, 의학적으로는 말입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는 모두 우울증에 해당됩니다. 치매나 뇌졸중이 아니고…
그러나 두 분의 증상은 마치 치매 환자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뇌는 여러 개의 기관이 합쳐 서로 보완해 주는 아주 큰 유기체입니다.
우선, 대뇌는 '이성의 뇌(理性의 腦)'라고 불리우는 데 좌우로 갈라져 있습니다. 기억, 지능, 정보 분석, 판단을 초고속 컴퓨터보다 빠르게 처리합니다. 운동, 감각, 음악, 소리, 청력 그리고 후각을 담당합니다. 대뇌의 밑에 있는 대뇌변연계(大腦邊連繫, Limbic system)는 감정의 뇌(感情의 腦)라고 불리웁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그중에 해마(海馬, Hippocampus)라는 부위는 최근에 얻은 새로운 정보를 대뇌로 보내 영구히 기억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 곳이 지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이 부분이 기능을 잃으면 치매가 되며 어머니의 사랑을 잃어 버리지요.
그리고 뇌간(Brain Stem, 腦幹)은 생명의 뇌(生命의 腦)라고 불리우지요. 죽고 사는 문제, 즉 심장, 호흡 그리고 그 주위에서 많은 뇌 호르몬이 나오고 있지요.
불교에서는 마음은 가슴에 있다고 하며 심장을 가르치지만 사실 마음은 뇌에 있답니다.
결국 뇌의 여러 기관들, 즉 시각, 청각, 후각 촉각등이 대뇌와 연결되며, 대뇌변연계를 통해 대뇌에 저장된 정보를 유출해 내는 과정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뇌가 중요하지만 몸 자체와 주위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아 마음은 뇌와 몸, 전부가 연관된 것이지요.

치매는 대뇌의 세포와 해마의 세포가 완연히 작아지고 숫자도 감소하는 데 이를 알즈하이머라고 부르지요.
뇌에 뇌졸중이 생기거나 혈관이 터지면서 뇌의 부분들에 손상이 생겨서 오는 치매도 있지요. 물론 MRI를 찍어보면 비정상으로 나타나며 뇌파 검사도 역시 손상이 있지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시죠? 사실 일반 의사들도 뇌에 대해서는 잘 모른답니다.
그러나, 따님의 시어머니와 어머니는 MRI와 뇌파가 극히 정상인 것으로 보아 단순히 뇌 속에서 분비되는 신경 호르몬 즉, 도파민이 적어져서 생긴 우울증이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두 분은 향후 좋아 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뉴질랜드로 가셔도 됩니다.“
“그럴까요, 신경병리 박사님?” 아내는 눈물을 닦았다. 좋아 질 수 있다는 실낫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한국을 다녀온 아내의 말대로 어머니와 장모님의 증세가 좋아지기를 기대하다 보니 콧노래가 나왔다.
세탁소도 점점 더 번창해 수입이 대폭 늘었기에 우리는 큰 결단을 내렸다.
직접 곁에서 효도는 못하지만 돈으로 효도를 하자라는 결심으로 각각 두 분의 병원치료를위해 3000달라를 매달 보내기로 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에게 뉴질랜드정부에서도 1000달라를 주는 데 우리를 낳고 기른 어머니들에게 왜 못 할까라는 마음에서 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우리의 집 재정은 휘청했으나 마음은 기뻤다.
일년 전 형님이 보내준 소식에 의하면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진 후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짐은 물론 평형감감각도 좋지 않아 결국 양로병원에 입원했었다. 그 후 병원비가 무척 든다고 형님이 처음으로 돈 걱정을 했었다.

4.

뉴질랜드를 떠난 비행기가 마침내 제주도 상공을 지난다고 상냥한 여 승무원이 방송을 하고 있었다.
“석호야! 어머니를 분당에 있는 H양로병원으로 옮겼어. 시설이 더 좋고 간병인도 좋아. 인천공항에서 직접 그리로 가는 급행버스를 타고와, 근처에서 택시를 타면 쉽게 찾아 올 거야. 그리고 석호! 매달 병원비를 보내줘서 큰 도움이 돼. 나도 250만원과 간병인 값, 70만원을 내긴 하지만, 하여튼 꽤 벅차다.” 지난번 전화를 통해 형님이 알려준 정보였다.
형님 말대로 인천공항에서 분당까지 와 택시를 타고 어머니가 계신 H양로병원에 도착 했다. 현대식 건물로 지은 5층 건물의 3층에 어머니는 누어 계셨다.
새로 바뀐 조선족 간병인이 나를 아는 체 했다.
“조금 전에 잠이 드셨는데요…”
잠든 어머니의 모습은 간난아이 같았다. 치매가 생기면 거꾸로 나이를 먹는다고 했다.
사람이 태어 날 때,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

듯이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고 했다.
어머니의 위(胃)에 직접 튜브를 통해 들어가는 아주 고가의 고급 영양음식이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시계의 초침처럼 '똑.똑' 소리를 냈다. 조막만한 얼굴에 여기저기 잔주름이 마치 거미줄 같았다. 그런데 여기에 누어 있는 이 여인이 나를 낳아준 어머니였다. 그리고 나와 같은 DNA를 갖고 있지 않은가.
분명 어머니의 심장은 일분에 62회씩 정상으로 뛰며 호흡도 18회씩 정상적으로 가슴을 올렸다 내렸다하는 것으로 보아 분명 살아 있는 정상적인 생명체이다. 그런데 아들인 나를 몰라본다. 왜 몰라보나? 왜?
가만히 어머니를 들여다보았다. 아이처럼 평안해 보인다. 차라리 힘든 세상에 눈뜨지 말고이렇게 게시면 평안할 텐데.
어머니를 보고 불편해 하는 편은 오히려 의식이 또렷하며 정상으로 살고 있는 '나'였다.
잠시 후 어머니는 눈을 뜨고 흐린 초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니? 나여. 나 석호유 서코! " 어머니는 갑작스레 눈을 떠서 그런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잠시 후 눈을 껌벅거렸다.
"엄니? 나유. 나 서코!" 나는 어머니를 향해 큰 소리를 치며 어머니의 입술을 응시했다. 어서 내 이름을 부르기를 기대하면서….
그러나 이번에도 대답이 없다.
"엄니! 나유. 나!"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비비면서 말했다.
"누-구-지-요?"
"엄니, 나, 아들 서코!"
"누-구-"이번에는 중간에 끊어 버렸는데 마치 귀찮아 죽겠다는 듯했다.
아! 나는 나의 즐거움과의 행복을 얻기 위해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는 불효자였다.
"엄니? 내가 보여유? 내가?" 나는 아내가 일러준 대로 그 유명한 신경병리학자의 가르침을이용해 보았다.
첫번째는, 시각(視覺)에 의한 자극을 사용하라고 했다.
아차- 어머니의 눈은 심한 백내장으로 각막이 뿌옅기 때문에 자극을 감지하지 못했다. 결국 뇌의 후두부에 있는 시각 센터에 닿기도 힘들었다. 그것만으로도 사물을 분간하기가 힘들테니 이 자극을 줘 봐야 소용이 없었다.
두번째는 청각에 의한 자극을 사용하라고 했다.
"엄니?" 나는 어머니의 귀에 대고 손바닥을 '딱! 딱!' 쳐보았다. 어머니가 조금 찔끔 움직이는 모습을 감지했다. 고막을 거쳐 귀속의 신경을 타고 측두부(Temporal)에 있는 소리센터에 감지됐다고 생각됐다. 그러나 어머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실패였다.
세 번째는 피부에 주는 통증과 접촉이었다.
"엄니!"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비볐다.
피부에 전달된 감각이 역시 '대뇌의 감각 부위'에 도착했는지 움찔하고 움직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나를 알아 보지 못했다. 역시 실패였다.
네번째는 냄새, 즉 후각에 의한 자극이었다.
"엄니!" 나는 갖고 온 작은 암모니아 튜브를 열



어 어머니의 코에 대었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고개를 조금 저었다.
'아-후각 세포가 살았어. 대뇌에 있는 후각 센터가 살아 있는거야….' 나는 대단한 것을 발견한 듯이 기뻤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나를 알아 보는 것은 아니었다. 실패였다.
순간, 담당의사가 형님에게 말해 준 것이 기억에서 나왔다.
-"7년 전에 찍은 어머니의 MRI는 정상이었는데, 근자에 찍은 MRI는 대뇌 운동부위와 말하고 듣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알즈하이머(Alzheimer)가 아니고 뇌경색 (腦梗塞)으로 인한 치매(dementia)입니다."-
'뇌경색으로 인한 치매?' 나는 어머니를 다시 바라보았다.
"아냐! 엄니? 치매 아녀! 엄니 마음을 열어 봐유, 열어 봐유! 아들이 뉴질랜드에서 왔는데…" 나는 참다 못해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다.
-순간, 나는 어디론가 강력하게 빨려 들어간다고 느꼈다. 그리고 옛 시골집이 눈 앞에 보이는가 했는데 그 집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아니, 집이 왜 비었지? 아무도 없잖아…" 나는 집안을 기웃거렸다. 안방은 캄캄했으나 그래도 밖에서 비친 햇빛으로 인해 물체가 보였다. 그리고 거기에 어머니가 누어 있었다.
"석호냐? 내 맴이 아퍼. 아퍼." 어머니는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더니 홀연히 사라졌다.
"엄니? 맴이 아퍼?" 나는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다.-
"뉴질랜드에서 오신 아드님? 기억은 해마와 뇌 전두엽에서 나오지요. 그리고 마음은 온 뇌에 있는 것이지요. 온 뇌가 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신경병리의사가 설명을 하고 있었다.
"그럼, 어머니의 마음은 어디로 갔나요? 그 마음, 다시 돌아 오겠지요?'
"원래는 안돌아 오나, 혹시 돌아올지도 모르죠." 병리교수가 말했다.
'아- 어머니…' 나는 흐느꼈다.
"아드님! 어머니가 말을 하십니다. 아니 성경을 암송하고 있어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나를 흔들어 깨웠다.
놀라웠다. '누-구-시-죠'만 연발하던 어머니가 또렷한 말로 성경,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있었다.
분명 이런 밝은 표정으로 암송을 하다니? 이건 분명 기적이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 하시는 도다…" 낭낭한 목소리가 또렷또렷 했다.
-문득 신경 병리학 박사가 어머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다.
"뉴질랜드에서 오신 아드님? 이건 기적이 아니

고 무의식과 의식의 세계에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해마를 통해 단기 기억은 대뇌로 이동 돼 장기 기억으로 변해 의식에서 무의식속으로 가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게기로 눈에 띄는 자극이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 숨어 있던 기억을 하나하나 실타래 풀어 내듯이 끄집어 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시편 23편을 통째로 꺼내 암송을 하는 것이지요.“
“선생님? 그게 비록 무의식과 의식 세계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멀리 나들이 갔던 어머니의 마음이 자기가 살았던 빈집으로 되돌아와 멀리서 찾아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에요. 빈집 속에 어머니가 돌아오니 따듯한 마음이 녹아 훈훈한 새집이 되는거죠.”
일단 어머니는 시편 23편을 다 암송한 후 조용히 그리고 멍하니 천정을 바라다 보고 있었다.
“엄니? 찬송도 한. 곡. 해 줘유!” 나는 어머니를 와락 안았다.
어머니는 얼굴을 몇 차례 꿈틀거리더니 아, 웬 일인가? 그 찬송을 하기 시작했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위에서 내려오네…”
어떻게 그토록 힘 있고 감정 있는 찬송을 부르다니…감격해, 눈물이 주루루 흘러 내렸다.
“엄니. 고마워유. 사랑해유!” 나는 어머니를 더 강하게 꼭 안아 주었다.
두근두근, 펑펑 뛰는 것이 느껴졌다. 어머니의 심장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 내 마음이 들어가 있는 듯했다.
의식, 무의식, 기억 그리고 마음이란 뇌에 있다고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분명 내 가슴에있는 것이 확실했다.
어머니의 마음은 바로 내 가슴속에, 내 마음은 어머니의 가슴속에 들어 있을 뿐이다.
나들이 나갔던 어머니의 마음과 멀리 뉴질랜드에서 찾아온 내 마음이 빈집을 꽉 채웠다. 그리고 훈훈하고 밝은 새집이 됐다.
“엄니! 참 말루 그동안 미안했슈. 남풍(南風)이 불어오면 엄니! 내 맘이 멀리 뉴질랜드에서 인도양과 태평양을 넘어 엄니를 보러 바람타고 온 줄 아슈. 엄니! 사랑해유.”
“근-대-, 댁은 뉘-슈-”

소설 끝.

주: 사람의 뇌는 이성, 감성, 충동욕구 그리고 생명의 뇌로 구성된 작은 우주라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사람의 마음은 아주 기교 오묘한 하나님의 마음을 축소해 놓은 것이라고 의학적으로 사료된다. (신경내과 진단)



이 덕 희
피아니스트

선택의 기로에서

'할머니 fighting!!' 하면서 내 방 안에서 방탄소년 춤을 추어 보여주며 cheer up해주고 학교 가는 11살 막내 손녀 딸 예민의 재롱을 보며 고급 보약을 먹은 기분이다.

작년 6월 말 갑작스런 식도암 진단을 받고 진행된 상태다. 눈 앞이 캄캄하며 오, 주님 지금까지 병원 출입 없었고 비타민 등 건강 보충제 이외에는 처방약 하나 먹지 않던 평생을 건강으로 축복해 주셨는데 무슨 불만을 하겠습니까?

북쪽에 살고 있는 딸과 아들네가 이 소식을 듣고는 너무 놀라서 당장 내려왔다.

지난 2년동안에 일어났던 아버지의 탈수증 소동으로 수술 받고 겨우 회복 했는데 이젠 엄마까지….

저 양반은 안절부절 못 하면서 평생 동안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 꼴을 못 보는데 어쩌다 몸살이라도 나서 좀 누웠으면 '당신이 누워 있으면 온 세상이 stop한 것 같애' 하고는 일어나라고 재촉한 사람이니까!

어쩔줄 몰라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우리한테 이런 불행이 닥치지?'

항상 찬양하면서 이웃을 생각하는 당신에게 이런 가혹한 형벌을 하나님이 왜 주실까?'

'여보, 우리만큼 평생을 건강하게 축복받은 이들이 있는지 찾아봐요! 오늘까지의 이 은혜를 감사 해야지요?'

'그래 그건 그렇지!'

짐을 대강 줄여서 아이들이 사는 곳으로 왔다. 아직도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와서 방 하나씩 차지해 공부를 하기에 우리 둘이 함께 들어갈 수는 없고 엄마는 딸네가 맡고 아빠는 아들네가 맡기로 하고 정했다.

우리끼리 살던 LWV가 그래도 대궐이지 운전해서 바닷가에는 10분만에 갈 수 있고 친구들 있고….

그 주의를 맨날 누비던 저 양반은 우선 길을 모르니 답답해 한다.

빨리 스케줄을 짜고 주치의도 정해서 우선 보험을 추가로 바꾸었다.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가 급선무다. 당장 시작하여 한달만에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치루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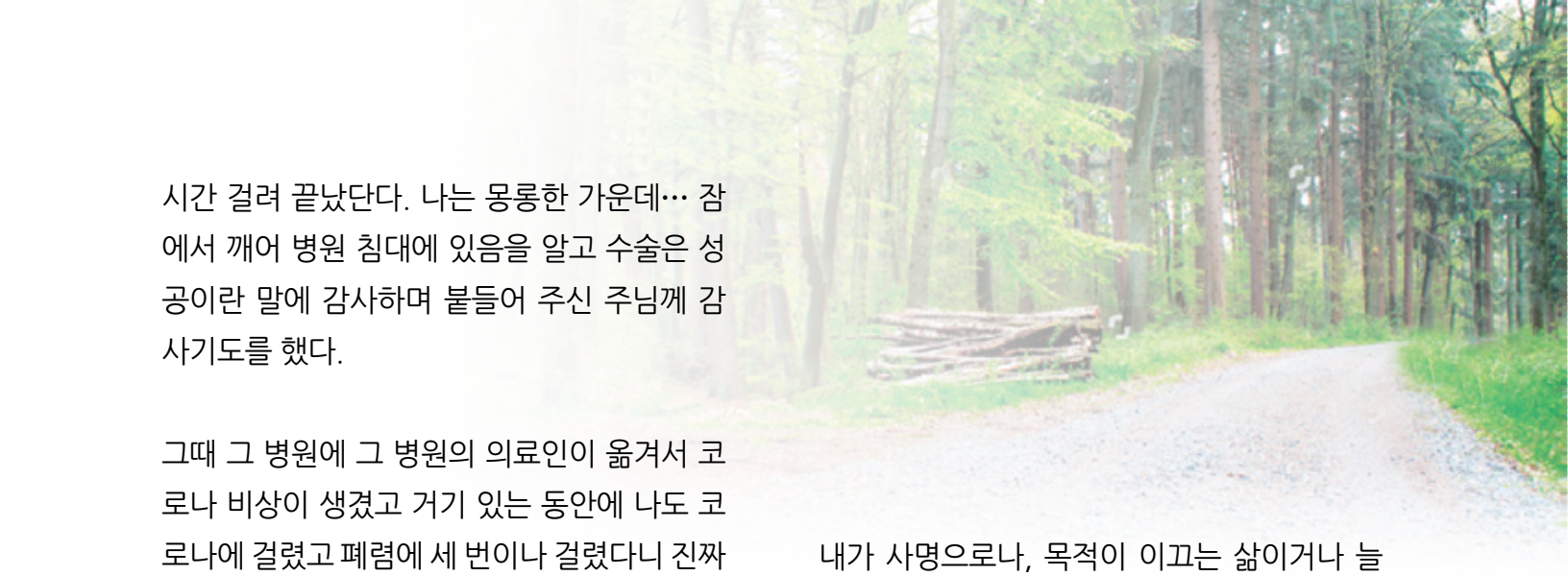


다. 몸 상태도 그만하면 괜찮고….
아이들이 음식이랑 최고로 해서 영양가를 높여 항암치료를 잘 견디게 되고 부작용도 없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마다 다짐하고 부르짖으며 우리 부부는 늘 해오듯이 밤에는 성구암송 시편23편을 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들었다가는 이젠 아들네랑 함께 성경교독하고 잠에 들으니 안심이다.

잘 된 항암 치료 후 검사 결과 90%는 줄어들었다니 이제 수술의 적기라는구나.
마침 아들 친구가 식도외과 의사인데 이 근처 병원에서 일을 한다고 적극 추천을 하여 나같은 경우는 University of Michigan 대학병원에 최고 수술 권위 의사들이 있다고 적극 추천한다.
'어머님 경우는 적어도 5년 이상은 더 생존하셔야 하는데 수술이 정답입니다. 저희 어머니 같으면 수술시킵니다.'
나는 속으로 내 평상시의 소신은 내 몸에 칼 대는 일은 없다여서 수술이란 생각지도 못할 일이고 그대로 살겠다 했더니 '1, 2개월도 보장 못하는 일입니다. 언제 확 다시 퍼질지 모릅니다.'
LWV 친구들도 보고 싶고 몇 달 만에 내려갔다.
만나는 의사 친구 분들은 하나같이 수술 쪽이 안전한 것이니 해야 한단다. 내 속으로는 나의 choice니까 나는 안하고 살면 수술시의 일어날 부작용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다시 아이들과 북쪽에 올라가서 마음을 정해야 하는데 아들과 딸, 특히 손녀딸들은 수술해서 오래 같이 살면서 저희들 결혼해서 애가 낳으면 할머니랑 놀게 한다는….

마지막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살고 싶은 욕망이 더 크게 작용했든지 수술을 하는 쪽으로 마음이 굳혀졌다. 그때부터 미지의 모험을 하는 것이고….

비행기로 6시간 아들이랑 함께 U of M에 가서 그 병원 안에 숙소를 정하고 기다리는 열흘 동안 내 남동생이 셋이나 아직은 살고 있는 그곳, 우리가 젊었을 때 꿈을 키우고 교수로써 가정을 이루어 살던 곳,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에서 우리 아이들 둘 다 거기 병원에서 낳고 자라서 대학까지 나온 곳, 이 대학의 교수로 우리의 젊음을 온통 살았던 그곳 감회가 새로웠다. 22년 옛날 살던 우리 집들도 다 돌아보고 추억이 어린 우리 family의 역사를 보는 듯….
우리 부부는 1983년 그 곳을 하직하고 포항공대를 시작하는 박태준 회장과 감호길 총장에 의기 투합하여 한국으로 떠났고 그때 딸은 대학을 졸업했고 아들은 이제 입학한 것이다.
Dec.1, 2020 새벽에 수술은 시작되어 거의 8



시간 걸려 끝났단다. 나는 몽롱한 가운데… 잠에서 깨어 병원 침대에 있음을 알고 수술은 성공이란 말에 감사하며 붙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기도를 했다.

그때 그 병원에 그 병원의 의료인이 옮겨서 코로나 비상이 생겼고 거기 있는 동안에 나도 코로나에 걸렸고 폐렴에 세 번이나 걸렸다니 진짜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다. 코로나가 너무 심해 일체 면회도 안 되고 아들도 못 만나고 전화로만 통화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서 아무도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우리는 숙연해질 뿐이다. Michigan에 아직 살고 있는 우리 친한 친구 신동화 박사와 최신애 권사의 적극적인 도움이 큰 힘이 되었다.

요양원 삽화

두 번의 요양원에서 최고의 간병 서비스를 받으면서 요양할 무렵 늘 의지한 말씀은 처음부터 이사야 41장 10절인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 손으로 너를 도우 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고통의 구비구비마다 나를 지켜주셨고 오늘까지 버티게 붙들어 주신다. 수많은 친척들과 우리 친구들의 중보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흔들었다.

한번은 꿈길에서나 일어날 듯한 너무나 환상적인 일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내가 사명으로나, 목적이 이끄는 삶이거나 늘 음악으로 온통 머리에 차 있으니 이런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이던가. 내가 서 있는 양 사방이 언덕으로 싸여있고 이상하게 그 언덕들은 크게 구멍이 있었는데 뻥- 하고 나팔소리가 나니까 모든 구멍에서 남자만인지 검은 긴 가운을 모두 입었는데 금가루를 뿌린 옷이라 황금가운을 입고 들어서서 걸어 나오는데 네 군데에서 나오는 무리들이 황금 옷으로 발까지 덮인 가운을 입고 물론 머리도 커버했고 황금 모자로 나오면서 찬양을 부르며 운동장 한 가운데로 오는데 내가 앉아서 파이프 올갠을 타는 음악에 맞춰서 찬양을 하며 걸어 모이는 것이다.

대 장관을 이루고 그 찬양에 숨이 막힐 정도로 압도되어 깨었죠. 잊을 수 없는 대환상이었다!!

내 가슴이 벅차서 터질 것 같았어요.

이 외에도 수많은 아름다운 장면들을 보여 주셨는데 천국을 사모하기에 너무나 족한 일들이다. 지금 와서 내가 욕심을 내지 않고 수술을 안 했더라면 얼마나 행복하게 뛰어다니며 맛있는 것 먹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도 다니고….

이런 부질없는 후회는 나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내가 누리는 오늘의 축복을 감사하며 새 날을 주시고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폐렴으로 손상입은 지금 산소통을 끼고 호흡해도 살아 있음이 행복하다고 우리 여덟 손주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로, mail로, 사진으로, 기도문을 영상으로 해서 보내 주어서 나만큼 행복한 사람도 없음을 느끼고 LWV 우리 동네 친구들 매일 소식 올 때마다 적어보니 50 family가 넘는구나!!
너무나 감사할 일,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는지, 우리교회 목사님은 매주 예배 전 4시간에 기도를 영상으로 해 주신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사랑이 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나도 열심히 그 곳을 그리워하며 우리 부부가 다시 한번 가서 Laguna Beach를 거닐고 파도도 만끽하고 싶어진다. 그동안 소식 보내 주시고 전화로, 꽃으로, 기도로 사랑의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의 마음 보내며 만약에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한번 손에 손 잡고 우정을 나누고 싶고 주님 시키시는 일하며 살다가 부르실 때 얼른 떠나갈 준비를 해야지….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상상해 보면서 행복감에 잠긴다.

한국에 있는 두 여동생의 기도팀과 나의 동창 친구들 미국의 모든 친척들 특히 남동생 조영호 목사와 현심 사모의 헌신을 잊을 수 없이 감사한다.
우리 아이들 친구들까지 멀리서도 꽃을 계속 보내주어 'Flower grandma'라고 간호원들이 이름을 붙였을까?

한번은 간호 보조 중에 소아마비에 걸려 다리를 절면서 간호 일에 너무나 애쓰고 온 마음으로 사랑으로 나를 위해 재활을 교육해 주는데 자기는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고 좋단다. 김치도 좋고. 36세인데 아직 single이고 이 병원 일이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는 내가 너무 감동 되어 그 요양원을 떠나 LA로 돌아오기 바로 전에 그곳 Ann Arbor에 맛있는 한국 집이 있어서 갈비탕이랑 비빔밥을 좋아한다고 해서 주문해서 배달시켜 주었더니 고맙다고 몇 날 동안 자기 양식이라고 고마워하며 Thank you note까지 써서 보냈구나.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서너 번 맛 보았는데 어디든지 누구든지 가슴이 맞닿는 곳에는 포근한 사랑이 있음을 교감한다.
병원에서 어떤 이들은 하기 싫어서 마지 못해서 일을 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care해 주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야말로 천사같이 보이고….

말,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송 두 빈
교육자 · 건축가
〈글: 편집자〉

본인이 들으면 무척 서운해할지 모르지만 〈괴짜〉 한 분이 6년 전 우리 마을에 오셨다.

말이 많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말로 진수성찬을 이룬다. 천 냥 빚도 말로 갚고 태산도 말로 옮긴다. 말이 소나기처럼 주룩주룩 내린다. 노인은 말을 적게 하라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자리에 앉으면 거의 70%는 이분의 말이 전부다. 맥주 한 잔이라도 걸치면 밥 한술도 뜨지 않고 말로 성찬을 차린다. 필요 적절할 때 상대가 말을 꺼내려고 하면 도저히 끼어들 여유조차 없다. 끼어드는 찬스도 기술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졸졸 줄줄 청산유수다.

참 묘하다. 말 많은 사람은 말실수하기 마련인데 문제가 될만한 에라가 거이 없다. 기억력이 좋은 건지, 같은 말을 할 때는 본인이 미리 확인까지 하고 녹음기처럼 토씨까지 똑같은 말을 재탕한다.

"오늘 아침에 산책할 때 아름드리 큰 나무를 유심히 보았지, 저 나무가 자라면서 얼마나 풍상을 겪었을까, 슬픔 괴로움 다 이기고 서 있는 그 그늘 밑에서 새삼스럽게 감사라는 걸 생각했다. 이 동네가 얼마나 좋아? 우린 감사해야 해…." 이런 식이다.

이분이 있으면 어색하거나 무료하지 않다. 미워도 생각나는 사람이다. 골프장에서 일하는 미국 친구들도 이분 이름 샘을 부르며, 모두 어린애처럼 좋아한다. 언제나 때가 되면 잊지 않고 조그마한 선물 로 그들에게 보답 인사를 한다. 근처 동네에서도 대단한 인기다. 이웃집 생일에는 Cake을 들고 가 축하해 준다.

골프를 같이 치면 티샷을 하고 주위를 살핀다. "왜 소리가 없어?" 이 정도 쳤으면 '나이스샷' 소리가 나와야 하지 않나?" 팀들은 뒤늦게 그 말을 듣고 민망해서 '나이스샷'을 외친다.

그는 누구보다도 '나이스샷' 소리를 많이 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 팀은 자나 깨나 '나이스샷'이 유행어가 되어버렸다.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옆 사람이 잘 못 쳐도 격려를 한다. 쉴 새 없이 간섭하고 잔소리를 한다. 그 잔소리는 상대방 칭찬이나 덕담이 대부분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골프를 쉴 때는 적막강산이다. 솔직히 재미가 없다. 누구나 한 번쯤 그를 생각한다.

골프를 잘 쳐도 가르치러 들지 않는다. 개인 코치를 줄여서 '개 코'라고 손가락질을 하기 때문이다.

왕년에 백상배 우승자로 한국에 미주 대표로 출전한 화려한 경력이 있다. "백상배도 실수를 하나?" 하면 그는 활짝 웃는다.

그가 골프를 쉬는 날에도 골프 팀원은 전화로 그를 불러내 맥주를 마시자고 불러낸다. 그러기를 매번, 참 보기 좋다.



그는 미국 사회에서 건축 사업으로 성공한 기업인이다. 워낙 말이 많아서 스스럼없이 인간관계를 잘 맺기 때문이다.
주민이 반대하지만, 청문회를 열어 한인 교회 설립을 도와주고 교회도 지어준다. 말이 많으면 실천하기 어렵고, 말이 많으면 믿기 어렵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그 말도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한다.
여하튼 입담 좋고, 입심 세고, 말발 서는 사람하면, 누구나 그를 첫번째로 손꼽을 정도다. 그는 그로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많은 가난한 학생, 지체부자유로 고통을 겪는 학생의 진학 꿈을 키워주며 지금까지 돕고 있다. 특히 한글 학교 교장을 하면서 교포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정체성을 기르는 데 공헌한 바가 커서 한국 정부로부터 대통령상을 받았다.
코비나 사태로 꽁꽁 얼어붙어 있을 때도 팀원들에게 심심찮게 전화를 걸어 위로해 주는 사람도 바로 그분이다.
낚시를 좋아한다. P 씨가 주마다 한두 차례 낚시터로 모셔간단다. 역시 낚시 이야기로 드라마를 연출한다. 우리는 낚시를 안 하고 안 봐도 비디오, 그 상황을 훤히 안다. 그 낚시터에 오는 일본 사람 이야기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빼놓지 않는다.

대화는 소통이다. 참 중요하다. 그런데 말 많은 곳에서는 침묵은 금이다. 그런데 할 말도 없고, 말재주도 없고, 무심한 사람에게는 말이 양념이고, 약방 감초고 천금이다.
말이 많으면 물에 빠져도 주둥이만 둥둥 뜬다는 말이 있다. 물론 말조심해야 한다. 입은 닫고 주머니는 풀어라는 말이 있지만, 요즘은 혀를 많이 놀리는 사람이 아주 건강하다는 통계도 있다.
여하튼 사람의 세 치 혀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 할 말은 하고 살자. 아픔은 참아도 말은 참지 말자. 고마운 사람에게 사랑한다, 감사하다는 말 많이 하며 살자.
외로운 노인은 사람이 그리워서 말을 많이 한다. 일반적으로 우울한 노인들은 말이 없다. 뒷방 늙은이로 치부된다. 이럴 때 촌철살인의 말 한마디, 기발한 유머와 위트가 절실히 필요한 보약이다.

여보, 고마워



장 원 호
언론학 박사



우리 내외는 1962년 5월 6일에 결혼하여 내년이면 결혼 60년을 맞이하게 된다. 그동안 즐겁고, 어렵고, 힘든 60년 세월을 같이 보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미안하고 고맙다"는 생각이다. 좀더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잘 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일 것이다.
만 84세를 지난 지금 옛날을 되돌아보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

1. 충청북도 시골 방앗간 집 큰아들

인동 장씨 태사공파 34대 장손으로 1937년에 태어난 나는 귀하게 자랐지만,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 읍은 일제 강점기에 연초생산을 주로 하는 농촌이며 초등학교를 마치는 13세까지 세상 물정을 알 수 없는 시골 소년이었다.

다행히, 초등학교를 마치고 우리 마을에서 유일하게 청주중학교에 입학이 되어 청주중학교를 다니면서 새로이 만나는 친구들을 조심스럽게 사귀면서, 생각지도 못한 넓은 세상 특히 미국의 실상을 동경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내 야망을 이루어 보겠다는 신기루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학교를 시작하자마자 김일성의 남침으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44 킬로미터 거리인 음성과 청주를 왕래하면서 학교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나의 장래를 염려하고 밀어주는 할아버지가 승

천하시니, 나의 어설픈 야망은 내가 이룰 수 없는 지경에 빠졌다.
더구나. 나는 네 명의 동생이 태어나서, 아버님 혼자서 경영하는 정미소를 물려받아 동생들을 돌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아버님의 의도를 알 수 있으니 대학도 청주에서 해야 되는 듯싶었다.

2. 불도 부쳐 보지 못하고 사라진 사춘기 사랑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나의 끈질긴 노력을 인정하여 서울의 고려대학교에 입학이 되고 다시 나의 미국 가는 꿈을 위하여 정진해야 된다는 결심이 섰다. 입학성적이 전체에서 두 번째였고 정경대학의 수석으로 안암동 고려대학교 캠퍼스에서 즐거운 시절도 잠깐, 생각지도 안 한 캠퍼스 여자 친구를 알게 되면서 청춘남녀의 사랑의 고통을 크게 겪었다.

감성이 뛰어나고 성숙한 여인을 나는 사랑 할 능력이 부족하여 망설이는 사이에 나의 친구와 불 꽃피는 사랑을 하는 현실을 보아야했다. 가슴 아픈 현실에서 나는 이 두 남녀 친구를 탓하기 보다는 나의 불찰로 돌리고 내가 꿈꾸는 야망을 위하여 정진했지만, 불도 부쳐보지 못하고 사라진 나의 젊은 시절의 낭만을 아쉬워하기도 했다.

이 서글픈 실연으로, 그 후에도 다른 여성들, 특히 친구 여동생들의 끈질긴 애원도 모두 물리치고 4년 만에 고대 졸업장과 군 복무를 무사히 맞추고 운이 좋아 국가 공무원이 된 것은 나의 할아버지의 철학을 이해하고 실천했다고 자부한다.

3. 할아버지의 상선약수 가르침

나는 할아버지를 항상 생각한다. 나의 성장기에 가장 많은 가르침과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분이다. 지금의 나는 할아버지의 분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항상 말씀을 하셨다. 노자의 도덕경 제8장의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구절 속에 인간의 수양의 근본에 대한 이치를 항상 최고의 선(善)은 물(水)과 같다. 물(水)은 도(道)이니 물(水)처럼 세상을 살라고 하셨다.

인생의 아름다운 삶은 물(水)처럼 사는 것, 상선약수 (上善若水)라했다. 물은 낮은 곳을 찾아 흐르는 겸손이 있고, 막히면 돌아 갈 줄 아는 지혜가 있다. 더럽고 구차한 곳도 마다치 않고 받아주는 포용력이 있으며, 어떤 그릇에나 담기는 융통성이 있다. 바위도 뚫는 끈기가 있다. 장엄한 폭포처럼 투신하는 용기도 있다. 순리와 다툼이 없고 결국 물은 흐르고 흘러 만물을 품어주는 바다에 이른다.

정수유심(靜水流深), 고요한 물은 깊이 흐르고 심수무성(深水無聲), 깊이 흐르는 물은 소리가 나지 않듯 고요함 속에 참 진리가 있는 것이다. 내가 바다를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끝없이 펼쳐지는 태평양 바다의 수평선 끝에 아물거리는 아지랑이 뒤엔 고향이 있고, 그 속에 선조의 삶이 도사리고 있다.

4. 사랑과 야망의 결혼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가르침으로, 다시는 여성을 멀리하고 건실한 공무원으로 활약하면서 나에게 분에 넘치는 결혼상대자를 모두 물리쳤다. 공무원으로 처음 시작한 시절에 대구에서 만난, 지금의 귀한 배우자와 아주 건실한 결혼식을 올리고 새로운 살림을 차린 것은 나의 신념으로 밀어붙인 착실한 출발이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몇 번 만나서 나는 자랑스럽게 나의 야망을 늘어놓았다. 청혼하는 총각들의 허망한 야망을 당신은 별로 믿지 않으면서도, 고맙게 받아드렸고, 그 때의 약속이 지금 거의 60년이 지나도록 지켜지고 있다.
1962년도 한국의 실정이 아주 어려운 사항에서 우리 내외는 당시 4급 갑류 국가공무원으로 농촌진흥청 본관 같은 빌딩에서 나는 인사계에 그리고 당신은 생활개선과에 근무했지만, 두 사람의 봉급으로 넉넉하지 못한 어려운 신혼생활을 불평 없이 참아준 당신이 너무 고마웠으나, 한번도 그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한 기억이 없다.

어려운 신혼생활에서 혜경이와 철준이가 태어나고, 나는 미국 유학간다고 헤매는데 단 한 번의 불평을 하지 않고, 우리 가정의 장래는 미국에 있다는 당시로서는 허망하게 보이는 계획을 불평 없이 인정해 준 당신이 너무 고마웠었다.

혜경이가 세 살이고 철준이가 한 살도 되기 전에 세 가족을 처갓집에 맡겨 놓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버렸다. 나를 굳게 믿어 준 당신이 한도 없이 고마웠고 처갓집 장모님의 사랑을 하늘처럼 고마워 하면서도 그 깊은 고마움을 갚지 못했다.
당신의 믿음을 감사히 생각하며, 미국에서 생기는 어떠한 유혹도 물리치고 유학생으로서 어려운 고학생이지만 학업에 전념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의 믿음이 뒷받침 했다. 또 한 번 더 고맙다.

5. 와이프 장학생

1967년 8월 어느 날, 서울에서 전보가 왔다. 당시 영국비행기인 BOAC 항공편으로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당신이 온다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본래 여름방학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타호 호수는 샌프란시스코인들의 카지노 유원지로서 자동차로 네 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이다. 비행장에 일찌기 도착하여 알아보니 당신이 타고 와야 할 비행편이 취소되었다고 한다. 다시 타호 호수로 혼자 돌아가는 아쉽고 아픈 가슴을 달래며, 혼자서 소리높이 노래를 부르며 로키 산맥 꼭대기에 있는 타호 호수를 향해 힘껏 달렸다.

타호 호수에 혼자서 도착하니 동료 친구들이 나보다 더 놀란다. 비행기가 취소되어 다음 비행기로 나흘 후에 온다는 전보는 그 이튿날 받았다. 당시 전화는 해저 케이블로만 되는데 몇 시간씩 예약하고 기다려야 하며,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소리만 지르고 엄청난 요금을 내던 시절이다.

다시 나흘 후에 공항으로 가서 비행장에서 당신을 만났을 때의 우리의 기쁨은 엄청났다. 서로 부둥켜안고 즐거우면서도 대구에 두고 온 두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다시 네 시간의 아름다운 로키 산맥으로 올라가는 드라이브는 마치 제 2의 신혼여행 같았지만, 힘들고 험난한 유학생 생활을 생각하면 걱정도 태산같았다.

타호 호수에서의 일주일 정도 남은 여름방학을 주변 관광도 처음으로 하면서 마치고 다시 오리곤 주 유진으로 오니 우리는 결혼한 대학원생 아파트를 분양받고, 단란한 고학생 살림을 시작했다.
주변에 대만에서 유학 온 중국인 유학생 부부는 두 남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자연과학 계통 박사학위를 하고 있었는데, 대만에서 방직공장을 하는 부유한 집안을 가지고 있었다. 마침 주변에 당신이 온다는 소식을 알고 바로 두 아이들을 보아달라고 약속이 되어 바로 시작 한 가을학기에 당신은 취업을 하게 되니 나는 그때부터 친구들이 "와이프 장학생"으로 불렀다.

마침 두 아이들이 대구에 두고 온 우리 아이들과 비슷한 나이고 당신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으로 아이들 부모보다도 당신을 더 좋아해서 저희들 집으로 데려 가려면 한 동안 몸부림치는 경우가 많았다.
일 년 후에 나는 제 2의 언론학 학사를 마치고 로스앤젤레스로 떠날 때 이 중국인 두 아이들이 매달렸는데, 그 후에 그들 부모가 학위를 마치고 대만으로 가서 크게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 다시 만난 적이 없다.

우리의 세 번째 아이 유진이의 탄생으로 로스앤젤레스로 내려온 나는 다시 남가주 대학교에 언론학 석사과정을 시작하니 다시 와이프 장학생이 되었다. 내가 신문사에 근무하면서, 공부를 했으나 우리 부부의 제일 과제는 대구에 두고 온 두 아이들을 되려오는 것이며 아이들 비행기 값도 비싸지만 다섯 식구가 살아 갈 생활비도 만만찮으니 당신은 다시 일을 시작했다.
나의 고마운 마음은 점점 깊어지고, 우리의 힘들지만 자랑스러운 2년 만에 석사학위를 마치고 박사 학위를 하려고 아이오와주 아이오와 시티로 옮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두 아이들이 오는 수속도 마쳤다.

아이오와에서 박사학위를 시작하면서 두 부부가 살만한 조교 월급을 받았으나 이제 다섯 식구가 된 우리 살림의 엄청난 생활비 때문에 고마우나 부담스런 와이프 장학생 신세를 면하지 못했고, 박사학위를 마치고 미주리 대학교 교수로 부임 할 때까지 고생 한 당신에게 그 고마움을 잘 기억하고 있다.

6. 자랑스러운 교수 부인

미국대학의 조교수는 어느 대학이나 박봉에 혹사당하는 직업이다.
6년 후에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쳐서 부교수 승진과 함께 테뉴어라고 하는 종신직 임명을 받는 것은 그 비율이 30%도 안 되며, 명문대학의 경우는 하늘의 별을 따는 과정이다.

박봉인 나의 급여에다가 박사과정을 하면서 학교로부터 받은 빚도 있으니 당신은 편안한 교수 부인이 될 수가 없었다. 다시 컴퓨터 데이터 처리 공부를 하고 보험회사에 직원으로 취직을 하니 우리 가정의 생활은 학생시절보다 별로 나아진 것이 없으나 내가 부교수로 제때에 승진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도록 당신이 크게 배려하니 나는 다시 한 번 고마웠다.

무척 힘들지만 보험회사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세 아이들이 모두 훌륭한 대학교를 다닐 때까지 보험회사 일을 계속하다가 내가 훌브 라이트 선임교수로 고려대학교에 부임한 1987년에 은퇴사임을 하니 10년 이상 근무 한 경력으로 지금도 은퇴 연금을 받고 있다.

1980년부터 시작된 미주리 대학교의 외국인 연수 프로그램 주임교수로서, 중국의 언론인 연수를 시작으로 한국 언론인 연수를 맡으면서, 박사학위 지도 31명, 그 중에는 19명의 한국인 박사를 지도하고 200여명이 넘는 한국 언론인 연수를 담당하면서 그 들의 가족 특히 아이들을 보살피는 당신의 친절과 노력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들의 고마운 마음은 항상 나보다 당신에게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 오는 언론인은 초창기에는 아이들 때문에 가족을 한국에 두고 왔지만 아이들 미국교육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대부분의 언론인들이 가족과 함께 왔었다. 언론인들 중에는 미국 취재를 한 경험이 있지만, 그들 가족은 미국이 처음이고 더구나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미국 학교나 관습을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수시로 자문에 응해주고 도와주는 당신이 고마웠다.

특히 추석, 추수감사절, 성탄절 같은 명절이나 주말에는 높은 언덕 위에 있는 6백 평 대지에 반 지하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집이 컬럼비아의 노래방이 되었다. 이 노래방 주인은 당신이었고 그 많은 도우미들은 언론인 부인들이었다. 자정이 넘도록 노래를 부르고, 또 미국생활의 즐겁고 어려운 사항들을 나누는 노래방 시간은 미국생활 공부 교실이 되기도 했다. 즐겨 마시던 Cutty Sark Scotch 덕분으로 언제나 더 놀자고 하는 남성들을 쫓아내는 노래방 주인은 언제나 절도가 있어서 반란이 거의 없는 당신의 지도력에 감사하기도 했다.

7. 라구나우즈의 "고위층"

미국대학을 은퇴하고 다시 4년을 고국의 아주대학교에 석좌교수로 마치고 은퇴인으로서 지금 살고 있는 남 캘리포니아의 라구나우즈에 자리 잡으면서 당신과 당신 친구들을 "고위층"으로 불리는 것은 당신의 겸손과 후덕함을 인정하는 것 같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고맙게 살아주며, 이제 결혼 6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보 고마워"이다.

인생을 노래하자



Sophia Choi

유성기를 틀어놓고 차차차
노래 실력 좋아요, 차차차
가수가 꿈이었네, 차차차
'이놈 광대 될래?' 차차차
아버지의 노발대발 차차차
우매, 꿈은 사라지고 차차차
노래 없으면 노잼(No fun at all) 차차차
노래는 꿀잼(Super fun)이야. 차차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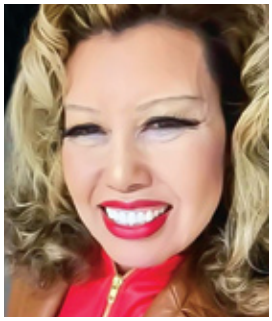
x x x x

무르 익어가는 가을, "시월 어느 멋진 날에" 사랑하는 이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선물하고 싶지 않습니까?
창파에 떠 있는 돛단배를 무대 삼아 후련하게 인생을 노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뭉게구름 피어나고, 파도는 넘실넘실 춤을 추고, 물고기들은 축제를 벌리며 '강강수월래' 원무를 그립니다.
갈매기는 오르락내리락 오선지에 악보를 그려줍니다.
바다는 가요를 싣고 물결 치며 흘러갑니다.
어느 덧 우리 가요반이 세월 따라 두둥실 5년이 지났네요.
가는 세월, 오는 세월, 가요가 있으니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가요는 호수 위의 물결처럼 세월을 잔잔하게 한답니다.
가요는 우리집 꽃밭처럼 웃음꽃이 흐드러지게 피기도 하고 정한의 이슬 방울을 꽃밭에 뿌리기도 합니다.
흘러간 노래 속에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을 알고 싶습니까?
그럼, 가요반에 오셔서 우리 함께 인생을 노래합시다.



여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Root
Broadway Dance Director

라구나우즈에 짐을 푼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지긋지긋하게 4년이란 기나긴 이혼수속이 드디어 며칠 전에 마무리되었다.

"사랑하기에 헤어졌노라"는 노래가 나한테 딱 어울리는 것 같다.

서로 사랑했기에 만난 유대인 남편이지만, 결국 나는 그이를 떠나 혼자 있고 싶었다.

살면서 나는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조차 자유가 없었다.

집에 두고 꽃을 보듯이, 그이의 옆에 앉아서 같이 TV 보고, 같이 스포츠 게임 보고, 같이 얼굴을 마주 보고 있어야만 했다.



외출하고 있을 때는 한 시간에 한 번씩 전화통에 불이 났다.

이혼을 신청하고 이사를 나왔지만, 그이는 다시 돌아와 살 것을 요구했다. 많은 돈을 주겠다고 사정했다. 거의 6개월을 생각하다가 끝내 많은 돈은 필요 없으니 이혼 합의서에 도장 찍기로 했다.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야지 돈은 다 소용이 없었다. 돈 가지고 사랑을 사려는 그이가 아주 미웠다.

이후로 조용한 라구나우즈에 거머리처럼 딱 붙어살기로 마음 먹었다.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여기에 이사 왔을 때 일주일이 지난 후 어느 분이 "여기는 왜 이사 왔느냐"고 물으며 여기서 살 타잎이 아니라고 한국 사람 조심해야 한다고,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매장된다고….

나는 너무 놀랐고 뭐가 한국 사람이 무서워서 조심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4년 동안 살면서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모두 미소 띤 얼굴로 인사하며 내가 만난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모두 아주 조용하고 좋은 분들만 눈에 띄었다.

누구도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계속 말한다.

"조심하라고"

"뭘, 조심해?"
사실 주관이 강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에게 조심하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고 동요되지 않는다.
이웃을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고 진실로 대할 때 그들은 더 이상 적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라는 한국 속담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4년 전 김일홍 한인회 회장님이 브로드웨이 댄스를 하도록 동아리 문을 열어 주셨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아직도 지도하고 있지만, 모든 회원이 열성적으로 동참해 주어서 나도 열정과 모든 에너지를 회원님께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다. 언제나 회원들의 정신력에 정말 감사한다.
한국에서 무역회사를 전전하면서 신용장을 들고 무역회관에 들락거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 나이 68세, 한국 나이로 69세 아닌가.

KIST(KAIST) 외자, 자재과에서 과학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인기를 한 몸에 받다 보니 여동료나 선배들한테 엄청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버티다 못해 명동의 무역회사 비서로 들어가게 되었다.
큰 회사들은 부장 검사를 끼고 엄청난 부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눈을 딱 감고 내 할 일만 하고, 남의 일에 감 놔라 배 놔라 외칠 처지가 아니었다.
이제 여생을 아름답고 조용한 낙원에서 사랑과 따뜻한 마음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
부를 누리고 상류 계층에서 온갖 영화를 누린다 해도 지나고 보니 역시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천부인권 사상을 가지게 되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우리는 미국에서 풍족하게 살고 있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라구나우즈에서 사는 것도 인연이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아껴주자. 서로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자.
모든 동아리 선배님들이 길을 열어 주어 우리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
특히 한인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절대 비판과 빈정거림은 삼가야 될 것이며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우리는 잊지 말자.
참을 수 없는 구수한 냄새 풍기는 어머님의 된장찌개, 육개장,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래기 무침, 호박잎에 깡 된장, 된장에 박은 깻잎, 시원한 동치미 국물에 냉면.
우리 순박한 고향의 맛, 향수에 젖은 어머니의 손맛을 잊지 말고 아름다운 여생을 라구나우즈에서 멋지게 지내보자.

해는 기울고 | 김규동

가는 데까지 가거라.

가다 막히면 앉아서 쉬거라.

쉬다 보면 새로운 길이 보이리.

7부 탐구의 세계

달빛이 밝으면 | 한자영
통일은 누가 하나요! | 김선하
치매야 어디갔니? | 손기용
Blue Zone과 장수촌 라구나우즈 | 이영범
'이슬람 바로보기'란 책을 읽고 | 강홍식
시니어타운 골프치는 여인들 | 박승원

LWV
Horseback
Riding







한 자 영
간호사

달빛이 밝으면

달빛이 밝으면 깨워 주시는 분
소나무 사이로 달님이 보입니다.
모두 잠들어 아무도 보아 주는 사람이 없는데
해님의 빛을 반사하여 하늘에 떠 있습니다.
달빛으로 생명을 자라게 하는 힘도 없고
열매를 살찌게 하는 능력도 없지만,
조용히 하늘에 떠 자기 본분을 다하는 달님
그 달빛을 보라고 깨워 주셨나이다.
옥수수를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해님
수박을 크고 달게 익혀 주시는
해님과 그빛과 열를 견주지 않고
조용히 밤 하늘에서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하는
아름다운 달님을 보라고 저를 깨워 주셨습니다.
정이 많으시고 자상하신 아버지,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거운 듯 정다운 듯 달님은 아름다워요.
당신을 찬양하며 사랑 바치옵니다.



통일은 누가 하나요? (제1편)

김 선 하
Marketing

머리말

통일은 말 뿐만이 아닐 텐데 남쪽 사람들은 햇볕 정책, 북쪽에선 고려연방제(高麗聯邦制)…. 소리만 요란하고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어 이제는 모두 헛소리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요?

메마른 그 땅에서, 오늘 우리 동포들이 남에서나 북에서나, 그리고 먼 타향(他鄕)에서도 다들 조국사(祖國史)에의 부작위범(不作爲犯)이 돼 버리고, 태어날 자손들에게는 모두 배신자(背信者)가 되어 헤헤거리면서, 무심하게 살아들 가지만, 모두가 내일을 포기(抛棄)해버린, 어수룩한 사람 무리가 된 것 같아요.

1. 통일의 명분(名分)

요즘 통일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때가 오면, 통일이 제 발로 굴러들어오리라 생각하나요?
아무도 안 하겠다면, 통일은 시궁창에 버릴 폐물(廢物)이란 말인가요?

문 안의 사람들이 안 하겠다면 문 밖에 나와 사는 우리 교포들은 어떨까요?

멀리까지 갈 것 없이, Laguna Woods에 사는 자랑스러운 우리 교포들이 전 세계에 빛낼 횃불을, 먼저 만들어 나누어 줄 수는 없을까요?
새 통일론이 성공할 확률(確率)은 우리 교포들 쪽이 한결 높을 것 같은데요.

나라도 없이, 학살(虐殺)과 핍박(逼迫)을 견디면서 전 세계에 깔린 유대인 교포(僑胞)들을 규합(糾合)하고 조직한 다음, 끝내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세우고, 오늘도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힘을 모아, 돈을 모아 조국에 충성을 다하는 유대인들.
독일서는, 정부는 마다하고, 평민(平民)들이, 맨주먹으로 30년 묵은 돌담을 허물고 그 구멍을 빠져나가, 눈물로 서로 껴안고 고함치며 독일 통일에의 빛나는 문을 열었었지요.

우리도, 그들처럼, 지금부터라도 일을 꾸미고, 그 일을 실천해 갈 수는 없을까요? 공산주의도 반공주의도 말고, 거창한 민족통일의 길을 힘차게, 함께, 걸어 나갈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달리 할 사람이 없어요.



2. 통일에의 동기부여(動機附與)

통일이 우리 하나 하나에게 짐짓 무엇이란 말인가요?

70년 전, 내가 싸웠던 이름 없는 고지(高地)에서 남북의 내 손자, 내 曾孫(증손)들이 오늘 이 시각, 총칼을 맞대며 새 전쟁, 새 학살을 꾸미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천하에 몹쓸 비극을 되풀이하면서, 자가비판(自家批判) 한마디 없이, 오늘을 빈 깍지마냥 살아가야 하는가요.

6.25 때, 내 곁에서 죽어 간 전우(戰友)가 피를 토하듯 외치던 말 한마디, "남북의 우리 자손들에게, 다시는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을 유산(遺産)으로 남기지 말자, 이것이 통일에의 참뜻이요 골자이며, 우리에게 이보다 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슨 변명으로, 무슨 망념(妄念)으로, 명명백백(明明白白)한 이 사리(事理)를 눈앞에 두고넋 잃은 사람처럼, 겁쟁이들처럼, 우리는 통일을 피해가며 살아야 한단 말인가요, 네

이북은 이미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남엔 그 잘난 민주주의도 이젠 혼미(昏迷)스러운데, 그런 게 우리에게 뭐 그리 대단하단 말입니까?

동족을 서로 죽이고, 망치겠다는 통곡할 슬픈 운명을 눈앞에 두고, 어느 놈이, 어느 세력이 두려워, 우리는 말도, 시늉도 못 하며 오늘을 산단 말인가요, 네

3. 우리가 사는 현주소(現住所)

통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주소를 건네 볼 때 좋은 일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아 탈입니다

남북의 정치집단들, 그 안팎에 살고 있는 우리 동족들, 우리를 철통처럼 에워싼 방대한 외세(外勢)들, 어느 하나도 통일을 꾸려 낼 조짐을 가진 존재가 지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통일의 길은 그처럼 멀고 험준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비극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信念)을 움켜쥐고 우리 힘과 머리를 모아 목숨을 걸고 꾸준히 일을 꾸려간다면 못 다할 길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악몽(惡夢)처럼 깔린 무수한 난제(難題)들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과감하게 대처할 용기와 두뇌와 전술(戰術)이 지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우리 교포들이 내 사는 마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새 통일논의 명분(名分)과 목표, 그리고 뚜렷한 방법론(方法論)을 명시해 주면서 치밀한 조직과 강령(綱領)을 바탕삼아 우리 새 통일운동을 하나의 독립된 제3 세력으로 키워나가야 하는 게 아닙니까?

전 세계에 사는 우리 교포들은 저들 사는 나라 언어(言語)에 능통하고, 그 나라 이웃과 사회적, 정치적 명사(名士)들과 친분도 유지하며,본국 통치자들의 불쌍한 정치 게임을 멀리 떠나, 우리 통일문제를 세계사(世界史)의 일환(一環)으로 올려 새롭고 값진 전 세계의 도움을 동원(動員)할 수는 없을까요?

4. 새 통일 운동의 선구자(先驅者)

통일은 누가 합니까?
우립니다.
전 세계에 깔린 우리 교포들입니다.

우리가 지향(志向)하는 새로운 목표는 무엇일까요?
통일된 우리의 새 나라에선 자손들이 동족상잔(同族相殘)을 모르고, 세종대왕 시절의 격양가(擊壤歌)를 부르면서, 풍요하고 떳떳하게 자라주며, 새 나라 모양은 영세중립국(永世中立國)으로 한사군(漢四郡) 이래 4천 500년, 되풀이하는 외세침범(外勢侵犯)을 영원히 벗어나서 세계평화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꺼이 이바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 2021년 6월, Laguna Woods에서 —

(필자의 말씀) 여기 담은 글월은 새 통일논의 서문(序文)에 불과합니다. 이의 현실적 방법론(方法論)과 행동강령(行動綱領), 그리고 조직론(組織論)은 제2 편에서 자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냐, 어디 갔니?



손 기 용
의사

나는 은퇴 후 책도 읽고, 컴퓨터도 TV도 보고 매일 걷기도 한다.

어려서 축구와 야구를 했지만, 다른 뇌 손상을 줄 운동은 하지 않았다. 나이가 들며 골프나 정구 등의 운동도 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몸무게도 정상이다. 무엇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리고 지난 30-40여 년 동안 혈압도 높았고, 콜레스테롤(cholesterol)도 높았지만, 계속 약을 복용하며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정상으로 유지하고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나이 80이 넘으며 기억력이 점점 감소한다. 예를 들어 길을 잘 못 찾거나 길을 찾는데 늘 다니던 길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낯설게 느껴진다. 언어기능이 손실되는 것 같다. 평소에 늘 쓰던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거나 물건의 이름도 생각나지 않는다. 반면에 5년 연하인 아내는 그렇지 않고 더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

샤워를 2-3일에 한 번씩 하는데 언제 마지막 샤워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차고(garage)에서 무언가 가지고 오려고 갔는데 더러 잊어버린다. 중국 음식점에 가 짬뽕과 자장면을 구별하지 못한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 누군지 안다.

나의 아버님과 형님은 55세 이전에 돌아가셨고 치매는 없었다. 어머님은 77세에 돌아가셨는데 70세가 넘으며 기억력이 썩 좋지 않으셨다. 하지만 현재 81세와 78세의 여동생들은 아직 건강하게 살며 치매의 증상이 없다.

나는 소아과 의사였기에 '건망증'에 대해 잘 모르지만 문헌을 찾아보고 '치매'에 대해 알고 싶어졌다. 내 나이에 혹시라도 예방할 수 있을까?

치매의 원인 및 종류

치매는 기억력, 사고방식 및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증상의 그룹으로, 일상생활을 방해할 수 있다. 그것은 특정 질병이 아니고 몇몇 다른 질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알츠하이머병은 노인에게 진행성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치매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치매는 신경 세포의 손상 또는 손실 및 두뇌에 있는 그들의 연결에 기인한다. 손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 뇌의 영역에 따라, 치매는 다르게 사람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른 증상을 일으

킬 수 있다. 치매는 하나의 질병명이 아닌 다양한 증상의 묶음을 말한다.



1) 퇴행성 치매인 알츠하이머(Alzheimer)병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주로 노인에게 생기지만(약 2/3), 40-50대에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나이 60이 넘으면 5명 중 하나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린다.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유전성이 많고, 뇌세포의 손상 속도가 빠르다. 나이가 들거나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뇌세포의 기능 저하가 원인이 되어 나타난다. 치매환자의 2/3는 여자다.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증상은 운전하는데서도 나타난다. 더 서서히 운전하고, 밤에는 운전을 적게 하고, 전체적으로 운전을 많이 하지 않는다. 가는 장소도 적어지고, 주로 아는 길을 운전한다.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뇌에 플라크와 엉킴이 있다. 플라크는 베타 아밀로이드에 불린 단백질의 덩어리이고, 엉킴은 타우 단백질로 구성된 섬유다. 이 덩어리가 건강한 뉴런(neuron, 신경 단위)과 그들을 연결하는 섬유를 손상시킨다고 생각된다.

2021년 6월 신문에는 지난 결혼을 기억 못한 치매 남편 피터(56)가 아내 리사(54)와 두 번째 결혼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피터는 2018년에 조기 발생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급속히 기억을 잃어 갔다. 그는 어느 날 TV에서 결혼식 장면을 보고는 자신의 아내 리사에게 “우리도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다. 물론 그는 첫 번째 결혼도, 두번째 청혼도 기억하지 못했다. 리사는 그들의 사랑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지난 4월에 가족과 친구들의 축하로 재혼을 했다. 이때 피터는 매우 행복했다. 현재 그는 그녀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곁에 있어 줘 고맙다”는 그의 인사만은 여전히 생생하다고 한다.

2) 혈관성 치매인 뇌혈관 장애와 뇌졸중

혈관에 쌓인 노폐물 및 혈전으로 인하여 뇌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급격한 뇌세포 파괴의 원인으로 나타나며 뇌혈관이 막혀 뇌경색이 진행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 건강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흔히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HDL(High-density lipoprotein) 콜레스테롤과 LDL(Low-density lipoprotein) 콜레스테롤로 나뉘게 된다. HDL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좋은 콜레스테롤이고, LDL은 나쁜 영향을 주는 나쁜 콜레스테롤로 분류한다. H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압 조절, 독성 단백질 억제로 혈관성, 알츠하이머 치매를 방지한다. LDL 콜레스테롤이 과다하게 몸에 쌓이게 되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각종 혈관질환의 원인이 된다.

3) 전두엽 치매(Frontal Lobe Dementia)

뇌의 전두엽(frontal lobe)은 뇌의 앞부분이며 주로 감정조절을 담당한다. 술을 마시면 가장 먼저 손상되는 기관 중의 하나인데, 이의 손상

으로 감정조절이 안 돼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 변화가 있다.
외상이나 종양으로 손상되면 인격 변화가 나타난다. 이 외에도 부적절한 행동, 가성 우울(pseudo depression) 등의 원인도 된다. 외상성 뇌 손상(TBI-Traumatic Brain Injury)은 수시로 반복적인 두부 외상에 기인한다. 권투 선수, 축구 선수 또는 군인과 같은 사람들은 이를 경험할 수 있다. 부상 뇌의 부분에 따라, 치매 징후와 우울증, 폭발성 기억 상실을 일으킬 수 있다. TBI는 또한 파킨슨병을 일으킨다.

4) 측두엽 치매(Parietal Lobes Dementia)
뇌의 옆 부분이며 주로 언어(특히 좌측 측두엽)를 담당한다. 이곳의 언어 중추가 망가지면서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말이 어눌해지는 경우가 많다. 성격의 변화 및 기억력 손실이 따른다.

5) 루이체 치매(Louise Dementia)
파킨슨(Parkinson)병 환자에게서 잘 나타나며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단백질 덩어리(루이體, 루이 body)가 생기는 질환이다. 퇴행성 치매 다음으로 치매 발병률 2위(전체 치매의 10~25%)를 차지하는 흔한 치매이며 알츠하이머병의 증상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여러 종류의 치매 중 루이체 치매와 파킨슨병 치매는 특징적으로 '파킨슨 증상'이라 불리는 움직임의 장애가 같이 나타난다. '파킨슨 증상'은 파킨슨병이 있을 경우 나타나는 손의 떨림, 행동이 느려짐, 뻣뻣한 움직임, 종종걸음 등의 증상을 함께 묶어 부르는 이름이다. 치매가 파킨슨 증상보다 먼저 나타나면 루이체 치매, 치매가 파킨슨 증세보다 나중에 나타나면 파킨슨병 치매일 가능성이 높으나,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통 70대에 증상들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다. 약물치료에 반응이 좋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중요하다.

[치매 증상]
치매 초기증상으로 흔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길 찾기 장애의 경우 늘 다니던 길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거나 혼자서 어딜 찾아가지 못할 정도의 증상이 나타난다.
평소에 늘 쓰던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거나 물건의 이름도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경우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 어휘가 생각나지 않아 '그것' 등으로 표현하는 일이 많아진다. 자발적으로 말하지 않으려 하고 매사에 수동적이 된다.

나이가 들면 손과 발이 생각처럼 따라주지 않고 걸음이나 행동이 느려지는 외에도 실면, 어지러움 등 증세가 나타난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등 판단력이 떨어진다.
심리적 변화, 성격 변화, 우울증, 불안, 부적절한 행동, 망상증, 동요, 환각, 이유 없이 급격한 감정 변화로 의욕이 떨어진다.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고 성격이 충동적으로 변한다. 의심이 많아지고 시비를 거는 일이 잦아진다.
가족력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진단에 흔히 실험실 테스트 또는 이미징이 필요하다. 뇌 스캔 CT나 MRI는 출혈, 종양 또는 수두증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예방법]

1) 바둑, 장기, 퍼즐, 전화번호 외우기 등 뇌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뇌를 훈련 시켜 주는 방법이 있다. 책이나 글을 많이 읽고 쓰자.
2) 각종 사회 모임을 꾸준히 해나간다. 자신에게 맞는 계 모임, 여행 모임, 동창회 등 사회모임을 유지하면서 사회활동을 지속시킨다.
3) 평소 꾸준히 유산소 운동 및 등산 등 건강관리에 신경을 씀으로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를 활성화 시킨다.
4)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먹는다. 치매 예방에 좋은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 DHA(Docosahexaenoic acid)가 풍부한 치매 예방약. 고등어, 연어 등에 많은 오메가 3, 브로콜리, 키위, 블루베리, 자두 등도 뇌에 좋다.
5) 평소 스트레스를 줄이고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6) HDL Cholesterol의 수치를 높이자.
7) 항상 낙천적으로 살자.
8) 약국에 가면 'Prevagen'이라는 약을 살 수 있다. 성분은 Apoaequorin과 Vitamin D인데 기억력을 상승시킨다고 한다.
9) 치매와 물: 치매는 물을 잘 마시지 않아 생기는 병 중 하나다. 물이 부족하면 먼저 피부가 늙어 가고, 5-60대에는 장기가 늙는다.

최종적으로 물이 부족하면 뇌에 물 공급이 잘 되지 않고, 뇌가 아프기 시작한다. 늙어서 죽을 때는 몸에 수분이 거의 빠져나가 양자 파동이 없을 때 죽는다. 물은 잘 마시면 치매 예방도, 치매도 늦출 수 있다.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으로 건강하자.

(1) 온수는 보약

우리가 상온(常溫)의 물만 마셔도 몸은 몰라보게 건강해진다. 냉수는 체온을 떨어뜨리는데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은 떨어진다. 냉수는 소화, 혈액순환, 효소의 활성 기능을 떨어뜨린다. 냉수는 체내 산화를 촉진시켜 노화를 촉진한다.

암세포는 저체온 상황에서 활성화되고 고 체온에서는 얼씬도 못 한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일단 몸이 불덩이가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몸이 스스로 알아서 체온을 높여 몸속에 들어온 병균을 죽이거나 퇴치하여 살리려는 생명의 자생능력이다.

몸이 따뜻해지면 더 이상 지방 비축이 필요 없구나라고 인체가 스스로 판단해 음식을 과다 섭취하지 못하게 하거나 몸속의 지방 비축을 스스로 제어한다.

(2) 뜨거운 파인애플 물

베이징 육군 종합병원의 천희렌 교수는 만약 이 소식을 받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10부를 전달한다면, 최소한 한 명의 목숨은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뜨거운 파인애플 물은 당신의 평생을 살릴 수 있다. 뜨거운 파인애플 물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 얇게 자른 파인애플 2~3조각을 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알칼리성물이 되며, 매일 마시면 아무에게나 좋다. 뜨거운 파인애플 물은 항암물질을 분비하는데, 이것은 의학에서 가장 최근에 개발된 효과적인

암 치료법이다. 뜨거운 파인애플 과일은 낭종이나 종양을 죽이는 효과가 있다. 모든 종류의 암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뜨거운 파인애플 물은 알레르기의 결과물인 신체의 모든 세균과 독소를 죽일 수 있다.

또 파인애플 주스에 들어 있는 아미노산과 파인애플 폴리페놀은 고혈압을 조절할 수 있어 뇌혈관의 막힘을 방지하고 혈액순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혈전을 줄일 수 있다.

10) 혀 운동: (http://m.blog.daum.net/jokh1125/15864061)

80세에도 치매 걸리지 않는 비법이 있다는데 위를 클릭해서 볼 수 있다. 과학자들이 지원자 8천 명을 2조로 나누어 한 조는 아침, 저녁으로 혀 운동을 견지하게 하고 다른 한조는 특별히 운동하지 않게 했다. 6개월 후, 혀 운동을 견지한 팀은 그렇지 않은 팀보다 뇌세포가 뚜렷하게 활성화되었고 문제 처리 반응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 혀를 밖으로 내민다.

혀끝에 잡아 늘이는 감각이 있을 때까지 혀끝을 최대한 밖으로 내밀었다가 다시 입안으로 당겨 말아 넣는다(卷起). 이렇게 10번 반복한다.

(2) 혀를 돌린다.

혀를 입안에서 천천히 최대한 크게, 순시침 방향으로 10번 돌렸다가 다시 역시침 방향으로 10번 돌린다.

(3) 혀끝으로 이를 누른다.

혀끝으로 상악을 10초간 눌렀다가 윗니와 아랫니의 바깥쪽, 아랫니의 안쪽을 10초간 누른다.

[보건복지부의 '치매 예방 수칙 333 법칙']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치매 인구로 정부에서 예방수칙을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1) 3권 (즐길 것)

(1) 운동: 1주일에 3번 이상 걷기

일상에서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자.

(2) 식사: 생선, 채소를 먹고, 싱겁게 식사하기.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싱겁게 드세요. 식사를 거르지 말고 골고루 챙겨 드세요. 뇌 기능에 좋은 호두, 잣 등 이 견과류는 뇌 기능에 좋다.

(3) 독서: 부지런히 읽고 쓰자.

2) 3행 (챙길 것)

(1) 건강검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정기검사.

(2) 소통

지인과 자주 만나기. 가족, 친구와 만나고, 단체 활동과 여가 생활.

(3) 치매 조기발견

매년 보건소에서 치매 검사받기. 그리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3) 3금 (참을 것)

(1) 절주: 술은 한 번에 3잔 이하 마시기.

(2) 소통: 담배 끊기.

(3) 뇌 손상 예방

머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자. 머리를 부딪쳤을 땐 바로 검사를 받자.

4) 하나 PLUS

*스트레스 방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3권 3행 3금이 전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치료방법]

확실히 알려진 치료법이 없는데 질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중증인 경우 긴급 치료를 권한다. 약물치료는 뇌의 아세틸콜린을 증가시켜주는 것과 뇌세포를 보호해 주는 클루타메이트(glutamate) 억제를 도와주는 약물이 사용되고 있다. 구강 내 섭취하는 타입과 피부에 붙이는 패치 타입 두 가지 타입으로 선택치료가 가능하다.

2021년 7월에는 FDA에 의해 논란 끝에 알츠하이머 약인 “Aduhelm”이 승인되었다. 이 약은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되는 뇌의 해로운 단백질 덩어리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제거하는 원인 치료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약의 효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약을 투여하면 아밀로이드가 일시에 제거되면서 미세한 뇌혈관을 손상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출혈도 할 수 있다. 현재론 값이 비싸다. 1년에 환자 1인당 약 $56,000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에는 약 6million 환자가 있으니 1년에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다.

비약물 방법으로는 뇌의 활성화와 안정에 도움을 주는 독서, 서예, 노래 부르기, 꽃꽂이, 유산소 운동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신계행의 노래〉

‘건망증은 내 친구(2006.9)’가 위로가 될런지 모르겠다.

차 한 잔 마시려고 물 끓였는데,
주전자 다 태우고 속만 끓였네.
저녁상 차려놓고 밥 퍼려 하니
전기밥솥 스위치를 안 눌러놨네.
불편한 일 황당한 일 많이 겪지만
너무 많은 걸 기억해도 다칠 수 있어
근심 걱정 슬픔 미움 잊게 해주는
건망증은 내 친구 나의 동반자
복잡하고 바쁜 세상 기억할 건 많은데
생각이 안 난다고 그게 병은 아니야
나이하곤 상관없어 누구라도 겪는 일
귀여운 건망증과 함께 살아요.

Ref:
1) Computer
2) 중앙일보
3) Mayo 클리닉
Dementia - Symptoms and causes. https://www.mayoclinic.org/diseases-conditions/dementia



Blue Zone과 장수촌 라구나우즈 (65+30=95+6=101)



이 영 범
사이콜로지스트

라구나우즈 (Laguna Woods Village, 약자로 LWV) 시는 18,000명의 55세 이상의 노인들이 모여 사는 남가주에 위치한 유명한 노인촌이다. 이곳은 76명의 100세 이상의 노인들이 살고 있는 장수촌이기도 하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며 이곳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모르고 산다.

미국인 댄 부에트너(Dan Buettner) 는 기자 출신으로 건강과 장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 댄은 National Geography 잡지사의 후원을 얻어 세상을 답사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5개 마을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청색지역 (Blue Zone)이라 이름하였다. 그가 선정한 5개 마을은 일본의 오끼나와 (Okinawa), 이태리의 사르디니아 (Sardinia)와 희랍의 아카리아(Ikaria) 섬과 중남미에 위치한 코스타리카의 니코야(Nicoya) 반도이다. 그리고 유일한 육지의 도시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로마 린다(Loma Linda)시이다.

댄은 2008년 이후 청색 지역을 바탕으로 한 건강과 장수에 연관된 저서를 현재 2021년까지 무려 7권을 출판하였다.





장수의 비결 9 가지

생활 스타일이 중요하다.

부에트너는 세상을 2년 탐험한 뒤 그의 첫 번의 저서 "청색지역-9가지 장수의 지침" (Blue Zones : 9 Lessons)을 통해서 장수는 유전이라기보다는 생활 스타일이 더 큰 몫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관찰한 장수에 기여 하는 생활 스타일 9 가지는,

1. 움직이는 것(운동)
2. 아침에 깨어 날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
3. 자기만의 쉬움(Relax)의 방법이 있어야 한다.
4. 적게 먹는다. 위(Stomach)는 80% 만 채운다.
5. 육식을 적게한다. 야채와 과실 곡식 등이 주요 식품이었다.
6. 술은 한두 잔에 그친다. (로마린다는 예외 였다).
7. 믿음 생활. 어는 종교 종파에 관계 없이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생활
8. 사랑의 힘. 가족을 제일로 알고 사는 삶
9. 좋은 인간 관계를 유지히며 좋은 이웃과 끈끈한 친구가 중요하다.

부에트너는 이 Blue Zone의 9가지 생활 스타일을 미국의 도시인에게 장려하면 국민 건강과 복지에 큰 영향이 미칠 것을 생각해 보았다.

섬 마을의 풍습과 식생활

대표적 청색 지역의 섬 사람들의 생활을 그리스의 아케리아 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곳은 쓸만한 항구가 없어 세계 2차대전까지 거의 문명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었다.

여기 인구는 9,000명에 이르는데 90세 이상의 인구가 30%로 평균 수명이 유럽 사람들보다 10년이 더 길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80세가 넘도록 활발한 성생활을 한다.

‘이슬람 바로보기’란 책을 읽고



강 홍 식
의사



지난 2021.08.15 우리나라 해방 76주년 기념일에 아프간이 테레반의 승리로 20년간 긴 전쟁이 끝났다.
자유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소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근거지를 박멸하겠단 미국의 의지는 좌절되었다.
아프간 카불 비행장에 수 많은 탈 아프간 난민들의 소란을 티비로 보았다.
10년전 ‘이슬람 바로보기’란 책을 읽고 써 둔 글 생각이 나 다시 읽어 본다.

♡...‘이슬람 바로보기’란 책을 읽고...♡

모하메드는 570년 메카의 명문 상업 귀족인 쿠라이시 족 하심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아둘라는 그가 출생하기 전 여행 중에 사망했고 그의 어머니는 그가 6세 시 사망했단다. 그 후 할아버지가 양육했었는데 그 할아버지 마저 그가 8세 시 사망해 그의 삼촌이 키웠답니다. 12살에 대상으로 일하던 그의 삼촌을 따라 시리아에 갔다가 네스토라우스 파 기독교 사제 모하메드를 만났는데 그가 모하메드의 어깨에 있는 모반을 보고 이 아이가 우리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단다.

이 네스토라우스 파 기독교는 431년에 에베소 교회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기독교 종파인데 동쪽으로 이동해 포교 활동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가 모하메드에게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예언자를 죽이니 그의 모반을 남이 못 보도록 가리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모하메드가 유대인을 두려워하게 되었답니다. 그가 25세 시 대상단의 리더가 되었고 15세 연상인 대상단 소유주 하디자라는 과부와 결혼 하였답니다. 그는 아내 하디자의 외삼촌 메카 의 종교 지도자 와라까에게 정신적 영향을 많이 받았답니다. 와라까는 에비온 파 기독교의 사

제였었는데 이 에비온 파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파였습니다. 결혼으로 순식간에 재벌이 된 모하메드는 장사에서 손을 떼고 깊은 명상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모순성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삼촌이 카바 신전 관리인이었음으로 우상 숭배의 모순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1년 날자와 동수의 360개의 우상이 있었고 그 중 알리가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아랍 부족 간의 고질적인 문제가 부족 간의 다른 우상 숭배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리신 하나만 섬기는 유일신으로 아랍부족의 단결을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610년 그가 40세 때 산 동굴에서 명상을 하는 중 천사 가부리엘의 계시를 받고 문맹 이었던 그가 글을 깨우치고 이슬람교를 창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개종자는 그의 아내 하디자였고 그의 교리는 유일신이고 신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부족장" "신관" "군사지도자" 그리고 "중재자"의 네 기관으로 조직되었습니다. 교세 확장으로 비 무슬렘과 전쟁 시 적에게 등을 보이고 도망하는 자는 지옥불에서 타 죽을 것이고 비 무슬렘과 싸우다 죽으면 천국에 올라가 70명의 처녀에게 영접을 받는다고 교인들을 회유했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국가를 형성하고 점점 왕성해 기독교국인 비잔틴을 멸망시키고 아랍지방 이외 구라파까지 침투한 때가 있었습니다.

종교란 신 또는 초인간적, 초자연적 힘에 대해 경외, 존숭, 신앙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거기에 인간 간의 배려, 협조, 사랑과 용서로 선하게 평화스럽게 살아야 된다고 믿는데 모슬 럼들은 자기집단이 아닌 사람을 적대시하고 그 집단에서 이탈을 하면 처참히 보복을 하니 어찌 종교라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년전 여행중에 류모세 저 '이슬람 바로보기'란 책을 읽고 제 느낌을 적어 보았습니다. 그 책에는 모하메드의 출생, 성장, 이슬람교 창시 등이 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랍 역사와 변천을 사실적으로 믿을만하게 서술한 책이었습니다. 제가 오하아오 강력범 형무소 정신과 자문의로 근무해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종교의 자유란 이유로 형무소에서도 모슬램들의 예배를 허락합니다. 형무소 폭동이 나면 으레 모슬럼 사람들이 주동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그룹에 가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가입하면 형무소에서 복역하는 동안 그들 그룹에서 같은 형제라고 보호해 주어 안전하답니다. 만일 이탈하면 처참한 보복을 당한답니다. 모하메드가 초기 이슬람교를 창시할 때 유대교와 기독교 성서를 모방해서 코란을 쓰고 선교조직도 그들에게서 많이 배워 모방하고 이탈을 방지하고저 잔악한 처형을 하고 충성을 유도할 목적으로 그 그룹을 위해 희생하면 사후 천국에 가서 70명의 아리따운 여자와 살게 된다고 한답니다.

출처 : 이슬람 바로보기 <저자 류모세>
출판 : 두란노 2010. 07. 22.

"우리의 낙원" 골프장 라구나우즈 시니어타운 골프치는 여인들 사진미술 ?



박 승 원
사진 작가

사진이 발명되기 전에 눈으로 보여지는 사실 그대로 손으로 그려지고 기록된 것들이 그림으로 간주 되었습니다. 그 후 카메라가 생김으로 빛을 이용한 반사된 현상을 작업한 과정이 사진이라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자동차가 휘발유 없이 달리는 시대에 사진도 디지털 발전으로 사진가로서 방향성 선택에 고민하게 되는 시대을 만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카메라는 기계 광학적 요소에서 벗어나, 카메라 기능에 중요한 부분인 사물을 반사하는 거울이 없어지고, 디지털 지능으로 사물 자체를 이해하고 분석 기록하며, 해석하는 AI 시대에 디지털 카메라로 얻어진 현상을 다시 컴퓨터 통한 포토샵 사진 작업은 사진가로서 생존을 위한 도전입니다.
포토샵에서 얻어진 사진에 구성을 색깔과 형식을 이용하여 사진가의 의도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사진미술이라 생각해 봅니다.
이미 몇 해 전부터 사진학 분야에서는 사진 미술이라는 분야를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사진관련 유명 응모전에는 사진미술에 대한 분야를 열어 놓고 있습니다.
사진가의 작품성은 발전한 영상과 사진 라이브러리들(CD룸, 포토샵, 서비스 웹) 등 이용한 작업으로 창의적 사진예술 작업 과정에서 주워진 것들을 AI 기능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관적 작품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진가의 정체성은 사진을 이용해서 복합적인 (예: 비디오, 다중, 스틸, 오디오 등) 함께 섞어 한 장의 사진미술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른쪽 윗 사진은 “우리의 낙원” 라구나우즈 골프장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윗 글로 설명한대로 사진미술로 작품화한 것입니다.



사진: 박승원





마흔 번째 봄 | 함민복

꽃 피기 전 봄산처럼

꽃 핀 봄산처럼

누군가의 가슴 울렁여 보았으면

8부 여생지락의 삶

마음을 날리는 골프 | 이혜규
후손들에게 위대한 유산을 … | 김홍식
내 평생 음악 여행 | 김선하
My Life-Long Musical Tours | 김선하
우리의 낙원 라구나우즈 | 박용진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 정 베드로
라구나우즈 남성합창단 | 김영국
함께 하는 여행길에서 | 송기평

LWV Fitness





이 혜 규
시인

마음을 날리는 골프

보이지 않게 줄어드는 비거리(飛距離)
거금 드려 골프채를 바꾸어 보았다

젊음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벅찬 설램
의심치 않고 나가 휘둘러 본 첫 라운드
보기 좋게 머리를 후려갈기는 순간
벌렁 나자빠지는 자존감

새로운 골프채, 새로운 각도와 무게
연습이라는 인내로 먼저 익히고 다뤘어야 하는 데
단번에 젊음을 찾고 싶은 욕심에 서둘었던 거야
비거리는 절대 돈으로 계산되는 것 아니라고
18홀 잔디가 소근 거린다

라구나 우드 골프장 푸른 초원에서
마음을 날리는 골프 친구
실수하면 깔깔대고 동전 한 개 빼앗기고
홀컵에 쇳소리 올리면 동전 한 개 거머쥐는
수 십 년을 같이 뒹굴며 지내온 친구
젊었다 늙었다 따져 본 일 없이
처음 만났던 때 그대로 놀이하며 즐기는 친구들

마음 날리자
웃음을 날리자
오늘의 축복 감사하면 되는일 아닌가



김 홍 식
의사

후손들에게 '위대한 유산'을…

자녀들에게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유산으로 넘겨주기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명예나 지위에다가 재산을 끌어 안으면 행복하게 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요 그렇게 해주려는 것이 부모들의 일반적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경험을 통해 우리가 터득한 이치는 반드시 그런 산술적 계산법에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깨닫도록 해주는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자는 것입니다.

물질적 계산에서 내 돈을 빼내어 남을 돕는다면 주는 쪽은 손실이요 받는 쪽은 이득으로 기록되는 것이 수학의 산술적 계산입니다. 하지만 국가나 개인을 막론 하고 남에게 베푸는 쪽은 점점 더 부하게 되고 받기만을 바라는 쪽은 점점 더 가난하게 되는 역설은 역사가 증명해온 생활의 이치입니다.

일상 생활에서도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고 식당에서 밥값을 맡아 놓고 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생활은 점점 윤택하게 되는데 반해 항상 공짜로 먹으려는 심보가진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가난하게 됨을 봅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 아니요 그런 마음이 있기에 돈이 붙는 것이라는 그 이치 가르치는 것을 유산으로 넘겨주자는 것입니다.

실지 주변의 여러 가정들을 비교해 보도록 해보십시오.
예로 길거리 영세상인의 물건을 살 때 부르는 값 보다 오히려 더 얹어주려는 후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과 한푼이라 도 더 깎으려는 사람 중 어느 쪽 가정이 더 여유롭게 사는지를.

국가적으로도 미국이 복을 받는 이유는 그 나라

가 비록 반미 국가라 할지라도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도움의 손길을 주는 마음가짐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국이 세계 10 위 상위권 경제 강국이 되었는데도 통계에 의하면 세계 어려운 국가들 돕는 기부에 있어서는 부끄럽게도 경제개발 국가들 중 최하위라고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인심이 후하면 더욱 부자가 되지만 인색하게 굴면 오히려 궁핍하게 되느니라'는 수학적 계산과 정반대인 성서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확인케 해주는 예들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에게 윤택한 삶을 유산으로 주길 원하거든 남보다 위에 올라가 빼앗아 쟁취하려는 '깍쟁이 수학적 계산 법'이 아닌 오히려 아래로 내려가 베풀며 주려는 '후한 마음씨의 법'을 터득하도록 가르치는 것인데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함을 말씀 다리려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이곳 은퇴마을 생활에서 우리들이 했던 활동들 중 가장 보람 되었던 것, 우리 마을의 가장 큰 자랑 하나를 들라 한다면 나는 주저함 없이 평균 80 가까운 노년들인데도 함께 힘 모아 한 사람 구출 비용 $3,000 인 탈북 젊은이 70 명의 생명을 구출해 낸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렵니다. 우리들의 이 활동을 단순한 자랑이나 과시 아닌 교육자산으로써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주자는 것입니다.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의식주나 교육, 건강 등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들 어디에나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 잃으면 무슨 소용 있느냐'는 말대로 가장 중요한 도움은 역시 생명 구출이라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한 것은 탈북하여 중국에 숨어 살면서 발각될 경우 그 생명을 잃게 될 처지의 얘기를 들으면서인데 더욱 관심가지게 되는 것은 구출 과정에서 복음을 접하게 되어 육신의 목숨 뿐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의 생명까지를 동시에 구출 받는 일석 이조가 된 경우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곳 club house Jewish club 동판에 새겨진 'Who ever saves a life has saved an entire world.' (한 생명을 구한 그 사람은 세계 전체를 구한 것이다) 라는 문구의 의미 그대로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터득한 또 다른 교훈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는 말대로 받는 측 이전에 주는 나 자신이 오히려 큰 보람과 행복감을 얻게 되고 따라서 육신의 건강도 증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곳 우리가 해 왔던 그 활동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사진으로 '우리의 낙원' 책에 영구히 남겨 후손들에게도 위대한 유산으로 넘겨 주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은 칠판 교육이 아니요 일상생활에서 나의 부모가 친히 실행으로 보이는 무언의 본 보이기라는 것은 확실히 증명된

교육 이론입니다.
나 자신 이처럼 탈북민에게 관심 가는 마음도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유산인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옛날 시골에서 병원 개업하실 때 주변사람들이 이렇게 돈 벌 때 땅이나 부동산을 사 두라는 권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물질적 유산 남기는 것은 형제간 싸움의 불씨가 된다는 굳은 신념 하에 너희들에게 줄 유산은 대학 교육까지요 물질적 유산은 없으니 기대 말라 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돌아가시기 바로 전 장례식 조의금 들어오거든 한 푼도 손대지 말고 전액 멕시코 선교로 보내라고 유언하실 정도였습니다.

우리 7 남매는 지금도 매 3 개월마다 만나 합동 생일잔치하며 주변으로부터 화목한 가정이라는 평판을 듣게 된 것은 물질적 유산 받은 자식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 호주머니에는 항상 단돈 1 불이라도 들어 있으며 밖에 나갈 때면 노숙자가 있는지 먼저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착하거나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요 몸에 베인 무의식적 태도임을 알기에 그런 유산을 남겨주신 부모님들께 감사하는 것이며 주변 분들도 그런 유산 남기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구하는 그 일에 일정액 이상 참여했던 분들에게 벽에 걸 수 있는 고급스런 감사장 같은 것을 만들어 증정 하여 꼬마들이 '할아버지, 저게 뭐야?' 물으면 생명 구출에 참여한 공헌 설명하도록 하여 그 본이 그들 마음에도 심어지도록 하는 그것 자체가 유산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곳 우리들, 나 자신도 노년의 어려운 형편에 있긴 하지만 한번 큰 마음 먹고 한 생명 구하겠다는 한 번의 작정과 결단으로 얻어진 이 감사장은 비록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하지만 언젠가는 없어질 뿐 아니라 많은 경우 형제간 싸움의 불씨가 되기도 하는 물질적 유산과는 감히 비교될 수 없는 나의 후손 한 인간의 평생 변하지 않을 인격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위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 구출 경비인 $3,000 이상 분들께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쉽지않은 노년 생활자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1,000 정도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며 donation은 특정기관이 아닌 어느 곳에든 상관 없지만 감사장 이름은 그 동안 주로 활용해왔었고 잘 알려진 LiNK 이름으로 하면 어떨까 의논 하렵니다.

중국에 숨어 살고 있는 그들 구출이 급선무이긴 하겠지만 이미 구출되어 한국에 와 있는 아이들을 장래 통일조국의 일꾼으로, 또 북한 선교의 일꾼으로 양성하는 일 또한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그들을 이곳에 초청하여 해외 경험까지를 한 통일 일꾼으로 양성하는 이런 일은 미주지역 은퇴자들인 우리가 최 적격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감사장 제도는 그 후원금 모금에도 많은 자극과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김 선 하
Marketing

내 평생 음악 여행

세계 4대 문학가 중 한 명인 톨스토이는 음악을 좋아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그것을 싫어했다. 그는 음악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 Sonja는 음악의 도움 없이 8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톨스토이는 '크로이처 소나타'라는 제목으로 단편을 썼다. 크로이처 소나타는 아시다시피 빠르고 열정적인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0곡 중 9번입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시골의 바이올린 연주자는 자신의 바이올린으로 크로이처 소나타를 쳐서 기혼 여성을 유혹합니다.

학식 있는 친척 덕분에 다섯 살, 여섯 살이 되었을 때 꽤 많은 귀중한 노래를 기억 속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차이코프스키의 부드러운 모노톤 '안단테 칸타빌레', 그리그의 애절한 '솔베그의 노래', 사라사테의 신비로운 '지게우너 바이젠'-그냥 내 영혼을 적시고 거기에 정착했습니다- 연약한 나이 때문에 '육욕적 욕망'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전날 아들이 9살 손자의 피아노 연주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맙소사, 그는 가장 유명한 집시 곡 중 하나이자 제가 오랫동안 좋아하는 곡인 'Two Guitars'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연주를 들으면서 나는 엄청난 기쁨과 자부심에 뒤돌아 조금 코를 킁킁거렸다.

집시 음악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브람스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가 겨우 5-6살이었을 때 그의 가족은 너무 가난해서 가족의 빵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길 건너편의 술집에서 한 남자가 그를 깨우러 오곤 했는데, 종종 자정이 지난 후에야 깨웠다.

졸린 어린 브람스는 "새벽이 밝을 때까지" 바에



서 집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그 당시 집시 음악은 저속하고 천박한 음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어린 브람스는 그의 연주에 오히려 자부심을 느꼈고 나중에 그의 인생에서 23개의 집시 곡을 수집하여 귀중한 '헝가리 춤'으로 엮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음악에 대해 약간 현학적이 됩니다. 그들은 인위적으로 고귀한 음악과 저속한 음악을 나눕니다. 나는 그것이 조금 한심하다고 말합니다. 오직 마리아 칼라스가 부른 오페라 '토스카'의 아리아 '비씨 다르테'를 듣고 난 직후 한국의 대중가요 '여자의 일생'을 듣는 것만큼 즐거울 것입니다.)'는 대한민국의 전설적인 인기 가수 이미자가 불렀다.

짝짓기 시즌 동안 핀치새와 방울새의 놀라운 사랑 노래 - 4월부터 6월까지 Laguna Woods 마을에서 매혹적인 노래 한 곡이 내 마음과 영혼을 강타하고 흔들어 놓았을 때 내 인생의 또 다른 음악을 만났음을 알았습니다.

자연에서 직접 손으로.

따라서 내 인생의 모든 순간과 순간은 특정 음악으로 장식되었습니다.

대학원 생활을 하는 동안 연인과 구애를 하는 동안 종종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가 몹시 그리워 나는 슈베르트의 '로자문드 모음곡'을 연주할 텐데, 그 곡은 그녀를 내 옆에 데려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7번 2악장의 은밀하고 감미로운 주제가 울려 퍼지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첫사랑과 찬란한 행복의 장면으로 돌아가고 싶다.

어쩌면 내 인생 전체가 음악 여행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2014년 8월 21일 토픽마스터즈 클럽 연설)

MY LIFE-LONG MUSICAL TOURS

Sun Ha Kim

Leo Tolstoy, one of the 4 literary giants of the world, didn't like music. In fact, he hated it. He thought that music was nothing but a means of stirring men's CARNAL DESIRE. He and his wife Sonja then proceeded to sire 8 children with no help from music at all.

To prove his point, Tolstoy wrote a short story by the title of 'Kreutzer Sonata'. Kreutzer Sonata, as you know, is the 9th of the 10 violin sonatas of Beethoven's that is fast-paced and passionate. In his story, a country-side fiddler seduces a married woman by strumming the Kreutzer Sonata on his violin.

Thanks to my learned relatives, by the time I was five, six years old, I had stored quite a few precious tunes in my memory. Tchaikovsky's tender monotone 'Andante Cantabile', Grieg's heart-wrenching 'Solveg's Song', Sarasate's mystic 'Ziegeuner-weisen' - they simply soaked my soul and settled there - nothing to do with 'carnal desire' due to my tender age.

The other day, my son sent me a video recording of my 9-year-old grandson's piano recital. My God, he was playing the 'Two Guitars', one of the most celebrated Gypsy tunes and my long-term favorite. While listening to his performance, I turned aside and sniffed a little in an enormous joy and pride.

Speaking of the gypsy tunes, we ought to remember and thank Brahms. When he was barely 5-6 years old, his family was so poor that he had to chip in to family's bread-money. A man from the bar across the street would come to wake him up, often after midnight.

The sleepy little Brahms then played gypsy tunes at the bar "til the dawn's light". Gypsy tunes were viewed vulgar

and lowly music at that time. But young Brahms was rather proud of his performances, and later in his life collected the 23 Gypsy tunes to weave them into the precious 'Hungarian Dances'.

People at times become a little pedantic with music. They artificially divide noble music and the vulgar ones. I say that's a little pathetic.
Right after listening to 'Vissi d'Arte, an aria from the opera 'Tosca', sung by one and only Maria Callas, I would still enjoy almost as much listening to the Korean popular song - 'Life of a Woman (여자의 일생)', sung by the Korea's legendary popular singer, Miss Lee Mi Ja (이미자).

The incredible love songs of the finches and warblers during their mating seasons - April to June in our Laguna Woods village, when a piece of enchanting tunes pounced my heart and soul and shook them, I knew I've encountered yet another music of my life directly from the Nature, first handed.

Everly turns and moments of my life were thus adorned by certain specific pieces of music.

While I was courting my sweetheart during our graduate years, we often had to live apart.
Missing her dearly, I would play Schubert's 'Rosamunde Suite', which never failed to bring her right by my side.

As the gravely sweet theme of the 2nd Movement of the 7th Symphony by Beethoven rings out, I would back-tract right to the scenes of my first love and splendid happiness being with my loved one.

Maybe my whole life was in a way a tour of music? What do you think?

(A Speech Delivered to the Topic Master's Club, August 21, 2014.)

우리의 낙원 라구나우즈!



박 용 진
한인회장

전 미국에서 단일 도시로 한인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라구나우즈! 다재다양한 삶을 지내고 이곳에 오신 1,500-2,000여 명의 한인들 "Welcome Laguna Woods"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멋지고 아름답게 살던 곳을 뒤로 두고 이곳 1,000-1,500 Square 좁은 공간의 삶.
많이도 놀라고 실망 특히 부인들께서 고민을 아니 해본 분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작은 공간에서 살 수 있을까? 적지 않은 충격, 허나 그것도 잠시 이 정도면 충분해 두 사람 사는데 더 크면 청소하기 힘들다는 소리, 잘 오셨고, 생각 잘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낙원에 오심에 자랑과 아름답고 그림 속에 나오는 그런 삶을 살 것으로 기대합니다.
곳곳에 비슷한 연령, 취미, 그외 할 일이 많아진 이곳의 삶, 특히 모든 Activity를 다 찾아 다니다가는 고사할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하하) 또한 계심에 즐거운 비명이라 하겠습니다.
많은 Activity가 이곳 라구나우즈의 자랑, 이곳 오기 전 못했던 취미생활 그림 그리기, 도자기 굽기, 사진 촬영, 등산, 크루즈 여행 특히 동기, 학연, 지연 그리고 선후배, 모임 등은 그 어느 도시보다 활발하여 시간이 모자란다는 라구나우즈 낙원의 생활.

은퇴를 한 것인지 아니면 Activity가 많아 그런지 라구나우즈의 생활 힘들다는 아름다운 비명.
더많은 아름다움과 훈훈하고 Quality의 삶을 살아가시는 한인들 축하 그리고 더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TV, News Paper, 책을 읽기 그리고 Music을 들어도 긴 시간을 어찌 보낼까 하는 생각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 30-60여 년간 열심히 일하시고 봉사와 혹사한 육체에게 이제부터는 쉬엄쉬엄 사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짜 24 Hours Fitness & LA Fitness 그리고 이 곳 빌리지에 Fitness Center를 잘 사용하시면 더 보람 있는 은퇴의 시간과 건강 찾기에 제일 적합한 라구나 우즈의 낙원의 삶.
이곳은 타인의 방문을 기다리면 손해가 됨을 아시지요. 누가 찾아오기를 기다린다면 오지 않고 문 두드리는 분 없는 것 아시지요. 나로부터 시작한 따뜻한 언행과 행동은 그 댓가를 받을 수 있는 곳. 내가 먼저 말을 시작하자, 내가 먼저 대접하자, 내가 먼저 전화하자, 찾고 묻는 자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낙원.

라구나우즈의 낙원은 내가 만들어야지 남이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다 아시지요? 기라성 같은 한인들 지난 시간 참으로 열심히 사셨지요? 이제 남은 시간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그리고 이 곳 라구나우즈에 많은 발자취를 남겨 놓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 기억에 남게 한인회를 비롯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조직에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세상 온갖 것이 의미 없지요. 건강할 때 즉 젊었을 때 잘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이 말은 다 아는 상식이지만 지난 후에야 가슴에 와닿는 말이지요. 이제부터 나의 몸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운동)
돈!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돈을 벌 때가 아니라 돈을 쓸 때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돈없는 노년은? 친구! 노인의 가장 큰 적은 고독과 소외, 노년을 같이 보낼 좋은 친구를 많이 만들어 두세요. 친구 사귀는 데도 시간, 정성, 관심 때론 돈, 이러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꿈! 노인의 꿈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지요. 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 명상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하늘에서 정주영 현대 회장님이 온 것을 보고 반가워하니 정회장이 이병철 회장에게 5,000원만 빌려 주세요 하니 이 회장 왈, 나 500원도 못 가지고 왔네. 무엇을 뜻합니까? 생전에 쓰세요. 한인회를 위해, 탈북자를 위해, Red Cross, Covid-19 에 수고하는 의료 종사자 그리고 Firefighter 등 수많은 여러 곳에서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곳에.

자녀!, 이곳에 오신 분들의 자녀들은 부모님 보다 더 큰 일과 이 사회가 필요한 인물로 걱정안 하셔도 1세대들보다 여유롭고, 아름답게, 자랑스럽게 살 것입니다. 누구의 자녀들 입니까? 지



난 3-60여 년간 사랑으로 키웠고 정성과 기도로 키운 자녀들 자기의 앞길 잘 가고 앞으로 1세대보다 더 멋있고, 아름답고,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2세들입니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 듣고 계시지요? 격려는 귀로 먹는 보약이지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 합니다. 가슴 아파하지 말고 나누며 살다 가세요. 버리고 비우면 또 채워지는 것이 지요. 나누며 살다 가세요. 누구를 미워도,누구를 원망도 하지 마세요. 화도 내지 마세요. 화내는 사람이 언제나 손해를 본다고 하지요. 기도하세요. 기도는 녹슨 쇳덩이도 녹이며, 천년 암흑 동굴의 어둠을 없애는 한줄기 빛이라 합니다. 소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다고. 진정한 사랑은 이해, 관용, 포용, 부드러운 대화를 함으로, 자기 낮춤의 선행이 된다하네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도, 적게 가졌다고 불행한 것도 아닌 세상살이 재물이 부자이면 걱정이 한 짐이라 합니다. 마음이 부자이면 행복이 한 짐인 것을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은 마음 닦는 것과 복 지은 것뿐이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갈 날도 많지 않은데, 누군가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날도 많지 않은데,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된다고 가슴 아파하며 살지 마세요. 버리고 비우면 또 채워지는 것이 있으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 가세요.
노인은 늙은 사람이고 어르신은 존경받는 사람.

노인은 몸과 마음이 세월이 가니 자연히 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르신은 자신을 가꾸고 젊어지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 노인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어르신은 상대에게 이해와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사람. 노인은 상대를 자기 기준에 맞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어르신은 좋은 덕담을 해주고,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 노인은 고독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 어르신은 주변에 좋은 친구를 두고, 활발한 모습을 가진 사람.

풍요로운 황혼 괴테가 말하는 풍요로운 황혼, 황혼에도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었던 괴테는 노년에 관한 유명한 말을 남겼군요.
“노인의 삶은 상실의 삶이다. 사람은 늙어가면서”

건강과 돈, 일과 친구, 그리고 꿈 준비.
죽지 않는다면 누구나가 맞이하게 될 노년 괴테의 말을 음미하며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황혼도 풍요로울 수 있다.

건강!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세상 온갖 것이 의미 없다. 건강할 때, 즉 젊었을 때 다져 놓아야 한다. 이 말은 다 아는 상식이지만, 지난 후에야 가슴에 와 닿는 말이다.이제 남은 건강이라도 알뜰히 챙겨 이곳 생활에 멋진 발자취를 남기기를 바랍니다.

라구나우즈에 삶은 충분한 요건과 배경을 갖추고 있기에 이곳이 바로 천당 밑 999당.
“지상의 낙원 라구나우즈” .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정 베드로
목사

악성 베토벤이 한 말이다.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작곡가, 그러나 음악가로서 최악의 불행인 청력상실자!
의사 "이제 다 포기하고 조용한 곳에서 요양하면서 여생을 보내시지요"
베토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철장벽에 도전하여 시련에 굴복 않고 정면승부하면 '운명' 4악장처럼 반드시 서광이 비칠 것입니다."
우리 LWV Senior들이여, 우리들도 이대로 주저 앉으면 아니 되오.
나이 타령하지 말고 무언가 도전하시라.

나는 작년(76세)부터 피더 '정의 유머' 칼럼을 써 여러 곳으로 보내고 있다.
퇴직 후 쓸쓸, 우울, 무료한 웃을 일 없는 여러 시니어들과 고교 카톡방에 무료 택배를 보내니 좋아들하고 나도 재밌고 보람 있고 신난다.
이것도 나의 후반 인생의 도전이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라구나우즈 남성합창단 이야기

A Story of Laguna Woods Male Harmony Society



김 영 국
목사
라구나우즈 남성합창단

얼마 전 오랜 전통의 라구나우즈 목요 싱어롱 합창단에서 파생된 라구나우즈 남성합창단 임원들이 남성합창단의 지휘를 제의했을 때, 제가 선뜻 하겠다고 나선 이유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 시절부터의 남성중창에 대한 추억 때문었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는 거의 절반은 음악학교, 절반은 신학교와 같이 음악과 예배가 공부 못지 않게 많고 중요하게 여겨지던 비정상적인 학교 (?)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필수과목 중 하나였으니까요.

그 학교에서는 100여명의 합창반 학생들 중에서 36명을 뽑아서 채풀(예배)시간의 성가대원으로 활동하게 하고 그 중에서 8명을 뽑아서 Double Quartet (복사중창)단을 만들어 일요일 저녁마다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연주를 하게 했습니다. 현재도 미국과 한국에 살고 있는 그때 그 친구들은 아직도 언젠가 만나 다시 한번 그때 그 노래들을 불러보자고 카톡으로나마 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일 년에 한두번씩은 남성중창 연주회로 모이기를 30대 후반까지 계속하면서 교회의 성가대를 지휘하던 친구들이 공통으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혼성 SATB(soprano, alto, tenor, bass) 합창과 남성만의 TTBB(tenor 1, tenor 2, bass 1, bass 2) 합창의 특성이 사뭇 다르다는 것이었죠. 특히 1st tenor와 1st bass는 혼성합창과 다른 남성합창만의 특성을 결정 짓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2nd tenor는 주로 멜로디를 다루는 경우가 많고, 2nd bass는 화음의 기초를 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익숙한 편이지만 1st tenor와 1st bass는 많은 경우에 화음의 support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혼성합창만 하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낯설은 파트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남성합창의 하모니(Harmony)에는 1st bass 처럼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모니를 부드럽게하고 풍성하게 하는 파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파트가 바로 1st bass

였기에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었죠. 걱정했던 대로 얼마 전부터 시작된 라구나우즈 남성합창단의 모임에서도 1st bass를 하겠다는 분은 단 2사람뿐이었으니까요. 오케스트라에서 훌륭한 2nd violinist나 viola 연주자를 구하기 힘든 것처럼 우리 남성합창에서도 경험할 것이고 풀어가야 할 고민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합창단이 훌륭한 반주자를 모신 것입니다. 특히 남성합창에서는 반주자가 지휘의 역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도 가능하면 단원들과 함께 직접 하모니를 만들어 내는 singer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젊었을 때의 파트인 1st bass에 들어가서 구하기 힘든 이 섬김의 파트를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실상 남성합창에서는 지휘자가 직접 앞에 나와 인도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라구나우즈 남성합창단은 음악 실력에 관계없이 노래를 부르고 싶은 분은 누구든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새로 들어오신 분이 초등학교 이후엔 노래를 해본 적이 없노라고 자기 소개를 하였지만 모두 기쁜 마음으로 환영의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오래 전 제가 닥터 볼이라는 교수님의 성악교실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목소리는 훈련으로 200% 향상될 수 있다고 하셨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악보를 아직 잘 못 읽으시는 분들은 당분간 주로 멜로디를 노래



하는 2nd tenor를 하시면 부담이 덜 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다운 우리 가곡이나 가요들을 즐겁게 부르면서 발성연습 겸 sing along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 중에 성악 전공하신 대선배께서 친절하게 발성연습을 지도하고 있지요. 그리고 1st tenor나 1st bass 그리고 2nd bass에는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하모니가 필요한 노래들은 그분들이 리드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사실 제가 라구나우즈 남성합창단의 지휘를 맡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음악과 합창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하모니 (Harmony)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모니라는 매력적인 단어는 관계와 연결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적 하모니의 퀄리티가 각 음들의 관계와 연결에 달려 있듯이 각 음을 창조하고 있는 단원들의 관계와 연결에 의해 이루어지는 하모니를 노래하는 라구나우즈 남성합창단을 꿈꾸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저는 여러 합창단의 목적과 사명등, 그들의 설립취지를 담은 문장들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라구나우즈 남성합창단의 소개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라구나우즈 남성합창단의 임원들과 단원들과 함께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라구나우즈 남성합창단의 선언문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라구나우즈에는 우리가 본 받아야 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라구나우즈 남성합창단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목적과 사명은 주위의 다른 커뮤니티들뿐만 아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구나우즈 남성합창단의 비전과 사명은,
노래로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하모니와 친교 안에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노래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라구나우즈 남성합창단은 하모니가 갖고 있는 변화시키는 능력을 이해하고 포용합니다. 그런 점에서 LA필하모닉의 음악감독 구스타보 두다멜의 말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화합하고 결속시키는 것이 우리 라구나우즈 남성합창단의 중요한 임무다. 사회가 불안정할 때 사람들은 힘을 합치기보다 뿔뿔이 흩어진다.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의 예술가로서 사람들을 결속시켜야 한다. 음악이 그들의 불안함을 치유하는 다리가 되어 주어야 한다. 사람들이 서로를 형제이고 자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 합창단의 일이다."
"음악은 마법이고 우리를 지배한다. 어떤 음악이든 그렇다."
"음악에는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 라구나우즈 남성합창단은 엔터테이너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중요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 가는 것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사람들에게 도우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 육체적인 건강과 정서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
2. 더 건강한 지역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3. 다양한 문화와 구룹 사이의 장벽을 낮출 수

있다.
4.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세울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는 것이 좋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는 것은 훨씬 더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분쟁과 배척의 시기에, 라구나우즈 합창단은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며,협력하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며 서로를 사랑하도록 고무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과 정신과 몸을 위한 치료제로써 미칠 그 영향을 상상해 보십시오.

• 밝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담대한 전략적 비전은 우리 모두가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하모니는 음악적인 조화일 뿐만 아니라 관계적 조화입니다.

• "모두가 하모니 안에서"라는 우리의 비전은 진정한 모두를 의미합니다 — 모든 연령, 모든 배경, 모든 정치적 의견, 혹은 종교와 신앙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 음악적으로나 관계적으로 하모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두 라구나우즈 남성합창단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우리가 지니고 있는 하모니의 재능은 간직하기에 너무나 멋지고 귀한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도록 만드는 재능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나누기 위한 목적에 필요한 능력과 자원과 연합을 갖춘 재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 하모니는 우리를 어우러지게 하고 협력하게 하고 아름다움을 창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 지금은 하모니의 재능을 우리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보물로써만 아니고, 직접적인 사회적 영향을 위한 도구로서 생각할 때입니다.

• 힘드실 때도 노래하십시오. 함께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하모니에 어우러지십시오. 인간의 목소리는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다움의 최고의 최종의 증거이며 표현입니다.

함께 하는 여행길에서



송 기 평
사업가

오늘은 미국 아리조나주 세도나의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간간히 내리는 가을 가랑비를 맞으며 골프를 치며 하루를 즐기고 내일은 라스베가스로 향한다.

그동안 유타주의 Zion National Park, Bryce Canyon National Park 그리고 아리조나주의 Grand Canyon National Park과 Sedona를 둘러보고 트레일을 걸으며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황홀한 풍경 속으로 실컷 빠져들었다.

나는 산악인은 아니고 산천을 좋아하는데 자연 및 환경보호주의자인 존무어(John Moor)가 남긴 “the Mountains are Calling and I must Go”의 의미가 느껴진다.
미국에서 살면서 자주 와 본 곳이지만 그동안은 바쁜 이민생활 속에서 무언가에 쫓기듯 생활하며 했던 여행이었다면 이번에는 은퇴 후에 생긴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돌아보아서인지 색다른 감회와 느낌이 들었다.
역시 여행은 나이에 따라, 계절에 따라 그리고 동행하는 사람에 따라 산천을 보는 눈과 느낌이 달라짐을 알게 된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자연 경관은 항상 그대로 수려하고 장엄하니 자주 와도 질리지가 않고 좋기만하다.

원래 금번 여행은 1년 반 전에 같은 교회에 다니는 셀식구들의 뜻이 모아져 계획되었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작년 3월 출발 직전에 취소되었던 일정이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모두들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은 흐르니 다리가 후들거리기 전에 그리고 아직 가슴이 뛰고 있을 때 걷고 여행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풍부한 여행 노하우를 자랑하시는 한

분 집사님의 계획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부부만의 골프일정이나 여행은 오붓하고 단출하여 편하기는 하지만 자식과 손주가 함께 하는 가족여행이나 친구나 친지 부부가 함께하는 그룹 여행이 신나고 재미는 있는 것 같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장수시대라 한다지만 우리들이 늙어가면서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삶이기에 사는 동안 남을 배려하며 겸손하고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가치관에 공감하는 분들과 함께 해서 대화가 너무 잘 맞아 더 좋았던 것 같다.



길 | 고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며 간다.
여기서부터 희망이다.

9부 두고온 내 고향

맞선 | 고정자
정능 골짜기 | 이 황
“샬라, 샬라” 이런 여행하셨나요? | 피효자
그리움이 꽃이 되어 | 윤경순
6·25 체험 | 강홍식

LWV Golf Driving Range



맞선



고 정 자
교수

의사와 간호사
환상의 커플이네.

우리 딸 오늘 예쁘게 하고 가,
여보, 우리 딸은 민낯도 예뻐
그냥 가도 돼,
아버님 말씀이 구수한 숭늉이다.
그래도
나는 정성스럽게 머리 손질하고
여왕처럼 우아하게 화장을 했다.

카페 구석에 촌티가 나를 부른다.
딸깍딸깍 하이힐 소리,
신사가 자리에서 일어선다.
"우매, 움직이는 비너스,
겁나게 미인이시네요."
너스레를 떠는 남자의 표정이
영락없는 시골 토종닭이다.
남자의 강한 눈빛이
미소 어린 내 얼굴을 더듬는다
나는 무안하게 눈코에 조명을 받는다.
다시 입술과 턱에 쏜다.
선을 보나, 관상을 보나, 화장술을 보나,
아니야, 분명히 성형을 보는 거다.
기가 찼다. 순진 남이라던데 딱 맞네.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나요?"
미워서 한 방 날렸다.
"천만에요"
무척 당황한다
"그럼 정형외과 전공하셨나 봐요?
좀더 진하게 날렸다.
"??……"
어리둥절 놀란 토끼 눈이다.

"나는 조각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눈치만 없는 게 아니라
염치 코치도 바닥이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이 갑자기 황소 눈깔이다.

빈자리 커피잔에서
모락모락 김이 오른다.

정능 골짜기



이 황
동아신춘문예 수상자

우리는 정든 것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외롭게 되고, 그것은 그리움으로 마음에 자리한다.

우리는 지평선으로만 이어진 시카고로 이민 왔다. 이민살이 이십여 년은 나로 고향 산천을 그리워하게 한다. 남겨 두고 온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도 대단하나 특히 계곡 많은 고국의 산천은 나의 마음 자락을 놓아 주질 않는다. 생각으로 말고 실제로 이민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것인가는 굳이 말로 할 필요도 없겠지만 언어에서, 이질문화에서, 생활수단에서 오는 불편하고 힘든 삶이 이민 초기에는 그런 그리움 같은 것은 생각할 여지 조차도 없게 하였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는 법칙에 따라, 생할 수단을 얻은 것만큼 정서적으로 많은 것을 잃기도 해서 사람을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했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도 꽤 장성하였고, 내일 끼니 걱정 아니 해도 되는 지금에 와선 그 때의 잊고 살아왔던 것들을 되찾아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아랫목 장뜨는 냄새만큼 은근하면서도 강하게 인다.

되찾고 싶은 것 중 하나는 고향땅 산천과 그 곳의 친구들을 찾아 무지개 일곱 색 추억과 만나보는 것이다. 그 첫 걸음은 당연히 같은 말, 같은 얼굴, 눈익은 산천이 있는 고향 땅, 고국을 방문해 보는 것이다.

십오년만에 처음 고국을 방문 했을 때의 그 감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좋을까? 한 시절 군에 입대하고 4개월만에 부임지로 가는 길에 한강 철교를 지나며 인도교를 보고도 나오는 눈물을 억제하지 못했었는데, 서울 상공에서 내려다 본 시가지를 보고 어찌 감격하지 않았겠는가. 고국에 와 고향 땅을 보면서도 가슴에 남아 있는 옛 것은 잘 보이질 않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나는 그것이 못내 허전하여 한 2년에 한번은 고국땅을 찾아오는 것 같다. 이제는 고향 산천과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이 그리 대단 할 수가 없을 터인데도 조금은 병적인지 시카고로 돌아오는 차 속에서부터 다시 돌아가 그 옛날로 뛰어 들고 싶은 욕망이 모기향처럼 피어오른다.

그 옛날, 어릴 적 나는 뒷문을 나서면 바로 삼



청공원과 지척인 가회동 집에 살았었다. 지금, 생각이 나는 것이라곤 병정놀이를 하다 아까시아 꽃잎을 훑어 먹고, 버찌를 따 먹고, 개미를 잡아 똥꼬를 빨아 먹고 놀던 정도밖엔 없지만, 그 공원에서 어린 시절을 많이 보냈다. 장성한 후엔 산행도 자주 즐기고, 운동장이나 극장보다는 산이나 시골길을 더 많이 찾아다녔다. 결혼을 하고 나선 한가히 산이나 변촌을 나돌 기회가 없게 되고 보니 가까운 정능 골짜기를 찾아 물에 발 담그고 닭죽을 끓여 먹곤 할 수 밖에 없었다. 닭죽을 먹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쉬는 삶의 멋이 있어 나는 꽤나 그것을 즐겼다. 지금도 그 좋았던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이 솟는 물처럼 한결스럽다.

나는 몇 년 전 우연히 알게 되어 일년에 한두 번은 꼭 찾아 가는 어느 공원이 있는데, 그곳을 찾으면 흐르는 물같이 항시 그립기만 하던 것들이 즐거움이 되어 기분이 상쾌해진다.

그곳까지는 가는 시간도 두시간 남짓밖에 되지 않아 지루하지도 않지만 가는 길 양옆으로 보이는 콩밭, 옥수수밭, 지평선 이런 것들도 나의 마음을 들뜨게 하여 좋다. 검은 대지의 지평선을 보면 고국의 산천과 황토색 논밭이 떠오르며, 이곳의 농사 수확은 검고 영양 있는 흙 때문이고, 우리 고국의 농사는 농꾼들의 수고 값으로 되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농부들이 안스럽다는 생각도 든다. 콩과 옥수수의 추수를 생각

하면 그 일부와 이북 땅이 연관 지어지고, 간간이 보이는 농가 부락을 지날 때 집 주위에 심어 논 화초를 보면 빨간 벽돌담장 위에 피어난 백일홍과 채송화를 생각나게 하여 속웃음을 웃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어서 더욱 좋다.

우선 공원에 도착하면 인위적 조경을 하지않은 공원길을 십분정도 걸어야 되는데, 참나무와 약간의 침엽수, 넝쿨나무 등 이름도 모르는 나무들이 숲을 이루어 그 옛날의 정능에 온 것 같은 착각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하긴 어느 골짜기에 들어 가던 골짜기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흐르는 물, 제각각 모양의 바위나 나무 등만 보이니 이곳이 그곳과 실은 다를 것이 없다. 나는 착각과 현실을 들락거리면서도 그때의 좋았던 추억만 떠올리게 된다.

솟아 흐르는 물 소리, 나뭇잎 스치는 바람 소리, 새 소리 등의 실외악이 일행을 정중히 영접한다. 정취 있는 곳에서 솟는 물을 보곤 너나없이 맨발이 되어 일 분도 못 있을 물로 뛰어 들며 그 기분 좋은 날의 2막을 시작하는 것이다.

우선 모셔 온 베토벤을 틀어 놓고 불을 피우고 닭죽을 끓이며 그때를 회상한다. 그 옛날 정능에선 산불의 겁도 없이 잔 나무와 솔잎 따위로 양은 솟을 걸어 놓고 닭죽을 끓였는데 그 방법이 좀 다르기로서니 무슨 대수이겠는가. 여름 햇살은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수정 구슬이되어 솔바람을 따라 골짝을 구른다.

길어질 수밖에 없는 점심 식사를 하고는 바둑도 두고, 등산 길로 나서기도 하고, 암반에서 흐르는 물에 작은 댐을 만들어 과일도 담가 두고, 물레방아를 만들어 추억 방아질도 하고, 가제도 잡고, 나비와 매미의 춤과 노래도 덤으로 들으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다. 놀이나 재미로는 무엇 하나 고향의 정능과 다를게 없다.

바로 이곳, 시카고 정능 골짜기는 정말 나에게 그리움의 기쁨을 주는 곳이다. 바이얼린 협주곡을 들으며 바둑을 두고, 물 소리, 새 소리 있는 곳에서 흐르는 물에 발 담그고 닭죽을 즐기는 풍경, 신선의 세상과 무엇이 다를까 싶다.

신선과 작별하고 집으로 차를 몰며 이 곳에서 고국의 산천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다는 것이 나 자신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한다. 내가 이곳에 오래 또 오래 살면 내 고향 산천처럼 정도 들고, 조금은 덜 피곤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그런데, 내 나라 고향 산천이 나고 자라난 곳이라서 살갑고 끈적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부모의 땅으로부터 정기를 나누어 받고 태어 났기 때문에 그 땅은 나의 땅이 되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 땅이란 나같은 사람에겐 어쩔 수 없이 애환(哀歡)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

• • • • • • • • •

“샬라, 샬라” 이런 여행하셨나요?



피 효 자
간호사



Laguna Woods Village에 온 지도 벌써 8년이 되었다.
방학이 되면 해마다 강남 제비처럼 뉴저지에 사는 딸네 가족이 찾아왔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에 묶여서 영상으로만 ‘하이’ 하고 지냈다.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는 듯 ‘때가 왔구나’ 하고 전화가 ‘따르릉’ 왔다.
“엄마, 우리 이제 엄마 집에 가도 돼?”
우리도 적적하던 참에 은근히 환영을 했다. 10살짜리 손주도 Vaccine을 두 번 다 맞았으니 걱정하시지 마시고 우리 같이 여행하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RV를 Rent 해서 Las Vegas, 그랜드 캐년, Yellow Stone으로 일주일 계획으로 떠났다.
그동안 손녀, 손주들도 2년 사이에 어느새 많

이 컸다. 완전히 미국 style로 자라서인지 마치 미국 사람 같았다. 우선 우리 짧은 영어로는 원활한 소통이 안 되고 따라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았다.
농담도 불통이다. 노는 방식도 다르다. 저희들끼리 이방인처럼 "샬라, 샬라" 하고 노래 부르고 신나게 놀았다.
우리 하고는 완전히 따로 국밥, 강 건너 불이다.
우리는 한국이 고향인 한국 사람, 저희들은 미국 사람, 참으로 먼 거리에 있다. 내 사랑스런 손녀, 손자가 우리 모습이건만 바로 외국인이다. '세대 차이를 넘어 언어 차이가 이런 거구나!'

앞만 보고 열심히 10시간씩 일하며 사는 동안 얘들은 미국 사람으로 변모해 버린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한국이 내 나라인데 얘들은 미국이 고향이니까 당연하다고 이해는 하지만 서글픈 마음이 영 가시지 않았다. 인정해야 할 상황이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우리 자손들은 이제 미국 사람이구나, 어쩔 수 없는 이런 이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할아버지는 반사적으로 친구분들과의 여행을 회상했다. 우리 말로 자연스럽게 서로 농담하고, 함께 노래 부르고 즐겁고, 기쁘게 어울렸던 그 때를 떠올리며 몹시 그리워했다.

우리는 다음 여행은 더 늙기 전에 친구들과 55년 전에 맛있게 먹었던 우리 음식 마음껏 먹고 한국 관광하며 한 달만 원없이 잘 지내보자고 했다. 어차피 우리 인생, 우리가 찾자.



그리움이 꽃이 되어



윤경순
한국화가



나에게 '그림은 그리움의 준말'이다.
고향이 그리워서 살구꽃 핀 마을을 그렸고, 고국산천이 그리워서 한지에 사랑과 눈물을 담았다.
저녁밥을 정성스럽게 지어 놓고 가족을 기다리는 어머님의 애틋한 품 안을 늘 그림 속에서 만나보고 싶었다.

나는 이십 대 젊은 나이에 김포공항을 떠났다. 팔십 중반이 되도록 미국에서 살았건만, 아직도 고국산천의 꿈을 꾼다. 내 고향은 함경북도 두만강과 동해가 만나는 곳이다.
지금은 그 지역이 핵실험장이 되었다는데 어찌 되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때때로 Google Map으로 찾아보지만, 지명도 바뀌어서 서글프다.
모래사장에서 넘실거리는 하얀 파도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온다. 다리 밑 바위에는 굴들이 닥지닥지 수를 놓았다. 겨울철 개울가는 우리의 썰매 놀이터였다. 길옆 나무에 수북이 눈이 쌓여 마치 터널을 지나가는 느낌이었다. 눈이 많이 내리면 부모님 등에 업혀서 등교했던 일, 이

모든 추억이 아직도 내 머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우리 아버지, 8남매 대부분은 고향에 사시고 우리는 청진에서 살았다. 청진에서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가는 기찻길은 수많은 굴(터널)을 통과했다.

해방 후 월남하여 서울에서 살다 1.4후퇴로. 부산피난살이가 시작되었는데 거기서 나는 중학교에 다녔다. 미술반에 발탁되어 주말이면 미술반 학생들은 선생님을 따라 동래 범어사 뒷산이며, 영도섬을 두루 다니며 sketch를 했다. 선생님은 미술 이론도 설명하셨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 그래도 멋에 겨워 열심히그렸다. 그때 추억 때문인지 그림에 대한 흥미를 늘 가지고 살았다.

그 모든 것이 그리워서 나는 산천도 그려보고 꽃도 그려보곤 한다. 그동안 산천이 그리워서 내 마음을 표현하며, 그림과 말하고, 그림을 그리며 추억을 더듬어 사랑하며, 조화를 이루어 마음의 평온을 찾기도 했다.



그림을 그리거나 붓으로 명구, 명시를 쓰노라면 삶을 성숙시키며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어 노년을 즐겁게 한다.

작년 1년간 남편의 병간호를 하면서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길 때 나에게 잠시 그림이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버텼을까 싶다.

요새는 나도 언제까지 그림을 더 그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오래도록 그리고 싶고, 또 쓰고 싶은데

붓을 든 손이 떨리면 어쩌나 걱정이 앞선다.

금년에도 겨우 재미 한인 서예협회 전시회에 두 작품을 제출했다.
내년에도 작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고국이 근래에는 왜 점점 어두워지는지 화풀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자유와 평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자랑스러운 나의 그리움이아름다운 꽃으로 승화하듯 나의 사랑하는 조국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기를 이국땅에서 간절히 기원한다.







즐거움을 연출하라

당신은
날씨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기분은 바꿀 수 있다.
당신은
외모를 바꿀 수는 없지만
스스로를 연출할 수는 있다.
당신은
항상 승리할 수 없지만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할 수는 있다.
즐거움은 원래 이렇게 단순하다.

〈장쓰안의 '평상심' 중에서〉

6·25 체험



강 홍 식
의사

1950년 6월 25일, 북괴의 38선 남침에 이어 이틀 뒤인 27일에는 서울이 함락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라디오 방송에서는 서울을 끝까지 사수할거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포성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함께 하숙하고 있는 두 형과 함께 시골 집으로 내려갈 짐을 꾸렸다.

우리가 서울역에서 남행열차에 오른 것은 27일 밤이었다.
열차가 한강 철교를 지나 서울을 빠져나올 때는 비가 주룩주룩 요란하게 내리고 있었다.
우리가 탄 열차가 한강을 건너자마자 철교는 폭파 되었다는데 우린 그런 걸 상상이나 했으랴.
우리는 천안에서 내려 장항선으로 갈아타고 예산 삽교역에서 내려 고덕면 고향으로 걸어서 무사히 내려왔다. 사람들마다 얼굴엔 불안한 빛이 가득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강이 북괴군 마지막 저지선이라고 했지만, 2주일도 채 되지않아 인민군과 자원 인민군들이 떼지어 우리동네까지 밀고 내려왔다.
경찰은 후퇴하면서 공산당을 탈당 전향한 보도연맹단원을 불러모아 북괴군에 동조할까 봐 모조리 처형 해버렸다. 그들 중에는 이웃에 살던 의사님도 끼어있었다.
당시는, 일제 때 항일하던 식자들 대부분은 공산당원이었다. 악명 높은 박헌영도 예산 사람이다.
만일 우리 집이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다면 공산당에 가입 했을지도 모른다.

그 의사의 아들은 국민학교 내 아래학년이었는데 아버지가 처형당한 것을 알게 되자 아버지를 죽인 순경을 죽이겠다고 도끼를 휘두르며 소리소리 질렀다.
후퇴하던 경찰관은 그 애의 소란을 보고 멀찌감치에서 머리를 조준, 총을 퍼부었다.
나는 우리집 창문을 통해 그 광경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그런 참상은 내가 태어나 처음이다.

나는 국군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산에서 들에서 몇 날을 숨어 지냈다.
인민위원, 민청 여성동맹원들은 좀 넉넉하게 산다 싶은 이나 공부 좀 해서 유식한 이들은 반동분자라며 밤 사이에 잡아다가 도끼, 삽자루, 곡괭이 등으로 쳐 죽였다.

서울에서 내려온 북괴 인민군, 의용군들은 경찰 주재소(현 파출소)에 머물면서 동네 치안을 맡았다.
인민의용군 중에는 작은 형 고교 후배가 있었는데 그는 형을 잘 알고 있었다.
어느날 밤, 그는 인민군들이 우익 반동들 가정을 습격, 체포할 거라는 정보를 미리 귀띔해 주는 바람에 우리집 식구들은 다행히 위급을 모면할 수 있었다.
그가 1차로 의용군에 지원한 것은 국회의원인 아버지가 부산으로 피신한 것을 알게되면 처형당할 것을 염려해서 인민군에 위장 입대한 거라며, 자기는 일선에 배치되는대로 국군에 투항할 생각이란다. 그리고 미군이 본격적으로 참전했으니 국군은 미군과 함께 곧 진격해 오리라 했다.

그는 기회를 보아서 탈출해야겠다며 형에게 도피에 쓰일 돈을 꾸어달라고 했다.
아버지께서는 곧 돈뭉치를 꺼내셔서 그에게 건네 주셨다.
며칠 후, 그는 전방으로 배치되었다며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
그동안 많은 동네 사람들이 밤이면 인민위원회 민청당원에게 잡혀가서 죽고, 젊은이들은 인민 의용군으로 끌려갔다.

초가을 구월 말 먼 북쪽 하늘에서 밤새 섬광이 번쩍번쩍거렸다. (인천 상륙 작전이었다)
그런 후 며칠 사이에 민청 간부들과 여성동맹 간부들이 웬일인지 눈 앞에서 사라져 보이질 않았다. 국군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문에 우린 모두 태극기를 흔들며 그들을 환영하러 장터앞 길에 나왔는데 숨어 있던 인민군들이 환영나온 군중을 향해 갑자기 따발총을 쏘아대는 바람에 아수라장이 돼버리기도 했다.(10월 중순 경?)

산으로 도망간 빨갱이들은 밤이면 동네로 내

려와 동민들을 괴롭혔다.
돌아온 국군, 경찰들은 젊은 학생들을 모아 학도 의용군을 조직, 급한대로 총기 조작법을 일러주었다. 그리고 가야산에 숨어든 (충남 가야산: 예산군, 서산군 사이에 위치) 인민군 패잔병과 빨지산을 도벌하는데 동원되었다. 한데, 겁 없이 전진한 우리 학도병 소대는 어느 틈에 적병에 포위되고 말았다. 나는 움푹 패인 낮은 곳에 엎드려 총을 앞으로 겨누고 있는데 총소리와 함께 뭔가가 잔등을 때려치는 걸 느꼈다. "아. 총을 맞았으니 이젠 죽는구나!" 생각하면서도 그다지 많이 아픈 것 같지 않아 고개를 돌려보니 나뭇가지가 등에 떨어져 걸려 있었던 것이다.
얼만가가 지난 뒤 미 탱크의 지원사격이 시작되었고, 우린 포위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산속 숨어 있는 적과의 싸움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사방을 살피고 경계하면서 계속 산등성이를 올라야 했다. 그러던 중, 언덕에 굴을 파고 나뭇가지로 입구를 가려놓은 그들의 아지트를 하나 발견했다. 우린 굴 입구에서 안쪽을 향해 총을 몇 발 쏘고는 "손 들고 나왓!" 소리 쳤다. "나오지 않으면 수류탄을 던질 테다!" 그제서야 검은 몸빼 바지에 잠바를 걸친, 배가 불룩한 여자가 손을 들고 나왔다.
"어! 이게 누구야?" 여맹위원장, 옆집 의사의 딸이 아닌가.
국민학교 두 학년 윗반으로 어렸을 땐 그녀와 함께 놀기도 했었다.
그녀 뒤엔 남루한 옷차림의 남자가 대여섯 두 손을 들고 나왔다.
인민군 패잔병 중엔 투항하는 이가 많았으나 동네 공산당 빨지산은 저항이 거셌다. 그녀가 동료한테 마구 거칠게 매맞는 걸 가까이서 지켜보기란 여간 거북한 게 아니었다.
극렬히 저항하는 적은 당장에 처단 해버렸는데 그녀는 나를 보며 "날 죽이기야 하겠나.." 안도하는 눈빛이었다.

우린 많은 무기와 실탄, 식량 등을 노획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산꼭대기로 도망간 적은 더 이상 추적 말고 포위 대기하라는 명이다.
그리고 전투 경험이 없는 학도병은 하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우리는 부상으로 걷지 못하는 전우들을 들것에 실어 내려왔고, 생포한 빨



지산 북괴 인민군들은 양손을 뒤로 묶어 한 줄로 엮어서 산 밑으로 끌고 왔다.
지방민 빨지산은 경찰에 인계하고, 북괴 인민군은 헌병에 인계했다.
산 아래 막사에서 하룻밤을 휴식한 후, 시래기국과 주먹밥으로 요기하고 또 2차 수색에 나섰다.

이번에는 발악하는 적을 대응하느라 서로 숨어서 총질했다.
우리 쪽이 숫적으로 월등히 우세한 걸 알고는 그들은 산 능선을 타고 넘어 도망쳤다. 노루가 뛰어가듯 도망치는 적에게 우린 여럿이 총을 쏴댔지만 그들은 맞은 것 같지 않고 능선 너머로 도망쳐버렸다. 우린 적을 많이 죽이진 못 했지만 아군은 수많은 적을 사살했다고 들었다. 물론 아군의 희생도 적지 않았겠지만, 우리 쪽 희생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2차 토벌전투로 적은 거의 소탕 되었다고 학도병은 산에서 내려오게 했고 18세 이상의 대원은 군에 편입되어서 전진하는 강원도 부대로 떠나보내고, 16세인 내게는 집에 가서 공부하고 더 커서 오란다.

덩치 큰 16 ~17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나이를 속이고 국군에 입대했다.
난 그들이 부러웠고 총기를 반납하고 돌아설 때는 눈물이 핑 돌았다.

집에 돌아와서는 한동안 산에서의 일들이 꿈에 나타나 자면서도 식은 땀을 흘리곤 했었다.

의사집 그 딸은 민청단장의 애를 임신했다는 뒷얘기가 들려왔고, 대전형무소에서 복역 중 출산, 조기 석방되었다는 후문이다.

내가 아프거나 다치면 그리도 친절히 치료해 주던 의사 아저씨였는데 왜 처형되어야 했었나 ….
나와 뛰놀던 의사님의 아들은 어쩌자고 그토록 참혹하게 경찰의 총에 맞아, 두부 터지듯 머리통이 터지는 참상을 이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는지 ….
내가 수색하던 아지트 움막에서는 왜 하필이면 내가 그 의사님 딸과 마주쳐야 했었는지….

6·25 그날이 오면, 내게는 이런저런 상념들이 착잡하게 되살아나 내 가슴을 짓누른다.

휘파람부는 사람 | 메리 올리버

이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

10부 영적 삶을 위하여

시간의 주관자 | 채호원
어두움 터널 속 간구 | 채호원
나 언제 집에 가? | 김인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 홍대욱
職業選擇과 그에 따른 社會奉事 | 임흥순
우간다에서 온 소식 | 신동수
막달라 마리아의 노래 | 림학춘
7월 18일 주일예배 기도문 | 김경자

LWV Transportation



시간의 주관자



채 호 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하나님 창조의 확실한 증거
사람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시간!
과학이 범접할 수 없고
인간의 노력이 소용 없고
인간의 한계 위에 있는 4차원의 세계

오늘도 시간은 흐른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영원부터
쉬지않고 시간은 흐른다
변함없는 속도로 흐른다
우리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치 무어라도 된 것처럼
무어라도 아는 것처럼
무어라도 가진 것처럼 살다가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역사속으로 사라져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모두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자
인생들아! 우리의 삶 속에서 있었던
수많은 죄악들을
단번에 씻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의 살아 생전에 있음을 분명히 알라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감사 감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 감사 감사!
우리에게 매일 기쁨으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 감사 감사!



어두움 터널 속 간구

채 호 원

지금은 어두움의 시대
다윗왕이 숨어 있던 아돌람 굴
황충이 요란하게 세상을 휘젓는 시대
아~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 사탄의 세력은 물러가도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도다
우리 심령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하늘
의 소망으로 넘쳐나도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고난의 시간을 잘 넘어가도록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여
온 세계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귀한 기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이 알게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언제 집에 가?



김 인 수
목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전 총장



필자의 모친이 한국 나이로 95세에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지팡이도 집지 않고 어디든지 잘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다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노인대학(영어학원)에 다니신 덕분입니다. 수 십 년 동안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몇 블럭을 걸어가서 버스를 타고 학교 근처에서 내려 또 몇 부락을 걸어 학교까지 가서 공부를 하시면서 다져진 것입니다.

어느 주일 날 어머니가 교회에서 예배 후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서 막 돌아서는데 어떤 젊은이와 부딛치면서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면서 몹시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응급실로 서둘러 가서 검사를 했는데, 고관절 Hip Joint에 금이 갔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곧 수술 후, 안정기를 거쳐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 3주 계시다, 규정에 따라 양로병원에서 다시 3주를 보내야 해서 처음으로 양로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방은 3인실이었는데, 노인 중 한 분은 치매가 심해서 야밤에 소리를 지르고, 방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양로병원에서 주는 밥이 어머니 입맛에 안 맞으시다 해서 필자가 아침마다 집에서 밥과 반찬을 마련해서 병원으로 갖고 가서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필자를 볼 때마다 애처로운 눈빛으로 “

나, 언제 집에 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필자는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이곳 규정이 있어서 아무 때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돼야 퇴원을 한대요.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 집에 갈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라고 위로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3주간 입원 기간이 끝나고 주치의의 퇴원 허락을 받고 바로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신 어머니는 무척 기뻐 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단독 주택이어서 조용하고 아늑한 방에서 맏며느리가 해주는 입맛에 맞는 삼시 세끼 식사를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애타게 그리워하셨던 집에 오신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오래 사시지 못하고 고관절 골절 후유증으로 1년 후에 평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집으로 가셨습니다.
"나, 언제 집에 가?"라고 하셨던 집은 이 세상 집이 아니었고, 불신가정에서 온갖 핍박을 받으며 12살 때부터 홀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95세까지 평생 그리워 하셨던 영원한 집, 천국으로 귀향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특히 타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늘 고향을 그리워하지요. 향수(鄕愁)입니다. 집을 떠난 해외 유학생, 사업가, 1년 중 10달 동안 원양어선을 타고 먼 바다로 나가 일하는 선원들의 유일한 희망은 모든 일이 끝나고 가족이 있는 집으로 귀향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보잘 것 없고 초라한 집이라도 가족이 있는 곳이 그립고, 또 행복을 느끼는 곳이 바로 내 집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돌아 가야할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영구히 살 수 있는 집이 있나요? 미국을 비롯한 해외 이민자들이 돌아갈 집은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외국에 있는 집일까요 아니면 한국에 있는 집일까요? 한국에 돌아갈 집은 있나요? 우리가 살았던 Sweet Home, 부모와 형제자매들이 살고 있던 집은 현재 존재하고 있나요? 연로하신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시고, 아옹다옹하면서 자라나던 형제자매도 떠나가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았던 자녀들도 장성해서 나갔습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줄 알았던 배우자도 먼저 떠나고, 홀로 남아 외롭게 살고 있는 이 집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Sweet Home일까요?

누구라도 언젠가 시간이 되면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집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필자의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나, 언제 집에 가?"의 집은 Los Angeles Korea Town에 있는 어머니가 사셨던 집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갈 천국에 있는 집입니다.
"나 언제 집에 가?" 네, 머지않아 천국의 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홍 대 욱
목사



1996년 6월 말이다. 타쉬켄트에서 일 년의 일을 마치고 미국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서울에서 LA에 가는 비행기 좌석이 없다는 것이다. 95년에 산 티켓을 미리 췍업(check up) 했어야 된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

케렌(딸)과 나는 서울 어느 댁에 머물면서 몇 일을 비행장에 다녔다. 여기 저기 많은 사람들이 씨멘트 바닥에 무엇을 깔고 앉아 있었다. 그중엔 예쁜 미국 아가씨가 앉아서 책을 읽는것도 보였다. 한 중년 남성은 누구의 빽인지 편지를 가지고 와서 직원에게 보이며 비행기 태워줄 것을 사정하나 그 직원은 정중히 말한다 " 기다리는 저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순서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정하게 행하는 그 직원이 고마웠다. 그 다음날은 새벽부터 인천비행장에 가서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다행히 어제 그 미국 아가씨는 보이지 않는다. 어제 떠났나 보다. 기적적으로 케렌만 미국으로 보내고 나는 뒤돌아섰다. 왜냐면 7월말에 서울 어느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 교회를 방문했다 타쉬켄트를 방문하실 장로님과 집사님들을 만났다. 그분들은 이미 후원하고 계시는 이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마지막날 2일을 할애해 주신다고 했다.

그 교회의 골목길을 걸어나오는데 던킨도너츠 집이 보인다. 반사적으로 얼마나 반가운지…. 추운 미시간 지방에서 매일 아침 사 마시던 던킨도너츠샵의 커피 한 잔과 도넛 한 개….

난 옆의 집사님께 도너츠 한 개 사달라고 했다. 커피 한 잔과 도넛 한 개…. 옛맛을 새기며 엔조이했다.

다시 타쉬켄트로 돌아온 나는 남편과 함께 교회를 세울 일에 전념했다. 고려인들이 모여 사

는 마야크라는 동네에 교회가 없었다. 마야크라는 말은 등대라는 뜻이며 우즈벡에 이주되기 전 쏘련 원동에서 살던 동네의 이름이란다.
우리는 그 동네에 고려인 책임자이신 분을 찾아다니며 교회의 장소와 어떻게 첫날 교회를 세울지를 의논했다. 잔치를 하기로 했고 그 분이 동네분들을 모셔 오기로 했다.
이건 아닌데… 이건 약속이 틀리잖아? 오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배당된 날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뜻깊은 일에 함께 와서 축하는 못 해줄지언정 약속된 사람들도 안 보내 준다고….
난 얼마나 마음이 부풀어 있었나? 교회 세우는 날 12분의 찬양과 율동과 정말 풍성하고 활기찬 교회 창립일의 첫 발걸음이 될지를….
아, 인 줄 없고 돈 줄 없고 힘없는 미국에서 온 초라함… 난 갑자기 설음이 복받쳐 참으려 애써도 통곡이 나온다. 난 팔뚝으로 입을 막고 고개를 숙인 채 뼈아픈 깊은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틀림없이 할애해 준 우리의 날인데…. 그때 이 목사님이 말했다. 찬송합시다.
"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주 "
갑자기 정신이 난다. 아, 그렇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데 나는 왜 깨닫지 못하고 왜 사람만 보면서 뼈아픈 울음을 울고 있는지… 아 , 바보 같은 나! 어쩌면 바로 이 순간에 나를 찾아 주셔서 위로와 희망을 주시며 나의 아픈 마음을 쓸어주시는지….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데, 주님이 도와 주신다는 데 더 무엇을 바랴라! 오 고마우신 주님 !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
나는 비로서 울음을 그치고 평온한 마음으로 마야크로 돌아와 2분 장로님과 2분 집사님 들을 모시고 드디어 마야크 사랑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아름답게 잘 지냈다. 28분의 남자분들과 몇 분의 여자분들이 계셨고 젊은 청년, 학생들이 많아서 나는 그들에게 영어도 가르켜 줄 것을 약속했다.
지금은 단지 잔치에 오신 분들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 얻는 영혼이 많아 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그 후로 언제나 이 찬송을 들을 때면 그때의 아픈 마음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또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주님을 다시 인식하는 내 일생에 가장 귀하고 잊지못할 복음성가가 되어졌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職業選擇과 그에 따른 社會奉事



임 흥 순
목사 · 건축가

2006년 4월1일 이곳 라구나우즈로 온 이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의 은퇴 전 직업들을 보면 의사(외과/내과), 대학교수, 국가공무원(시, 카운티, 주/연방정부), 직업군인, 약사, 간호사, 목회자, 음악가, 소설가, 부동산업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다가 이곳으로 이사한 분들이 대부분이다.
참으로 자기의 훌륭한 전문직에 종사하며 사회적봉사를 하다가 이곳에서 노후를 보낼려고 안착한 곳이 Laguna Woods Village 이다. 이에 따른 한인회도 조직되고 각 분야별로 회원들에개 다양한 취미제공을 하고 있다. 아름다운 발전과 즐거움과 기쁨의 모임들이 날마다 우리 한인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오늘은 제목에 명시된 대로 어디까지나 나의 과거 직업선택을 하게된 연유와 그에 따른 사회봉사를 주관적인 관점에서 독자들이 재미있게 읽을수 있도록 이야기식 서술 방식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나는 1945년 8.15이전에는 일제만행의 농토 약탈로 농토를 잃은 부모를 따라 만주(지금은 중국땅)로 이주하여 11年間(신경시-장춘시, 통화시, 간도성내 신잔) 살다가 8·15 해방직전 고향 황해도 사리원으로 귀국하여 사리원 고등학교 3학년 재학시 1950년 6·25 한국전쟁을 맞아 인민군에 입대영장을 받게 되어 한국 지리산보다도 더 험한 황해도 9월산(우국청년들의 빨지산의 본거지)으로 도망하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요한처럼 메뚜기만 잡아 먹으면서 산에서 숨어 살다가 UN군이 북상한 후 하산하여 1950년 12월 6일 눈보라치는 영하 섭씨 20도의 강추위 속에서 고향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남하한 실향민의 한사람으로 그리운 고향을 떠난 지 벌써 71년이 된다. 빠른 세월의 흐름을 새삼 느끼게 된다.

1950년 12월 24일 경북 대구에 도착한 후 대구 서문시장에서 먹고 살기 위해 노점장사(사과 실과, PX 물 건등)를 하게 되었다. 하루는 우연히 옆에서 같이 장사를 하는 중년 남자를

알게 되여 고향, 성함을 주고받다가 그분이 황해도 豊川 出身이고 나의 性이 豊川 任이므로 한가족같이 친하게 시장에서 지나게 되었다. 그분이 유명한 國文學者 無涯 梁柱東 博士이다. 나는 그의 집에 갈 때마다 양박사의 부인 몸사모가 주는 따뜻한 차대접을 받으면서 吏頭(삼국 시대부터 漢字의 音과 뜻을 빌어 우리나라말을 表記하는 데 쓰이던 文字)문학, 龍飛御天歌, 영문법 등을 자연히 배우게 되였다.

하루는 시장에서 지나가던 손님이 양박사를 보고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양주동 선생님이시죠. 저를 모르시겠어요? 평양숭실 전문학교 시절 때 선생님에게 배웠던 제자 이**목사(이분 아들이 미국 Prince 대학 신학교 석좌교수였던 이상현박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당시 대구 YMCA 총무였던 제자 이목사의 주선으로 양박사는 일약 강사로 발탁되어 나와 자연히 멀어지게 되었다. 당시 대구 YMCA 건물 강당에서는 다양한 교양강좌가 있었는데 시문학(강사: 朴木月 시인)이 일반인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그후 1951년 4월 대구 시장에서 헌병에 잡혀 국민방위군(사령관 김윤근 준장 후일 뇌물사건으로 총살됨)에 끌려 가다가 도망하여 앞산 비행장(대구 대명동)근처 있는 사과 과수원을 경영하는 부자집 동네로 피신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궁이에 땔 장작나무를 구하려 낮에는 산에 올라 가서 나무를 베어 가지고 지게에 메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지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과수원 주인이 되시는 분의 마당에 산에서 베어온 나무로 평행봉을 세워 매일 아침마다 운동를 하곤 하였다.
사실 나는 만주에서 성장한 관계로 스케이트(북한학생 시절 500m경주 38.5초 기록 보유자), 스키를 누구보다도 잘 하였고 (나의 사촌 임경순은 대한민국 스키 국가대표 선수생활 10년, 중앙일보 2017년 1월 31일 화요일 스포츠 4 참조) 추구선수, 기계체조 선수 생활로 육체적 근육이 강철처럼 강하였던 내가 6·25 전쟁으로 인한 피난살이로 먹지 못하여 거의 폐인에 가까운 신세가 되었다.
그래도 어릴 때 반복된 운동습관이 피난살이에도 나를 그냥 두지 못하게 하여 평행봉을 남의 마당에 허락도 없이 세운 것이다. 그 이튿날 아침 땅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 어이 젊은이, 나의 허락도 없이 평행봉을 세우다니, 당장 뽑아 버려!, 산에만 가지 말고 젊은이가 공부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쯔쯔—".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심한 꾸중을 듣게 되었고 이것이 동기가 되어 앞산 미 5공군 기지내에 취직이 되어 막일로 하루종일 구내에서 보내다가 밤에는 독학으로 공부하며 한국문학전집, 세계문학전집 등을 서점에서 빌려 보게 되었다. 그 후 부활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詩를 교회에서 발표하게 되었고 단편소설까지 쓰게 되였다. 과수원 주인이 나의 단편소설을 보고 놀라면서 자기도 시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비로소 소개하는 것이다. 호는 한솔 시인 이효상(일본 제국대학 독문학부 졸업, 당시 대구 대륜고등학교교장, 후일 경북대학교초대 문리대학장, 국회의장역임, 박정희 전 대통령 대구사범학교 학생시 스승)이다.

당시 나는 대구 제일 장로교회에 주일마다 출석하여 당시 그 교회의 시무장로인 고병간(문교부차관역임), 주덕근(영남고등학교장, 국회의원역임)장로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피난시 대구에 있는 이북 5도민위원회의 추천과 이효상씨의 배려로 주덕근장로가 운영하는 영남고등학교 위탁생 자격으로 공부하게 되어 졸업장 없는 위탁생으로 부산에 있는 서울대에 입학서를 제출하게 되였다. 대학입학서 제출서류에는 반드시 졸업장이 첨부되어 있었야만 시험가능하였다. 그러나 영남고등학교의 졸업장을 제출토록 허용한 것은 위탁생으로 학교에 출석하여 정규 3학년 학생과 같이 졸업시험을 본 결과 나의 시험성적이 최고득점으로 나온 결과로 후일 서울대 공대에 입학이 될 것을 영남학교 당국에서는 확신하고 예견했기 때문에 이라고 본다.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이 6:1의 서울대 공대에 합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고 후일 알게 되었지만, 대학 일학년 학생들이 경기고, 서울고, 경복고 출신들이 100%였다. 이북 실향민의 거지 학생은 나뿐이었다. 하여튼 나에게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이 부산 피난시절에 대학에 입학(1953년)하여 최고 학점으로 1957년 3월에 졸업을 하게 됨을 지금 생각해 보면 전부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였음을 깨닫게 된다.

여기서부터는 직업선택과 그에 따른 사회적봉사에 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사실 나는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의 한사람으로 항상 의식주가 여의치 못하여 진해에 있는 4년제 육군사관학교(1952년)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부친과 상의하였으나 반대하여 기권하였고 법대에 입학하여 후일 검사,판사가 될 생각으로 또 부친과 상의하였으나 반대하여 기권하였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 내자식이 후일 판검사가 되어 남들의 죄과를 재판하여 감옥에 보내는 전문직 직업을 갖는 것이 별로 아름답지 않다는 소신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부친의 권고로 공대 토목과(나의 작고한 형님은 공대 건축과 출신. 대구 동산병원 설계, 원주 기독병원 설계, 제주 영락교회 설계 등 많은 건물들을 설계를 했음, 건축 설계사)를 선택하게 되었고 자기 본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없이 부친의 권고를 수렴하므로 전문직에 종사하게 되었다

아세아 특히 한국, 일본에서는 토목기술자를 재료공학적 견지에서 보고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미국등 서구에서는 시민(Civil) 사회 공공시설물의 전문직 기술자로 간주하여 토목기술자를 Civil Engineer로 부른다. 의사직도 세분화되어 내과, 외과로 부르고 있드

시 토목시설물의 대상도 너무 많아 예를 들면 교량, 철도 고속도로, 항만, 주택단지 등 다양하다. 토목을 전공한 후 한국사회와 미국사회에 봉사한 것은 지면관계로 모두 생략하고 매년 라구나우즈 문예협회(회장 고영주)에서 발행한 책들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다리(Bridge)와 연관된 나의 삶1,2,3.〉

대학교강단에서 후배들을 위해 가르쳤고 미국의 국방을 위해 미국 국방성에서 13년간 봉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은 것을 보고 놀라고 있다.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토목기술자로 50년간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문직을 내려놓고 미국에서 신학교를 나온 후 교단총회 목사고시 합격 후 노회에서 목사안수 받은 후 미주내에 5개의 교회를 개척하였던 지나온 역사를 기술할려면 한 권의 책으로도 부족하다.

모두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은 월간발행 개혁신앙지(발행인 임흥순)를 위해 매일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가고 있다. 젊었을 때는 전문직 토목기술자로서 사회에 헌신 봉사하였고 중년 이후에는 복음 사역자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하드라도 주님 앞에는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임을 항상 고백하며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가면서 聖化(Justification)의 과정을 매일 힘쓰고 있으며 영화(Glorification)의 천국문까지 건강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 달 전 카다나 큰빛 장로교회 박재훈 목사(1922-2021) (찬송가: 256,311,317,460장 작곡자)는 99세까지 88 활동하시다가 2,3일 몸이 좋지 않아 병원입원 후 그 다음날 운명하셨다. 문자 그대로 9988234의 생애를 마치고 천국으로 가셨다. 훌륭한 삶을 사셨고 매년 총회 때마다 만났던 그리운 모습을 더 볼 수 없게 됐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부족한 자의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매년 라구나우즈 문예협회를 위해 고생하며 수고하시는 고영주 회장님께 영육간에 더욱 강건히시기를 기원한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곳 라구나우즈 내에 다른 민족의 Community 교회들이 여려 있지만 한인만의 단독 교회는 그간 여러 목회자들이 노력하였지만 모두 실패하고 문을 닫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이유를 막론하고 이곳에 사는 30여명의 목회자의 공동 책임이라고 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가졌던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찌니라.
(갈라디아서 6장 8-10절)

우간다에서 온 소식

신 동 수
목사

Luke 12:49-53 “I have come to bring fire on the earth, and how I wish it were already kindled!
But I have a baptism to undergo, and what constraint I am under until it is completed! Do you think I came to bring peace on earth? No, I tell you, but division. From now on there will be five in one family divided against each other, three against two and two against three. They will be divided, father against son and son against father, mother against daughter and daughter against mother, mother-in-law against daughter-in-law and daughter-in-law against mother-inlaw.”

How should we live in the middle of this fallen world? This question is our struggles and the most important issue of our life as Christian. As an old person much closer to the end of this life, here is my conclusion: We should obey our Lord’s commands (Mat 22:37-40), look after orphans and widows in their distress,(James 1:27) and others, do not seek happiness and waste our life for the treasures of the world but become fools in the world (1Coryn 3:18-23), give back everything I have to the world.(Matt 19:16-26, John 15:13). Do not avoid and fear suffering and pain from the world but endure through it to join Him in His sufferings.(1Coryn 4:11-13,16,17, Job 23:10)

The reason we are left here even after being born again by His mercy, and as a grown up Christian is to work as a coworker by His calling to do His work to glorify

Him. (John 4:34). When I was a young Christian, I thought I can't and don't need to become like Paul but just be enough to have my own salvation, and believe many Christian are in that mind since the Bible clearly says the faith alone is enough for our salvation.
The more we study and meditate in His teachings we have continually grown to the fullness of Christ until our departure. (Ephesians 4:13). Paul urges us to imitate his ways of life as Jesus called each one of us to follow him.

Our mind, way of life and faith as grown-ups should focus on preparing for His Kingdom and we will be judged by Him as His teaching in the Lord's Prayer.

다가오는 나의 삶의 결론을 바라보며 내가 기도 하는 것을 중얼거려 본다.

나는 주님과 영원히 같이 존재해야 한다.(롬 6:23)

그런데 아직 이 세상에서 해야 할 남은 일들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분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육을 포기하고 그의 뜻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눅 9:23)

예수께서 영원히 파멸할수 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 오시고 인간으로 타락한 세상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죗값을 완전히 몸소 지불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분의 남은 사역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해야 한다. (골 1:24-25)

기독교의 중심되는 가르침은 서로 사랑하라 이다. (요15)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서로 사랑하라" 의 실천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내게 주신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기 원한다. 자비량 선교사로서 내가 가진 물질을 다 쓰며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하자.

나의 전공인 의료 선교와 아이들 선교사역을 할 수 있는 날까지 진행하길 원한다. 아이들에게 참된 기독인이 되는 길을 가르쳐야 한다.

두려움, 괴로움, 고난과 고통에 속박되지 말고 그 어려움을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려움에서 자유롭게 됨으로써 주님의 임재하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것의 궁극의 도전인 죽음을 올바르게 알고 그

과정이 바로 주님 품으로 가는 길인 것을 깨닫고 받아 드려서 그것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야 한다 오히려 담대하게 그분의 죽음에 동참하기를 원해야 한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 속에서 존재하고 싶다. 행복의 추구는 일시적이고 세상적이고 잘못된 판단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찾지 말아야 한다.
죄를 짓지 말고 그것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기도로 생각에서 지워 버려서 성령의 권능으로 점차 자유롭게 되어서 한줌의 부끄러움이 없이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
육, 자신의 욕망을 이기고 세상 중심의 가치관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육을 포기함으로 매일 나의 육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육의 고통을 이기는 삶, 세상의 편한 삶을 돌아보지 않고, 물질을 지양하고, 세상의 위로와 성공과 영광을 찾지 않는 경건한 삶을 원한다.

내 중심에서(Narcissism) 벗어나고 이웃을 특히 크리스티안을 내가 모시고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어 주며 사랑하며 위하는 삶을 살고 싶다.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담대하게 그분의 뜻대로 따르는 삶을 원한다.

육체를 늙었다고 편하게 쉬려고 하지 말고 주신 건강을 잘 운영하여 자유롭고 염려하지 않으며 두려워 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저 없이 해야할 일들을 하는 삶 그리고 모든 주위의 위협들을 기도로써 양보하고 손해보며 풀어감으로 이웃과 화평하는 삶을 추구한다.

내가 어디에서 죽을지를 계획하지 않고 선교지에서 사역하다가 떠나기를 원한다.



막달라 마리아의 노래



림 학 춘
라구나힐스교회 담임목사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늘 이 새벽을 나섭니다.
활짝 피우기 전 꽃망울에서 동 터오는 부활을 볼 수 있도 록 마음의 눈을 열어 주소서.
의심과 회의, 부인과 배반의 아픔과 절망이 채 아물지도 않은 그 날의 십자가 아무도 아무에게도 무어라 한 마디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그 먹먹함을 뚫고 침침한 어둠의 끝자락을 넘어 다시 돌아오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빈 무덤에 남기신 것은 고운 삼베 수의와 곱게 개켜 놓은 머리 수건 수의는 망자에게 입혀 드리는 마지막 옷, 가시 상처로 깊이 파인 머리를 싸매였지만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면서도 아무도 내놓고 지켜 드리지 못하였으니 부디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못된 세상을 뒤로 하소서. 활활 타오르며 불을 질러 주셨던 그 불도 이제는 기억으로만 남아야 합니까.

부끄럽다. 이렇게 그 분을 보내고 허망하게 산다는 것이 활화산처럼 나를 휘어잡았던 일곱 귀신을 쫓아 내주시어 이제 사람처럼 살 수 있었는데 의인 열 사람이 없어 잿더미가 된 소돔과 고모라처첨 살았던 귀신같던 지난 날.
열사병처럼 식지 않았던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의 귀신들 매일 사는 것이 귀신의 날이었답니다.

부서진 질그릇 조각같은 나를 찾아 오셔서 나를 찾아 주신 그 날, 활기가 무엇인지 생기가 무엇인지 산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의미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증거로 삼으라 하신 소금 기등 또한 죽음의 바다 옆에 여전히 서 있는데 인정하지 않고 뒤돌아보는 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마리아를 깨우신 그 음성으로 나를 깨워 주소서.
활력을 주시며 주님의 부활을 전하라는 소명으로 부활하게 하소서.
의심에서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평화로 나서게 하소서.
소망 가운데 소망, 은혜 위에 은혜는 부활하여 찾아오신 주님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 가겠습니다.



7월 18일 주일예배 기도문



김 경 자
LWV 서울대 동문회장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심연과도 같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이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돌려 드립니다.

찬란히 떠오르는 새아침의 태양과 끝없이 펼쳐진 푸르른 바다의 물결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양케하시며 온천하 만국에 세우신 교회들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물을 열납하시고 성령강림 여덟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받으며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돈독한 믿음과 소망 위에 기쁨과 감사로 충만히 채워지는 은총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찬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 주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희생을 그려보며 우리의 죄를 아뢰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주님만이 아시는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삶을 정화시켜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구촌 곳곳이 폭염과 화재로 코로나바이러스와 지진으로 홍수와 기근과 가뭄 전쟁과 테러, 수없는 사고와 위험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에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주신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며 영혼구원 사역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더불어 세계 복음화의 불길을 점화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75억 지구촌 이웃들의 끝없는 탐욕과 교만과 방탕과 불의와 온갖 우상숭배 대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축복을 내려주셔서 오묘하고

기묘하게 창조하신 아름답고 찬란한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겸손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절제하며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인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심정으로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장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장학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일꾼들을 선택하셔서 잘 양육하여 주시고 잘 양육된 젊은이들을 하나님 나라 확장과 나라와 민족과 인류에게 공헌하는 인재들로 성장시켜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투병 중이신 성도님들과 여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시는 주님 우리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친히 심방해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손길로 안찰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출타중이신 성도님들의 발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출입이 되도록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열정으로 불철주야 양무리를 돌보시는 임학춘 목사님과 임선희 사모님, 김종두 목사님과 김성은 사모님 은퇴목사님 여러분과 사모님 여러분 모든 수고와 헌신으로 조용히 교회를 세워가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케하시고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사 수많은 신령한 열매와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저희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격려하시며 푸른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임학춘 목사님께서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권능으로 옷 입혀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력있고 운동력 있는 주옥같은 말씀으로 저희 가슴과 생활에 잘 심어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준비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설 것을 예비하며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해 아끼고 온몸과 맘을 다해 힘써서 일하는 성도들이 되게하시어 주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 앞에서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한 송이 빨간 장미를 드립니다

<우리의 낙원>은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한다는 심정으로 출발했습니다.
'서리 맞은 단풍이 더 붉다'고 하듯이 우리는 가을 방랑자요, 겨울 나그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글 쓰는 우리 회원들의 피와 땀과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하고 평범한 이야기들입니다.
여기 실린 글은 세련되고 미사여구를 보여 드리는 글솜씨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씹을수록 고기 맛이 나고, 잘 익은 홍시 맛이 나는 인생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개중에는 본의 아니게 자기 자랑도 있고 편협하고 독선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미숙으로 이해해 주시고 마음 너그럽게 반면교사로 여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책이 라구나우즈를 알리는 놀라운 선전 매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은 우리 동네를 소개하는 데 더할 나위 없는 최상의 광고물입니다. 이런 예쁜 동네 책은 미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LWV 문예 진흥의 축제에 많이 참여해 주신 여러 집필자님과 주위에서 물심양면으로 항상 열성적으로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 편집인 일동 -



원고를 인쇄에 부치면서

〈우리의 낙원〉은 라구나우즈 한인들의 얼굴입니다. 이 동네 이사오실 분은 이 한 권의 책이 모든 해답을 드립니다.

이 예쁜 책이 나오는데 숨은 공로자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프린트론 송기평 사장과 함께 일하시는 제인 구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원고에 나온 사진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꼼꼼하고 예쁘게 편집하는데 저와 무려 300회 이상 전화와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정열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휴가 기간에도 〈우리의 낙원〉에 올인하셨습니다. 고치고 바꾸고 또 바로 잡았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라구나우즈 동네 분들이 만든 이렇게 예쁜 책은 아마 찾아보기 드물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책을 만들면서 특히 우리 동네의 위상과 저력을 보여주시고 편집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신 여러 후원자님 덕분에 풍년을 맞게 되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동네 책을 만드는 우리의 어려움과 열성에 감동하여 5천 불을 선뜻 희사해주신 통 큰 뿌리 선생님, Root(뿌리) Broadway Dance 디렉터 그리고 박제송 선배님, 민공기 선배님, 김홍식님, 최선영님, 낸시 권님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출판 행사 때마다 글을 집필하지 않으시면서도 옆에서 몰래 후원해주시는 임동호님, 이병우님, 장기화님, 박우형님 여러 동문님께 가슴 뜨거운 우정을 느낍니다.
끝으로 송기평님, 장금주님, 김홍식님, 강홍식님, 낸시 권님, 소피아 최님 편집위원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박승원 사진 작가의 노고와 Video로 길이 남겨 주실 강태원 작가의 배려에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LWV 문예협회장 고영주 배상

오래오래 | 달파

우린 오래 살아서
서로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안다.
오래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오래가 어느듯 사랑인 줄 몰랐네.

우리 더
오래오래 살자.

인지위덕 (忍之爲德)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여우가 살았습니다.
여우는 근처 농부의 집에 몰래 들어가 닭을 물어 갔습니다.
농부는 오죽 배가 고팠으면 그러랴 생각하고 참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또 여우가 나타나 이번에는 오리를 한 마리 물어 갔습니다.
농부는 한 번 더 참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여우가 또 찾아와서 닭을 물어가자
농부는 덫을 놓고 마침내 여우를 잡았습니다.
농부는 그냥 죽이는 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아
여우 꼬리에 짚을 묶은 후 불을 붙였습니다.
여우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을 보며
농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우가 뛰어간 곳은 농부가 1년 내내 땀 흘려 농사를 지은
밀밭 이었습니다.
여우가 지나갈 때마다 불길이 번졌고 밀밭은 순식간에 재로
변했습니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 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신을 화나게 한 대상에게 자제심을 잃고 복수를 했을 때
그 행위로 인한 화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忍之爲德(인지위덕)은 참는 것으로 인하여 덕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수필가 피천득 선생은 이렇게 썼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꼭 ‘인연’만 일까.
손에 들어온 기회를 기회인지조차 모르고 놓친 뒤
오히려 당하는 어리석음을 역사는 기록한다.

부록 1. 나의 취미 생활

신옥자 박승원
곽병희 정주택
이혜규 유재성
박 청 이선용
강홍식 박제송
손기용 Brian Kim
강목본 김소향

LWV Lapidary Glass



신 옥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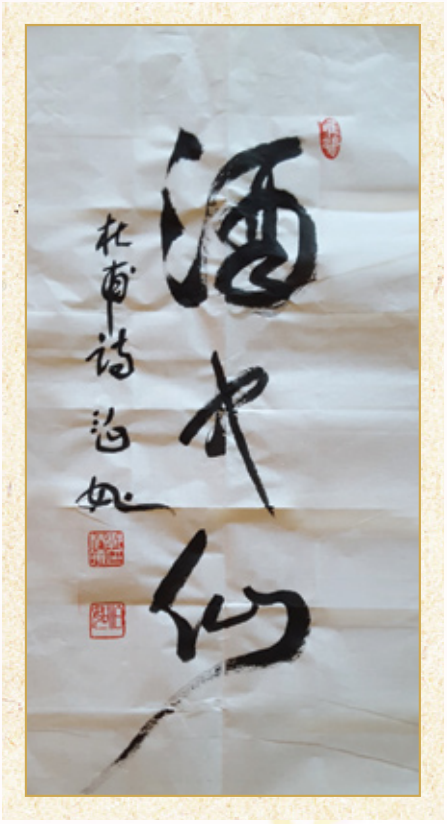
곽 병 희



지족



일우신



주중선



수호조룡 등교기봉

이 혜 규



빈 마음

그대로 뚝 뚝
휘날리는 일 없이
하얀 눈송이 잊은 지 오래
속 가슴 아린데
빈 마음 채우려 뚝 뚝



조춘 (早春)

3월 건너기 전
성질 급한 복숭나무
젖 몽오리 머리 이고
벙긋 웃는 분홍 입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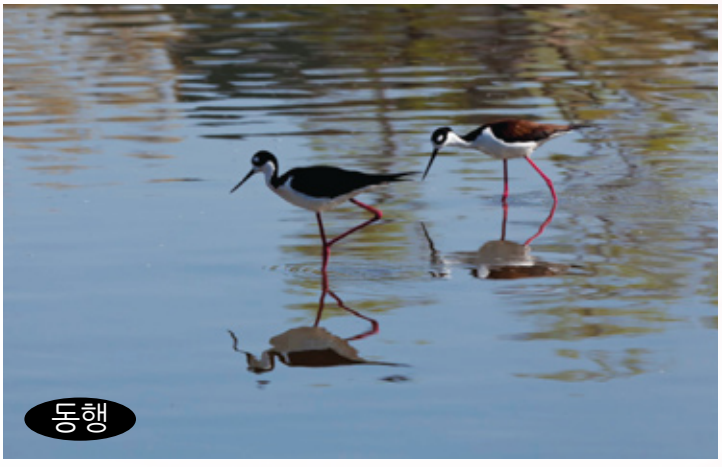
박 청













강 흥 식

여기는 빈 자리
편히 쉬세요.
누구라도 좋소.
〈주인 없는 의자〉





심신이 하나 되는 Dance
가장 행복한 순간

손 기 용



Mexican Dancers.
Mexico의 항구 Puerto Vallarta 해변에 있는 조각



강목본


탈북자 돕기 모금을 위한
강목본 자선 독창 음악회
David Chiang Music Concert for North Korea Defectors
Artistic Director 溫隆信 David Wen
Music Director/Conductor 溫蒂蒂 Esther Wen
Piano 椎名郁子 Yuko Shiina
Mezzo Soprano 李易琛 I-Chin "Betty"Lee
Soprano 吳麗華 Marguerite Wu
Bass 葉健 Jerry Yeh
Trumpet 王秉璇 Luis Wang
Violin 王介儒 Anthony Wang
Tenor 姜睦本 / David Chiang 강목본
LWV Joyful Women's Chorale
姜睦本 慈善 獨唱 音樂會
JUNE 22nd, 2019 Saturday 6:30PM
Club House 3 Auditorium in Laguna Woods Village





박 승 원

Fine Art Photo Aw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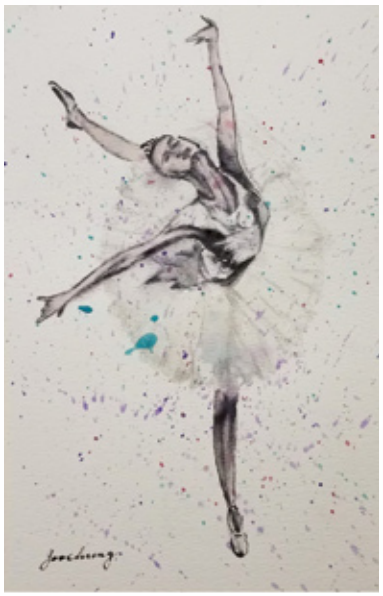




정 주 택









유 재 성





Nelson Kwon

텃밭의 트럼펫 메아리



Brian Kim

90이 가까운 고령이신데
과거 10년을 한결같이
Line Dance 지도로
봉사해 오신 Brian Kim
(김병운) 선생님 부부

이 선 용



박 제 송





김 소 향

노익장 마라토너
김소향 할머니

쉰 네살에 시작한
마라톤은 열여덟 해 동안
서른 다섯 번 완주
회갑을 맞았던 2006년
다섯 번 경기 참가

2. 사진 공모

김소향
피효자
주 강
김수경
이덕이
노조앤
김귀양
임흥순

LWV Library & History Center





김 소 향





피 효 자







주 강















주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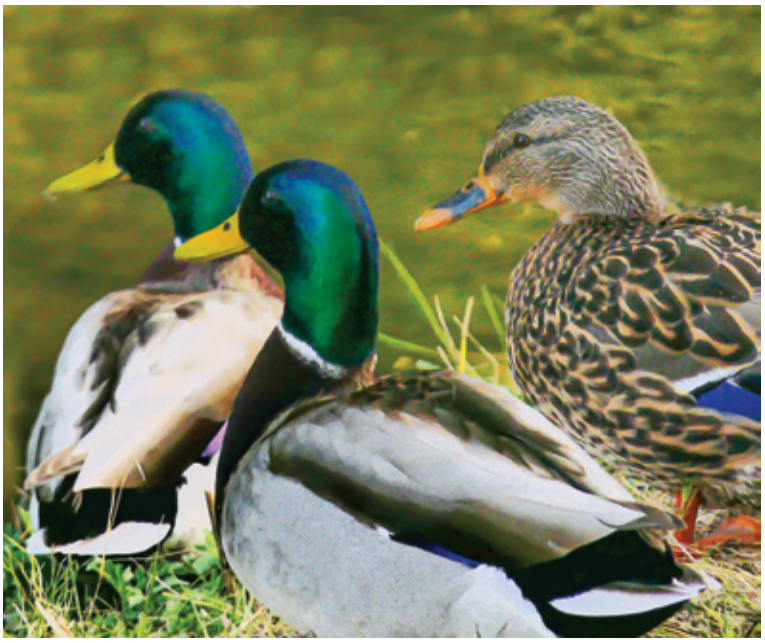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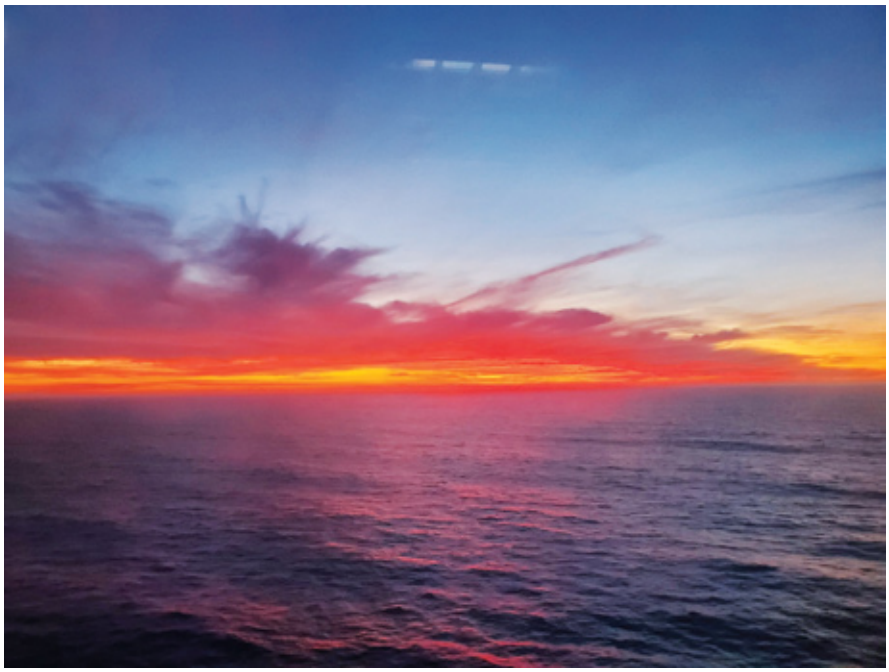
김 수 경








Laguna Woods Village



이 덕 이















이 덕 이















노 조 엔













노 조 엔









김 귀 양



임흥순

















3. 동아리 소개

동아리 소개

동아리 장소	시간	회장 및 임원	연락 전화
PC 교육반		조성환	949-468-5965
목요 합창반			
CH-7 (임시 CH-1)	목요일 오전 11:00-12:30	회장: Sophia Choi 총무: 이신애	714-785-3322 949-616-6078
남성합창단			
CH-1 main lounge	매월 1, 3째 월요일 7:00-9:00	지휘: 김영국 회장: 최원길 총무: 주 강	714-616-0551 858-248-1704 949-478-0099
조이풀 여성합창단			
CH1 Art Gallery Room	매월 1,3째 월요일 2:00-4:00	회장: 이영옥	614-302-9759
가요반			
CH-1 Art Gallery Room	목요일 6:00-8:00	회장: Sophia Choi	714-785-3322
Alex 실용음악			
CH-1 Art Gallery Room	매월 1 월요일 6:00-9:00	회장: 유병기	949-275-2898
Line Dance			
CH-5	월요일 오전 9-12	지도: 최순옥 회장: 강영애	949-228-6107 206-778-3296
Broadway Dance Group			
CH-1 Multi Purpose Room	수요일 2:00-4:00	지도: Root 총무: Kathy Park	949-751-9737 818-281-4028
난타, 장구, 고전무용 Class			
CH-2	수요일 9:00-10:30 무용 10:30-11:30 난타 11:30-12:30 장구	지도: 김영옥	724-612-2528 949-540-9745
라구나 K 색소폰 앙상블			
CH-5 Room-1	목요일 1:00-5:00	송경섭	201-456-8997
클라리넷		이광구	513-646-9821
기타반		이광구	513-646-9821
오토 하프		이영옥	614-302-9759
은솔 밴드			
CH-2 Los Olivos Room	월요일 10-12	회장: 김강서	661-644-4395

동아리 장소	시간	회장 및 임원	연락 전화
Golf			
Golf course	매년 2-3회 Tournament	회장: 송기평 부회장: 장금주	310-502-4884 949-599-4572
여성회			
CH-7	매년 1,3,5,7,9,11월 첫째 목요일	회장: 장금주 총무: 주미란	949-599-4572 949-531-0044
문예협회			
CH-5	매년 11월 첫째 목요일	고영주	310-970-2707
인물화 교실			
CH-4 Art Studio	수요일 1:00-3:00	유재성	949-374-3194
서예 교실			
CH-4 Art Studio	금요일 오전 9:00-11:00	지도: 곽병희	847-404-1593
영사모(영어 사랑 모임)		지도: 윤억섭	858-381-7734
		총무: 이광구	513-646-9821
풀꽃사진 동호회			
CH-2	매월 2,4번째 화요일10:00	회장: 박종수	610-909-9438
등산반			
등산 코스에 따라 수시 변경	등산 코스에 따라 수시 변경	회장: 전정업	213-500-9001
LWV 여행자 클럽			
여행 계획에 따라 수시 변경	여행 계획에 따라 수시 변경	회장: 박승원	253-583-6588
탁구부		강옥식	714-595-9885
테니스		박혜숙	515-451-3398
Bio 시니어 그룹			
CH-1 Art Gallery	매월2,4 화요일 2:00-4:00	회장: 이영범 총무: 이은주	602-363-2939
사랑방			
CH-1 커피룸 옆 룸-2	화요일 9:00-11:00	김은식	972-849-5455
기우회			
2393 (지하 레크레이션 룸)	화요일 1:00-5:00	회장: 황정식 총무: 김창기	949-768-5336 347-893-1066







목요 합창반



남성 합창단



조이풀 여성 합창반







가요반



Alex 실용음악





Line Dance







Broadway Dance Group











난타, 장구, 고전무용 Class



라구나 K 색소폰 앙상블



은솔 밴드





오토 하프









Golf



여성회



문예협회







서예교실



풀꽃사진 동호회



등산반



LWV 여행자 클럽



사랑방

후원해 주신 분들

4-1. LWV 한인회 후원회



〈 라구나우즈 한인회 후원 업체 〉

라구나우즈 후원회는 라구나우즈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순수하게 뜻을 합쳐
라구나우즈 한인 커뮤니티를 후원하는 단체로서 병원, 치과, 약국, 보험, 한의사, 등의
비지니스 그룹입니다.

- **스타웨이 재정보험** 23461 South Pointe Dr. #210, Laguna Hills, CA 92653 〈949-581-7827〉
- **김방선(내과)** 2500 Alton Pkwy #106, Irvine, CA 92606 〈949-552-8282〉
- **오문목(가정의학과)** 3500 Barranca Pkwy, #330, Irvine, CA 92606 〈949-552-8217〉
- **김건중(치과)** 2492 Walnut Ave, #200, Tustin, CA 92780 〈949-679-6000〉
- **김일화한방병원** 1600 Dove Street, #210, Newport Beach, CA 92660 〈949-390-6480〉
- **서울 메디칼그룹** 6940 Beach Blvd, #D-501, Buena Park, CA 90621 〈213-389-0077〉
- **OPTUM 죠셉전 MD** 5581 Alton Pkwy Irvine, CA 92618 〈714-739-4325〉

스타웨이 재정보험에서는 노후자금관리 (은퇴연금), 메디케어 보조보험, 롱텀케어, 등에 관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949-581-7827, 714-995-9999)

- 65세가 되시거나 타지역에서 이주(전)해 오셨습니까?
- 롱텀케어가 필요하십니까?
- 아직도 IRA, 401(k)를 주식이나 뮤츄얼펀드 등의 형태로 관리 하고 계십니까?

라구나우즈 한인 후원회는
라구나우즈 한인시니어분들을 섬기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라구나우즈 주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여러분의 은퇴 이후의 새로운 삶에 대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4-2. 문협 후원자



2021년 10월 24일 현재
LWV <우리의 낙원> 출판기념회 후원금

이월 총액	$2,775.57
광고 바니 윤	500.00
광고 주강	500.00
광고 후원회	1,400.00
이원문	300.00
최석호	200.00
이덕희	400.00
김선하	500.00
임동호	500.00
김석홍	300.00
손기용	500.00
박우형/Kay	300.00
이종민	200.00
Nancy Kwon	300.00
임건식	500.00
김소향	300.00
강수지	300.00
이영범	300.00
김홍식/김석자	1,000.00
강홍식	500.00
고영주/고정자	1,000.00
윤경순	300.00
김원기	400.00
소피아 최	100.00
채호원	200.00
양정애	400.00
최선영	300.00
이강민	500.00
Root	5,000.00
민공기	600.00
홍대욱	200.00
박제송	1,200.00
피효자	300.00
김정자(Joy K)	100.00
곽병희	200.00
박승원	200.00
고영철	500.00
이혜규	300.00
임흥순	200.00
장원호	200.00
장기화	300.00
김성웅	300.00
김병희	100.00
조선환	100.00
무명씨	500.00
한자영(한주용)	500.00
한인회	500
박 청	200

4-3. 탈북민 돕기 후원자



탈 북민 돕기

우리가 만드는 이 책의 제목 'LWV-우리의 낙원' 을 보면서 무엇이 낙원이며 어떻게 하는 삶이 낙원 속의 삶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주변환경이 아무리 천국처럼 아름답다 하더라도, 또 얄팍한 육신적 enjoy를 누리며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 깊은 속으로부터 인생으로써의 진정한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곳이 진정한 낙원이 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 인생 마지막이 될 삶의 터전으로 이곳을 선택하였으면서도 보람된 마지막을 장식해야지 하는 막연한 생각만 있었지 구체적인 아이디어 없이 이곳 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곳 program 중에서 어쩌다가 탈북민 구출과 후원하는 일에 생각지도 않게 연결 되게 되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평생의 직업과 연관 있으면서 또 평소의 관심대로 영과 육의 두 생명을 동시에 구출할 수 있고 진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미국 은퇴 마을들 중 이런 적극적 활동 유일할지도 모를 이 보람된 일 함께 해 주고 계시는 우리마을 이웃분들 너무나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중 아무도 이런 일 미리 계획하거나 의논 하지도 않았고 또 무슨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닌 순전히 자연발생적이요 자원봉사적인데도 이렇게 여러 해를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 마을의 자랑스런 전통처럼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 의도나 계획이 없는데도 잊을 만할 때쯤이면 어느 분이 $100 보내주시고 좀 지나면 또 다른 분이 $300 보내 주시기를 계속해 주시기에 아무 힘 들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이며 또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갈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힘 드리지 않고 'LWV-우리의 낙원'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 있었던 후원금 모금 gala show에도 300명 정도의 대다수 미국인 참석자들 중 senior로써 뿐 아니라 한국인으로써도 이곳 우리가 유일한 table 같았는데 즉석에서 $70만불-$100만불이 모금 되어지는 것 보며 놀라웠습니다.
동시에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그들은 우리 한국인과 다르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 구출할 때 그가 어느 정당 소속인지 물어보고

선별적으로 구출하거나, 출신 고향이 어디인지 조금도 따짐 없이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생명 구출뿐인 넓은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2019년 발행 '이민생활의 파노라마' 에 발표한 이후 계속 되어 온 Covid-19 pandemic 기간 중임에도 2021년 10월 현재까지 후원기관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 탈북민을 후원해 주신 후원자 명단입니다. 혹 누락이나 착오 발견하시거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0-6-21, 김홍식〉

<2020년> 후원자

강홍식	$300	고영주	$500
김귀양	$110	김동환	$300
김두호	$1,600	김석홍	$200
김영철	$900	김창호	$500
김홍식	$800	김요엘	$300
민공기	$1,000	박제송	$300
염도석	$300	오문목	$500
오정근	$100	용재해	$500
유효선	$300	이규조	$100
이남섭	$500	이임숙	$500
이철우	$300	임건식	$300
임철원	$200	정베드로	$300
정주택	$500	조성환	$1,000
차은숙	$200	채호원	$200
한주용	$500	한태섭	$100
홍대욱	$200	문예협회(책)	$80

Dr. Jung French	$300
Root Simon	$500
Luke medical ministry	$1,000
Joanne Kim (P.V. 부동산)	$200
Kim, Young J.	$100
Rosa Kim	$3,000
Michelle Steel	$900
Calvary Chapel Grace	$1,000
Jen Harris	$100

<2021년> 후원자

강홍식	$500	고영주	$500
김홍식	$1,000	민공기	$10,000
박승원	$400	송재홍	$200

특별 후원자

용영자	$100	이규하	$1,000
이남섭	$500	이영범	$300
이임숙	$500	이철우	$300
임건식	$500	정베드로	$100
조선환	$300	차은숙	$500
한태섭	$200	홍대욱	$500

1) Diamond medal($10,000 이상)
민공기

2) Gold medal ($5,000-$10,000)

3) Silver medal ($3,000-$5,000)
Rosa Kim

4) Bronze medal ($1,000-$3,000)
고영주, 김홍식, 김두호, 조성환,
이임숙, 이규하, Calvary Chapel Grace,
Luke Medical Ministry


Ten thousand dollars


LIBERTY IN NORTH KOREA



HOMESMART



Bonnie Yune
바니윤 부동산

LAGUNA WOODS I SENIOR 55+ SPECIALIST

Realtor • DRE #01973042

"20년 경력! 최선과 성심으로 일합니다"

CELL: 949.315.8654

9901 IRVINE CENTER DRIVE I IRVINE, CA 92618

E-mail: **bonnieyune@gmail.com**

VOTED A TOP WORKPLACE FOR 9 CONSECUTIVE YEARS

TOP WORK PLACES REGISTER

REALTOR®

만나서 반갑고 알아두면 유익한 부동산 전문가

South Orange County 지역
주택및 투자용 부동산 전문
오랜 경험과 철저한 **투자 분석**
현명한 선택과 탁월한 협상능력
고객위주의 투철한 서비스



ourAgent@gmail.com

28 년 이상의 오랜 **경험**
라구나우즈 빌리지 전문

949.282-9230

• **이미라**
Lyudmila Li, M.S.
SALES ASSOCIATE
BRE 01925280

• 태공, **주 강**
Kari Chu, M.S./MTM
Broker
BRE 01152645

RE/PRO
4989House.com Real Estate

949.478-0099

STARWAY GENERAL FINANCIAL SERVICES, INC.
스타웨이 재정 & 보험 서비스

CA Lic. # 0F65284

"은퇴후 30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재 정 — 은퇴자금 무료상담

투자자금의 안정성
- 원금보장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 계약자 보호 장치 (Guranty Fund)
- 든든한 메이저 회사 취급

높은 수익성
- 인덱스 상한가 모두 반영 (수익 극대)
- No Fee

유동성 (현금화)
- 매년 10% 인출 가능
- 계약 기간후, 전액 현금화 가능
- 평생월급 보장 (자신 및 배우자 생존시 까지)

롱텀케어 — 최신 플랜

롱텀케어 혜택 내용
- 요양시설, 간호사, 홈케어, 등 (한국에서도 가능)
- 휠체어 보조시설(집 출입구, 난간, 등)
- 케어 제공자 훈련, 휴가
- 환자 휴가 중, 요양시설(방) reserve, 등

일시납(목돈)보험료 방식
- 부부 2인 평생보장
- 캔슬시, 보험료 환불, 사망시, 생명보험혜택

월보험료 방식
- 생명보험 한도까지 롱텀케어로 사용 가능
- 사망시, 유족에게 생명보험 혜택

메디케어, 메디칼, 건강보험 — 건강보험 전문가 무료 상담

- 65세 되실 분, 타주(지역)에서 이사오신 분
- 직장 건강보험 중단하실 분
- 개인건강보험 (오바마케어 혜택)
- 전문가의 친절한 무료 상담 및 서비스



"얼바인에서 전문보험인을 만나보십시오"

무료상담 **David Kim 박사 (보험금융 전문)**





대 표 David Kim, Ph. D. (보험, 금융)
- University of Texas, Austin 경제학 (금융, 보험) 박사
- 한국 국책 연구원: 연구위원 (민간보험 및 사회보험)

주요경력
- 미국 보험 평가회사(A.M. Best)와 협업, 한국생명보험회사 도산확률예측 모형개발
- OECD 회의 한국대표로 참여 (보험분과 회의)
- 한국 퇴직연금제도 도입 핵심 연구위원
- 캄보디아 종업원 상해보험제도 도입 (유엔 산하 ILO 요청)

Manager
Sarah Kim, M.A
- 건강보험 20년
- 변호사사무실 7년

STAR
T.949.581.7827
T.714.995.9999
Fax.949.716.7827

23461 South Pointe Dr. #210, Laguna Hills, CA 92653

KIM MEDICAL GROUP

얼바인 김방선내과

진 료 과 목

■ 당뇨병, 고혈압, 각종 성인병 및 암검사
■ 심장 초음파 및 각종 초음파 검사
■ 위 장,직장내시경 검사
■ 응급치료(Urgent Care), 간단한 수술

20여년 경험의
미국과 한국
내과 전문의



949.552.8282

2500 Alton Pkwy. #108 Irvine, CA 92606 (얼바인 H마트 옆)
www.kimmedicalgroup.com



Michael Oh, MD, PhD

행복한 미소의 시작 얼바인 프로 메디칼

IRVINE PROFESSIONAL MEDICAL GROUP

오문목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 가정의학과 • 내과 • 노인과 • 소아과 • 피부과 • 비뇨기과 • 부인과

* 이민국 신체검사 지정병원

각종 의료보험 / 교통사고 보험
HMO / 메디케어

949.552.8217

3500 Barranca Pkwy Suite 330, Irvine, CA 92606
Fax. 949.809.9514 irvinefm@gmail.com

평생 치아 건강을 맡길수 있는
33년 임상경험의 치아이식 전문의와의 만남...

김건중 종합치과

Implant, Cosmetic,
Orthodontic & Laser Dentistry
Oral Surgery



Keon-Jung Kim Dental Corp.
IMPLANT, ORTHODONTIC, COSMETIC &
LASER DENTISTRY / ORAL SURGERY

New Address 월 - 목: 9AM - 6PM / 토: 8AM - 2P

2492 Walnut Ave. #200, Tustin, CA 92780
949.679.6000 /(San Diego) 760.479.9876
www.timkimdental.com





- 각종 보험과 메디컬
- 보험없는 분들을 위한 페이먼트 플랜
- 해외선교사 및 교역자 특별우대 플랜
- Medicare 9 (PPO)

3차원 CT 촬영으로 정확한 진단과 수술
레이저를 통한 무마취 · 무출혈 · 무통 잇몸치료
Surgical Microscope를 이용한 섬세한 외과수술 및 동영상 촬영



진료 과목 치아이식 | 구강외과 틈니/보철치과 | 미용성형치과 | 신경및 잇몸치료 | 레이저 치료 | 일반치과 | 소아치과 | 악관절치과 | 교정치과

OPTUM®

따뜻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건강한 세상 OPTUM의 소망입니다.



전 달 훈 (죠셉 전) M.D.

[일반의학] 내과/소아과/가정의학과/알러지과/면역과/노인과/발전문과/임상심리과

- MIT 대학졸업
- UCLA 대학졸업 (UCLA David Geffen School of Medicine)
- LAC-USC 병원 내과/소아과 (LA 카운티 USC Medical Center 및 Veterans Affairs West Medical Center in Los Angeles)
- UCLA 병원 알러지과 수료 (UCLA School of Medicine레지던트)

광범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및 전문의 소개 | 치료계획을 도와줄 CARE 매니저 상주 | 편리한 지역 병원, 긴급 진료클리닉

만성질환 환자를 위한 특별프로그램 | 전자 의무기록 사용 | 시니어 연간 건강검진

예약을 위해 오늘 전화하세요.

프로그램 및 진료서비스의 전체목록을 원하시면 드릴수 있습니다.

BUENA PARK OFFICE (714)739-4325 • 6261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IRVINE OFFICE (949)222-9158 • 5581 Alton Parkway., Irvine, CA 92618

WWW.OPTUMCARE.COM

캘리포니아 유일의 대한민국 한방전문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한방치료

김일화 한의원

디스크 • 관절염 • 중풍 뇌졸증 관리 • 맞춤한약/보약

"지난 7년간의 얼바인 자생한방병원 진료마치고 제 이름을 걸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한의사 김일화

대한민국 한의사, 미국 CA, NY, IL 면허
대한민국 순환신경한방내과 전문의
LA 동국대학교 한의대 교수
전, 대한한의사 협회 국제위원
전,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임상진료지침 연구원
전, 자생한방병원 얼바인 분원장

상담, 문의 환영

www.lenakimacu.com

949-943-6161

1600 Dove St., Ste 210
Newport Beach, CA 92660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하시는 어르신들은 걱정없습니다!



건강을 지키자!

신간 소개



Wonderful Hangul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보는 책〉

* 학생에게는 놀라운 효과, 한나절(6시간) 학습 완결판!
* 지도 교사에게는 새롭고 흥미진진한 학습 지침서!
* 학부모에게는 문예 창작 취미 활동 필독서!

<우리의 낙원>

발행처 프린트론
인 쇄 송기평
발행인 라구나우즈 문예협회

지은이 라구나우즈 문예협회
youngjko38@gmail.com



가격: $20.00

9 78158 23651 3